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GROWTH FOR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ADULT IMMIGRANTS
THROUGH CHRISTIAN EDUCATION**

미국한인교회 이민 1 세들의 교회교육을 통한 영적변화와 성장

A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for th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by

John Jeongtae Kim

May 2018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GROWTH FOR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ADULT IMMIGRANTS
THROUGH CHRISTIAN EDUCATION**

미국한인교회 이민 1 세들의 교회교육을 통한 영적 변화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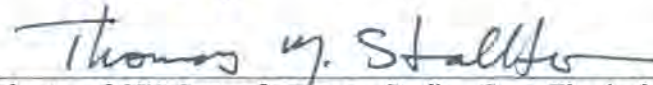
Written by
John Jeongta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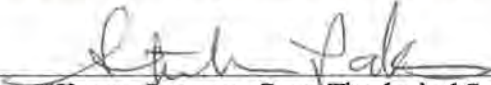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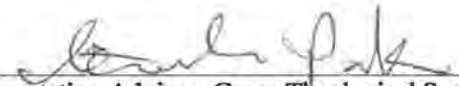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pproval


Vice President & Dean, Seminary,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Center for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dvi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Growth for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Adult Immigrants through Christian Education**
미국한인교회 이민 1 세들의 교회교육을 통한 영적 변화와 성장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by

Kim, John Jeongtae

May 2018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Growth for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Adult Immigrants through Christian Education
미국한인교회 이민 1 세들의 교회교육을 통한 영적 변화와 성장

Written by
Kim, John Jeongta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pproval

Dean,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Center for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dvi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Missiology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개요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다원주의 세계관의 강력한 영향아래 놓여있다. 미국 한인 이민 교회 또한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이 무너지고, 진리의 혼돈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파편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로 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 공통적으로 공유하던 가치 체계나 세계관이 무너져버리고 거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교육과 영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 교육은 성도들의 삶의 근본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가르치며,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가치 체계를 제공해 준다.

교회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됨으로써 그 총체적인 복음을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지·정·의 즉,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인식되고 경험된 총체적 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교회 교육을 실시할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존 중심의 성경공부를 제안한다. 질문과 토론 중심의 귀납법 적 성경공부가 효과적이며, 성경을 적용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 받거나 소감을 쓰도록 하여 스스로 성경적인 적용들을 유추해 내도록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문화적인 이슈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병행하도록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the nature, process, and facilitating factors of transformative church education in a Korean American immigrant congregation (KAIC) through contextualization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focus was on discovering how and to what extent, if any, the congregational culture of the KAIC as the learning situation played a role in the process of their perspective transformation.

A qualitative ethnographic research study of KAIC in Chicago area has been conducted. Seventy-six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adults of KAIC in Chicago area has been selected and interviewed along with non-participatory observation of KAIC in Chicago area. In addition, seven KAIC pastors have been selected and interviewed for the perspective of KAIC pastors. one focus group interviews will be employed in order to assess the culture of AFC.

The major findings are the process of a person's conversion,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growth through the KAIC education. In order for true, biblical transformations to take place, a person's conversion to Christ should result with a point of decision and a process for developing into Christlikeness. Conversion, both individual and corporate, calls for repentance that leads to commitment to Jesus and the sanctification of that person with the community of believers.

This research found that Paul Hiebert's thesis of Transforming Worldviews is still applying to KAIC which is that when new people groups are converted to Christianity, Christ must encompass all three levels of culture through behaviors, beliefs, and worldviews.

도표 목록 (LIST OF TABLES)

- Figure 1. 한인 2 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 Figure 2. 문화의 두 가지 차원
- Figure 3. 닐 앤더슨의 최초의 인간 창조
- Figure 4. 흙스테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 Figure 5. 흙스테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미국 vs 한국
- Figure 6.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 Figure 7. 세계 문화 지도- WVS wave 6(2010-2014)
- Figure 8. 4 개국 물질주의자 vs 탈물질주의자 비교
- Figure 9. Contextualization of the pastor vs importance of the pastor' s contextualization
- Figure 10. 흙스테드의 다섯가지의 문화의 차원
- Figure 11. 커뮤니케이션 모델
- Figure 12. 설문 응답자 연령
- Figure 13. 설문 응답자 학력
- Figure 14. 설문 응답자 신앙 경력
- Figure 15. 설문 응답자 교회 직분
- Figure 16.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 Figure 17. 영적 성장의 주요 원인
- Figure 18. 영적 훈련을 위한 시간 사용
- Figure 19.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 Figure 20. 신앙 성장의 걸림돌

- Figure 21. 영적 성장의 디딤돌
- Figure 22. 당신의 영적 성장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가
- Figure 23. 교회 봉사와 은사는 서로 관계가 있다
- Figure 24. 주당 교회 봉사 시간
- Figure 25. 교회 현금 + 구제의 지출 비율(총 수입에 대한)
- Figure 26. 영적 성장을 위한 주당 교회 방문 횟수
- Figure 27. 큐티 생활 vs 전도 생활
- Figure 28. 동성결혼에 대한 견해
- Figure 29. 성공과 행복은 물질의 풍족과 비례한다
- Figure 30. 영적 성장을 위한 희망 사항
- Figure 31. 성경공부 경험이 없는 이유
- Figure 32. 선호하는 성경공부 방식
- Figure 33.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의 걸림돌
- Figure 34. 참여 희망 교육 프로그램 VS 현재 참여중인 교육 프로그램
-
- Table 1. 교회 교육과 참여도
- Table 2. 목회자의 상황화와 성도의 영적 성장의 관계
- Table 3. 영적 성장을 위한 큐티 생활
- Table 4.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목회자에게 바라는 사항

감사의 말 (ACKNOWLEDGMENT)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아주 평범한 평신도로, 가장으로, 자영업자로 미국 이민 생활을 하던 필자에게 트리니티에서 목회 신학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에서 ICS(Intercultural Studies) 박사과정을 통해서 많은 배움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같이 공부하며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선교 현장의 상황과 어려움을 밤 새워 이야기 나누고 선교 현장의 사역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준 모든 동문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모든 코스의 클래스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준 그레이스 신학대학원과 많은 교수님들 특별히 ICS에서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탐 스텔터(Thomas Stallter)교수님과 부족한 논문을 지도해주신 박시경(Stephen Park)교수님, 그리고 모든 행정을 도와주시며 학과 과정을 지도해주신 김정은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 과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 웰로십교회 교인들과 몇몇 동역 목사님들과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iii
도표 목록 (LIST OF TABLES).....	iv
감사의 말 (ACKNOWLEDGMENT).....	vi
목차 (TABLE OF CONTENTS).....	vii
 제 1 장 서 론	 1
I. 연구배경 및 중요성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1
A. 연구배경.....	1
B. 미국의 한인교회.....	2
1) 한인교회의 시작.....	2
2) 한인교회의 성장.....	3
3) 한인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결림돌.....	4
C. 시카고 지역의 한인 이민 교회 현황.....	9
D. 연구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Research).....	10
II.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11
III. 연구 가설 (Research Hypothesis).....	11
IV. 연구 질문.....	12
V. 연구범위(Research Area).....	13

VI.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	13
VII. 용어해설(Abbreviations).....	14
 제 2 장 문헌 고찰 (Literature Review)	15
I.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변화와 성장.....	15
A. 구약.....	17
1) 아브라함 (Abraham' s transformation).....	17
2) 다윗 (David' s transformation).....	22
B. 신약 (New Testament).....	27
1) 사도바울 (Paul' s Transformation).....	27
2) 베드로 (Peter' s transformation).....	32
C. 초대 교회.....	37
1) 저스틴.....	38
2) 어거스틴의 회심과 영적 변화.....	40
D. 종교 개혁.....	43
1) 마틴 루터.....	43
2) 칼빈.....	45
II. 영적 성장에 대한 이론(Precedent Literature).....	47

제 3 장 세계관을 통한 영적 변화와 성장 (Transforming Worldview)	56
I. 세계관 (Worldview)	58
A. 세계관의 정의	58
B. 기독교 세계관	61
1) 세계관의 부패	64
2) 세계관의 회복	68
C.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걸림돌	73
1) 개인주의	74
2) 물질주의	78
3) 포스트모더니즘	83
D. 세계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 (Transforming worldview learning theories)	84
II. 상황화 (Transformative Learning using Contextualization)	89
A. 상황화의 정의	92
B. 성경에서의 상황화 모델	94
C. 상황화의 필요성	95
III. 문화	99
A. 문화의 정의	100
B. 홉스테드의 다섯가지의 문화적 차원	102
IV. 상황화와 교차 문화 소통	104

A. 상황화 (Contextualization).....	104
B. 교차문화 소통 이론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the Theories).....	107
제 4 장 연구 조사 결과와 분석 (RESEARCH FINDING AND ANALYSIS)	114
I. 설문응답자 구분(Respondent Property).....	115
II. 조사 분석 (RESEARCH ANALYSIS)	117
A.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 분석.....	118
B. 영적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과 디딤돌.....	122
C. 영적 성장과 현재 신앙 생활 (Transformed life).....	126
III.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적용.....	136
A. 변화를 이끄는 신학적인 접근.....	136
1) 이민교회의 역할.....	139
2) 이민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 성장의 비전.....	144
3)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훈련을 위한 동역자 발굴과 훈련.....	146
4)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유기적인 가정교회.....	147
5) 성도들의 영적 성장 걸림돌의 극복.....	150
6) 보다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를 위한 추가적인 사역들.....	153
B. 변화를 이끄는 문화적인 측면.....	155
1) 문화 충격(Culture Shock).....	157

2) 개인의 개념 체계(Personal Perception).....	158
3) 문화적 가치체계(Value System).....	159
C. 교회 교육의 접근.....	160
1) 일반적인 교회 교육의 접근.....	160
2) 상황화와 교차 문화 소통을 통한 교회 교육의 접근들.....	162
D. 변화를 이끄는 선교학적인 측면.....	183
1)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개념.....	184
2) 지역 한인이민교회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지향.....	185
3) 미국 이민 교회 사역에서의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공조.....	188
E. 변화를 이끄는 목회상담 심리학적 접근.....	193
1)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성경적 세계관.....	195
2)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회 상담의 올바른 상황화.....	197
3) 성도들의 이중적 세계관.....	199
4) 목회 상담에 있어서 심리학과 성경의 필요성.....	201
5) 죄와 정신병리.....	205
6) 이민 교회 안에서 목회상담.....	209
7) 목회 상담의 목표.....	211

제 5 장 결 론	217
I. 결론 요약	217
II. 적용과 제언(Implications & Recommendations)	222
부록 (APPENDIX)	226
I. 설문지	226
II. 고지 동의서 (INFORMED CONSENT FORM)	230
참고도서목록(Reference List)	231
1. 영문서적	231
2. 번역서적	234
3. 한글서적	240
4. 학위논문	242
5. 인터넷, 저널, 기타 자료	242

제 1 장 서 론

I. 연구배경 및 중요성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A. 연구배경

20 여년전인 1995 년 독일의 선교학지(Zeitschrift fuer Mission)에 기고된 한국교회에 관하여 “성장의 끝인가?” 라는 논문에서 루츠 드레쉬(Lutz Drescher)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1990 년대 들어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 한국의 교회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전체적으로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한지 오래이다. 2009 년도 이후 미국에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민교회가 전반적인 활력을 잃었다. 더욱이 요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세속주의 흐름 속에서 교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30 년간 미주한인이민교회에 출석하였고, 최근 8 년간 C&MA 교단의 사역자로서 한인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목격해 왔다. 영적인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 교인들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아왔다.

또한 이민교회 안에 모든 예배와 종교예식들이 이미 형식화 되어있고, 교회의 운영과 관리 또한 제도화 되었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는 이민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시카고만 보더라도 많은 이민교회들이 교회내의 여러

¹ Lutz Drescher, "Ende des Wachstums?-Die Protestantischen Kirchen Suedkoreas in der Krise", in: Zeitschrift fuer Mission (Jahrgang XXI, Heft 2, 1995), pp. 105~116.- 김영한,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요인에 관한 개혁신학적 연구"(제 10 회 숭실대 기독교문화 및 신학 세미나 자료집, 1996, p.5)에서 재인용.

가지 갈등과 분열로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있을 뿐, 진정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있는 이민 사회 안에서 복음의 적절한
상황화와 최적의 교차문화소통 방식을 통해서 이민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그들의
삶 안에 받아들이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하고, 한인 이민 사회 조사,
분석 및 검토를 시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부분에서 이민 교회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향 또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B. 미국의 한인교회

1) 한인교회의 시작

현재 이민 교회가 처한 문화인류학적 위치와 최근의 변화를 깨닫고 사역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이민교회의 역사와 흐름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의 미국이민역사는 조선시대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조선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1882 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시작되어,
1903 년 1 월 13 일에 조선에서 미국으로의 최초의 102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하와이에
도착했다³. 이들은 한국내의 미국계 개신교 교회에 의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가 많았고 사탕수수 농원에서 일했다. 그 이듬해 1904 년 7 월 4 일에
하와이 Molokai 농장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최초의 미국 내의 한국이민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는 1903 년 1 월부터 시작되어

² 위키백과, *한국계 미국인*,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3%84_%EB%AF%B8%EA%B5%AD%EC%9D%B8

³ 윤사무엘, *미주 한인교회 100 년의 발자취와 비전*, 보이스사, 2002, 7p

1905년 7월 사이에 걸쳐 약 72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 노동이민으로 미국에 도착하였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⁴.

1953년부터 1965년에 걸친 제2기 이민은 대부분이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나 양자로 기른 전쟁 고아가 차지했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바뀜에 따라 한국인의 이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1965년 이민법 개정전의 한국계 미국인 수는 대략 2만 5천 명이었지만, 1970년에는 5만 명, 1980년에는 35만 7천 명, 1990년에는 70만 명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약 35만 명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발전과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이민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한인 인구 증가율을 보인 곳은 18.9%가 늘어난 노스다코다주 였으며, 앨라배마(9.7%), 미시시피(9.4%), 알래스카(9.0%) 등으로 최근 한인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현대와 기아등의 자동차 부문 그리고 삼성, LG 등의 IT 부문에서 현지 회사를 건설하면서 지사와 상사 요원으로 파견된 인구 비율이 높았다.⁵ 그러한 한인 이민자의 감소는 미국 이민교회 교인들의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 한인교회의 성장

‘2011-2012년 북미주 전국한인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민교회의 평균 주일예배 출석 인원수는 21~25명의 소형교회로 22.3%를 차지하며, 20명 미만의 인원이 출석하는 교회는 12%, 40~80명의 예배 참석 인원인 응답자는 41.3%.

⁴ Ibid, 7p

⁵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미국내 공식한인 인구 5년 동안 11% 늘어*, 2015.12.04,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17>

3000 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⁶. 이는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출석인원 80 명 이하의 소형교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대형교회의 비율은 이민사회에서도 한국사회와 동일하게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한인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결핍들

미국이라는 타문화 상황에서의 이민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민 교회 역할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회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회, 교차문화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화 충돌과 갈등들이 추가로 존재해 있고, 제한된 한인 사회안에서 교회로서의 공동체 역할과 더불어 일반 사회적 공동체 역할까지 더불어 하고 있는 이민 교회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 사역의 결핍들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취약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적 성장 사역의 약점은 이민 교회의 영세한 규모와 그러한 소규모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성경적인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이민 교회가 50 명 이내의 작은 규모이고 사역자의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한국과 타주에서 새로 이주해 온 정착민들과 이미 정착은 하였지만 이제 은퇴의 나이가 되어버린 많은 교인들의 “대민 업무” 들을 감당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정작 중점을 두어야 할 교인들의 말씀 훈련과 기도와 영성훈련, 가정사역과 치유사역, 은사개발, 영적 지도자 양성 등에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⁶ 한국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27650

두 번째, 이민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 사역의 취약점은 교인들의 구성이 한국 안에서의 교인들의 구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출석 동기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닌 사회적 교제의 장으로 간주되어,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마치 이민자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낯선 땅, 타문화의 이민 생활고 속에서 이민자들은 신앙 이전에 외로움의 도피처요, 생활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이민 교회에는 터줏대감 같은 원로 장로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며 교회의 주인 행세로 교역자들과 자주 부딪치고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필자가 속한 시카고 지역의 많은 교회들도 대부분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 있고, 시카고 지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로들의 파워 게임으로 2014 년에만 4 명의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그저 피고용인의 하나인 것처럼 대우하고 있다. 목회자가 영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몇몇 장로나 교회의 터줏대감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 이민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 사역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취약점은 교차문화 상황에서 1.5 세 2 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이다. Barna Research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이 18 세에서 22 세 사이에 75%가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그 조사결과와는 한인 이민교회와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미국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보면 목회자의 스타일,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 비 소속감이 가장 많았다. Most common was, “church members seemed judgmental or hypocritical”(26 percent). Another 20 percent “didn’t feel connected to the people in my church.” 전체 58%의 이유들 중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문화적인 괴리감

(cultural irrelevance)을 느끼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의 상황 안에서, 이민 1 세들이 한국 문화 이식과 교회 이식은 1.5 세나 2 세들에게 더 큰 문화적 괴리로 다가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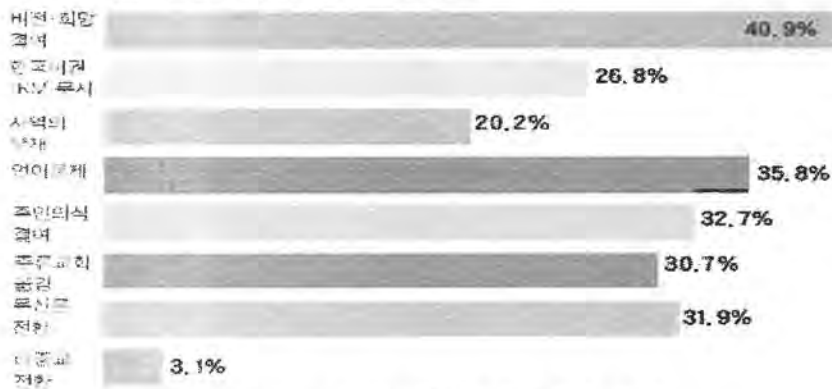
미국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측은 1 년 3 개월간 북미주 지역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한인 2 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이민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⁷.

한인 2세들 언제 이민교회를 떠나나



한인 2세들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중복응답 기준>



<Figure 1> 한인 2 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⁷ Ibid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한인 2세 응답자 중 '고등학교 이후 이민 교회를 떠나다'고 응답한 한인 2세들이 54.2%로 나타났다. 이어 대학 진학 후 교회를 떠나 2세들도 26.1%에 달했다⁸. 이를 합치면 한인 2세들이 무려 10명 중 8명 정도로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세들이 이민 교회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영적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회를 떠난 2세 응답자 중 무려 40.9%가 '희망과 비전의 결여(Lack of Hope/Vision)'라고 응답했다. 이어 언어 문제(35.8%) 주인의식 결여(32.7%) 무신론으로 전환(31.9%) 등의 순이었다⁹. 결론적으로 이를 청년 사역에 있어 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크게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첫 번째 약점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이나 가치관 교육의 결여이다. 많은 교회들이 현실이다. 한 성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 비전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두 번째 약점은 통제가 말해주는듯이 이민 교회가 2세들에게 성경적인 비전과 미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세속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변함없고, 절대적인 복음에 기초한 비전을 갖도록 교육하며 부모된 이민 1세 성도들이 참으로 큰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로 이민 교회에서 교인들의 영적 성장사역의 취약점은 문화적인 문제로써 타문화권, 타민족에 대한 한인교회의 배타적인 자세이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나 목회자들이 마지막 세대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미션얼 처치”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미션얼

처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른 민족들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배타적이기까지 했다. 많은 한인교회들은 해외 선교를 외치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섬기는 교회는 매우 적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다른 동양계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동양계 교회들은 교회 주차장 바로 바깥의 이웃들보다는 해외에서의 사역을 더 중요시 해왔다.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 도시,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는데 무관심해 온 것이다. 먼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을 선교지로 여기지만 자신의 교회가 속한 사회 또한 중요한 선교지라는 점을 무시해 온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민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사역에서의 취약점은 개교회주의와 양적 성장위주의 교회 정책들이다. 개교회 성장주의가 교회간의 숫자적, 양적 경쟁을 심화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교회리더들의 욕망일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있어서 세속적인 소비자주의를 이용한다. 세상의 마케팅과 소비자 심리가 작용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면 우리 교회에 온다”,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교회에 온다.”, “시설을 더 잘해 놓으면 우리교회에 온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있다.” 교회가 세속적인 소비자주의를 상황화하여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지나친 소비자주의로 같은 지역 내에서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하며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하나가 되어 동역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우리 사회 안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양적 성장 일변도의 목회에서 벗어나, 작지만 건강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어진 성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유기적인 교회로 성숙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이민 목회가 필요하다.

C. 시카고 지역의 한인 이민 교회 현황

2018 년 현재 시카고지역의 한인업소목록에 보면 약 200 여개의 교회가 리스팅 되어 있고, 이름이 개재 되어있지 않은 작은 가정교회들을 포함한다면 300 여개 정도의 한인 이민 교회가 있다.¹⁰ 또한 매년 수십 개의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한 다양한 이유로 없어지고 있다.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이민의 시작과 더불어 거의 동시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이민자가 정착과 동시에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과 이민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카고 지역의 경우, 한인 최초의 교회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다. 1922 년 3 월 염광섭, 김일선, 그리고 황창하등을 중심으로 한 모임과 같은 해 9 월 하와이 이민자 출신인 강영소, 김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시카고에 40 년 된 교회는 6 개, 30 여년이 넘는 교회는 20 여개가 있다. 총 250 여 개 교회가 있다.”¹¹

미국에는 두 종류의 한인 교회가 있다. 먼저 한인 1 세(Korean-American First Generation)들의 교회이다. 이들은 교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 예배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2 세(Korean-American Second Generation)들의 교회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윌로크릭처치(Willow Creek Church)와 같은 미국 대형교회의 예배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1 세들을 위한 한국어 예배와

¹⁰ 크리스찬투데이, “미전국 한인교회 4,454 개”, 2018,1,21.

¹¹ 크리스찬 투데이, “새 영적부흥 운동 일어난다”, 2006,6,7.

http://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0468§ion=section12

2 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로 구성되어 있다. 2 세들만의 교회가 있으나, 이는 극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2 세들은 1 세들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들을 위한 English Ministry 의 성장을 살펴보면, 이민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모국어인 한국어만을 사용 했다. 그러나 1 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들만을 위한 영어 예배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린이 영어 예배로 시작하여, 청소년 영어 예배, 청년 영어 예배 그리고 어른 영어 예배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 세들의 성장에 따라 영어 예배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대부분의 2 세들은 1 세 교회에서 독립하기 보다는 하나의 부서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의 50%정도는 현재 필자가 섬기고 있는 웰로쉽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웰로쉽교회는 시카고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 중 하나이다. 현재는 약 350 명 정도의 이민 1 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지만 2 세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등 약 200 명정도의 다양한 연령대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며, 대학생과 함께 드리는 성인 영어 예배는 인도인, 필리핀계 아시아인들, 멕시코인들 포함하여 약 100 명의 성인그룹이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1 세들을 위한 한국어 예배와 2 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인 이민교회이다.

D. 연구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Research)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기독교인들의 영성의 변화와 성장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고백에서 시작된다. 진실된 믿음과 신앙고백이 각자 자신의 삶 안에서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가치가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놓기 시작할 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세계관 변화가 영적 변화 그리고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연관성이나 함수관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교회에 인기가 있는 교재나 프로그램을 가져와 그 교안에 따라 진행함으로 성도들을 지식의 교만으로 인도할 뿐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로 인한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영적 훈련과 도전이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II.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본 연구는 정량 연구(Quantitative Research)방법과 정성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 연구조사에서 필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수집 및 분석, 해석 그리고 평가할 것이다.

III. 연구 가설 (Research Hypothesis)

선교사와 인류학자로 평생을 기독교 선교에 헌신한 폴 히버트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를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세계관의 변화 없이 ‘회심’의 단계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면 결국 그 회심자는

“기독교적 이교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 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과 거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¹²

이민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올바른 상황화를 거쳐 적절한 교차문화소통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 안에 복음의 핵심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된다면,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심”을 불러올 것이며, 그 회심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성도의 핵심가치인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성도들의 세계관 변화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며, 이민 교회들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IV. 연구 질문

연구 가설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지에는 총 29 개항의 질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조사 설문지의 질문들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핵심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주한인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은 영적 변화와 성장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미국한인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는가?
3. 미국한인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은 올바른 상황화와 교차문화 소통의 방법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¹² 폴 히버트,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601

4. 과연 미국한인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이 그들의 세계관 변화와 신념, 행동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5. 미국한인이민교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교육들은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6.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미국한인이민교회에서는 어떠한 교회 교육이 바람직한가?

V. 연구범위(Research Area)

본 연구는 교차 문화 상황에서, 한인이민교회의 교인들이 현재 교회 안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들이 느끼는 교회 교육의 효과와 영적 성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의 영적 변화 성장이 교회의 성장에 어떠한 미치고 있는지,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따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조사 대상은 미국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민 1 세, 1.5 세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과 교인들이다.

VI.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

본 연구는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토대로 분석, 연구한 것이라기보다는 몇몇 지역을 토대로 분석,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한계와 응답자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VII. 용어해설(Abbreviations)

AAD(Asian American Federation)	아시안아메리칸 연맹
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미국지역사회조사
KAIC (Korean American immigrant congregation)	미국 한인 이민 교회
NSAB (New Standard American Bible)	새로운 미국 표준 성경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창 창세기	사 사사기	마 마태복음	느 느헤미야
막 마가복음	민 민수기	눅 누가복음	에 에스라
행 사도행전	딤했 디모데전서	갈 갈라디아서	딤했 디모데후서
출 출애굽기	고전 고린도전서	왕하 열왕기하	롬 로마서

제 2 장 문헌 고찰 (Literature Review)

제 2 장에서는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회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한다. 이 문헌연구에서는 단행본, 연구논문, 백과사전, 통계 자료, 인터넷, 성경, 주석 등의 연구 관련 문헌들을 참고 하여 구약, 신약, 중세 교회, 16 세기, 17 세기의 교회 변화와 성장에 대한 문헌들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연구된 문화인류학, 상황화, 교차문화소통과 교회 교육 및 훈련에 관련 문헌들도 참고한다. 연구 장소는 시카고 인근에서 위치한 트리니티(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도서관을 주로 이용했다.

I.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변화와 성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출생과 더불어 계속적인 성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즉 이외같이 영적 변화는 회심과 더불어 시작된다. 고린도전서 13: 11 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취 성도들의 영적인 이해력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삶을 인간의 성장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이나 생각이나 깨닫는 것에

성숙하게 된다.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장의 모델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에베소서 4: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성장해야 할 목표이고 그 원천이다. 그리스도는 혼란의 원천이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다른 사람으로 “온전한 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숙은 “온전케 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 ‘온전케 하다’는 것은 ‘무장시키다’를 의미한다. 무장하는 것은 결국 훈련(discipline)이다. 이렇게 볼 때 훈련을 통해 성숙하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간다. 히브리서 5:13-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들이 젖을 먹는 조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지각’ 즉 이해력과 판단력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실험하는 훈련이 요구된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영적 장성한 혹은 완전함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성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신적 활동인 동시에 인간의 반응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이외관이 그리스도를 탐아가기 위해 그만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분과 같이 변화 받을 때, 세상을 그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이며 이러한 세계관은 모든 생각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탐아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존

창제기에 나타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 중 한 획을 긋는 사역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네

1) 아브라함 (Abraham's transformation)

A. 구약

성경 파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인물들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영적 변화와 목표를 향하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과정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으로 성도들을 변화 시켜간다.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는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방법이다. 성령은 성도들을 직접 바꾸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가는 이러한 변화는 주의 영광으로 밝아진다고 바울은

물기는 초자연적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은 많은 믿음이 할 수 있지만 영적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다. 어둠에서 빛으로 된다. 우리의 행동도 변한다." 13 라고 말했다. 즉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각이 변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실제적이

파이프(John Piper)는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볼 때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이름을 크게 하겠다.' 등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동행하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격려와, 교육, 그리고 그의 성취 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특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쓰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으나 그의 시작은 갓 태어난 영적 아이로 인간적 큰 원수들도 불가피했음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적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쓰임 받도록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명을 받은 자의 삶도 그만큼 더 많은 연단과 준비가 필요함을 간파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번에 걸쳐 약속(언약)(창 12:1-2; 13:14-16; 15 장; 17 장)을 해 주셨다. 이 네 번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안정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또다시 붙들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증심의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의 막강한 권력 앞에 자신의 아내 사래를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많은 수치를 겪었지만, 그는 이 실패를 몰하며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믿음의 성장을 왕세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아브라함은 애굽을 벗어나자 자신이 맨 처음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던 베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¹⁴ 복희와 신화 편집팀,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263.

영국의 어머니로 아래의 이름을 사라 즉 영국의 어머니 바꾸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오셔서 네 번째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창 17:2).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곧 해결하시기에 이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로 인해 아브라함 가정은 관등이 고조되었고 금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아들을 기다리다가 조금해진 노부부는 하란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 15:6).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르시며 세 번째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한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언약 의식까지 자신의 후사를 이룰 친상속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그들라오멜 연합군과의 승리 후에 아브라함은 두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감사하는 해위로 볼 수 있다.¹⁵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벨기세베크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은 벨기세베크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아브라함이 샬렘왕 벨기세베크에게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치는 모습이다. 제물과 사람들을 다 구출한다. 아브라함의 담대함과 용감성이 돋보인다. 셋째.

키르고 혼란시킨 가신 318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기습하여 격파하고 롯과 빼앗겼던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창 13:9). 뿐만 아니라 롯이 동방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당연히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불이나 목조지로 인하여 다름이 일어났을 때 그의 처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배를 통해 회복했다(창 13:1-4). 둘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가족이 사임이다(창 13:4). 자신을 곤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력을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주셨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나그네(여호와와 사자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창 18:1-8), 소돔의 멸망을 듣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호소하는 중보자의 모습(창 18:32)등에서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므로 그 절정에 이른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히 11:19)고 기록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창세기 22:5 절에 잘 나타나있다¹⁵.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 오리라 하고” 이 구절을 NIV 번역을 보면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 로 되어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 올리라” 고 번역되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제물로 이삭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주셔서 함께 돌아 올 것을 믿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그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¹⁵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국제제자훈련원, 2010, 397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의 이야기(창 12 장-창 22 장) 중심에 네 번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구조적으로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

1차 언약	•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것이라	창 12:1-3
2차 언약	•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라	창 13:14-17
3차 언약 -헷불 언약	• 네 몸에서 낳자가 후사가 되리라 •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 사 대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 15:4-5
4차 언약	•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지라 •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2-8

아브라함이 바로의 권력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곤경에 빠졌을 때,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공허함에 슬퍼하고 있을 때, 후사를 기다리는 긴 기다림에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가정이 갈등과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목자이자
상담자이자 멘토로서 그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계시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과 그 이후의

¹⁶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성서아카데미, 2004, 471-482

를 '이시리라' (참조 17:47). 다윗의 그 용기는 하나님을 의존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함께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분명하게 보여 준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다윗의 용감성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7:47에, 클리웃과의 대결에서 나를 해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17:34-36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다윗은 용감성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 탁월함이 나타난다. 사무엘상 왕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하다.

성도였으며 시인이었던 이스라엘의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는 성경의 이상적인 다윗은 목자였고, 군인이었고, 왕이었고, 방명객이었고, 죄인이었고,

2) 다윗 (David's transformation)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인생의 역경과 시험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사명을 굳건으로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영적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관계는 아브라함을 점점 변함없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뜻을 깨닫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 하심, 하나님의 전능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신다. 17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²¹ 저드슨 콘웰(Cornwall, Judson), “춤추는 예배자 다윗”, 김관석 옮김, 서울: 토기장이, 2005, 15

²⁰ 개역개정, 로마서 12:1-2

¹⁹ 임태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5

¹⁸ 성경인물 연구 편찬 위원회, “성경인물연구 4”, 서울: 도서출판 시온성, 2002, 292

31 장까지 계속된다.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빼지린 고독 속에서 그는 10 여년동안 수 없는 좌절을 견뎌내야 했다. 사무엘상 19 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도피는 사무엘상 왕야에서의 완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황무지의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중요한 시간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하여 동굴과 사마지대를 방황했던 다윗의 생애 중 수많은 기념비적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사치를 보여준다.²¹

완악하였고, 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경건¹⁹과 예배의 완²⁰을 찾았다는 좌절할 때나, 인제 이디서나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완아게신 하나님을 있어서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승승 장구한 때나, 인생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에 전력하였다(대상 23-26; 28; 29 장). 그는 자신의 인생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다윗은 공적 예배를 조직, 확립 및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소개했다. 다윗의 찬양과 시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또한 하나님과의 아니라 다윗은 그의 유언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찬 하는 자’ (삼하 23:1)로 노래를 부르게 했다.(삼하 1:17-27). 그는 또한 수십 편의 시편을 기록했을 뿐만 수금을 연주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장송곡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층으로 (삼하 16:14-23) 악선 때문에 우물쭈에 빠져있는 사울을 위하여 궁중에서 다윗은 음악가와 시인으로서 탁월하였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탁월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영웅이다.¹⁸

다윗은 그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며, 이러한 것이 곧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를 오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배하는 훈련을 해 나갔던 것이다.²²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견고해 졌다는 것을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다. 시편 18:2,

“여호와는 나의 반식이지요 나의 요새지요 나를 건지시는 자지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피할 바위지요 나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40: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집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62: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화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험난한 굴곡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다. 죽음의 벼랑까지 내몰렸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그는 그 환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순종은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윗은 광야를 포위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²³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함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²² 제자원,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사전/022:사무엘상 제 19b-31 장”, 제자원, 2003, 679-707

²³ 개역개정, 삼상 24:4-7; 26:6-12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낮은 신분에서 제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했다. 다윗은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또한 백성들 향해서도 군림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는 겸손한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²⁵에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반영한 것이다.²⁶

다윗은 광야에서 날마다 도망 다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의 사랑과 사명 부대로 부터 시작하여 환난 당한 자들, 빛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며²⁷ 점차적으로 지도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품격을 갖추는 훈련을 받았다. 그의 광야 학교는 참으로 혹독한 훈련의 현장이었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터득한 특별한 훈련장이었던 것이다.²⁸ 그야말로 그의 환난은 인내를 그의 인내는 연단을 그의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모습을 다윗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영적 변화와 성장은 그의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빚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²⁴ 이승장,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 서울: 좋은 씨앗, 2001, 290

²⁵ 개역개정, 삼하 9:6-9

²⁶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종태 옮김,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 출판부, 2000, 205

²⁷ 개역개정, 삼상 22:2

²⁸ 강병도, “카리스종합주식/제 26 권 사무엘상 16-31 장”, 기독지혜사, 2009, 321-360

따라서 다윗의 영성은 단연코 광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날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끊임없이 그가 불렀던 이름은 바로 여호와 곧 하나님이다.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되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절대적 관계를 통해 비롯된다. 성경적 영성 발달은 성도들과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의 영성을 닦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²⁹ 다윗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그의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서는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다.³⁰

이렇게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행하면서 경험을 통하여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 없다. 다윗은 삶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념과 하나님만이 중심된 세계관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영적 성장은 있을 수 없다.³¹ 개인의 삶 가운데 살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할 때에 비로써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²⁹ 김명서, “영성발달과 성경적 상담 모델에 관한 연구”, 2009, 94.

³⁰ Walter Brueggemann, “Interpretation/현대성서주석-사무엘상.하”, 강성열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43

³¹ Ibid, 44

1) 사도바울 (Paul' s Transformation)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바울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눌 수 있다.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강해 주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진술했다.³² 바울의 회심사건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서신들인 고린도전서 9:1; 15:8-9, 갈라디아서 1:11-17,

빌립보서 3:4-12, 고린도후서 3:4-4:6; 5:16-21 에서 암시되어 있다.³³

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1-19 절, 22:3-

16 절, 26:4-18 절에서 세 번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그의 인생은 회심 전과

후를 중심으로 극적으로 나뉘어진다. 회심 전에 교회의 쫓겨난 자³⁴였던 그가 회심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포자인 그리스도의 종 바울 되었다.³⁵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때, 성령은 그의 세계관을 유대 율법

중심의 세계관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형시키는 영적 대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것이다.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의 변화는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 그의 신앙 고백으로 잘 나타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³² 존 스토트(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음배 옮김, 서울:한국기독교학술회, 1992, 189.

³³ 복희와 신학 편집부,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 아카데미, 2010, 207.

³⁴ 개역개정, 고전 15:8, 빌 3:6

³⁵ 개역개정, 행 9:15

³⁹ 개역개정, 고전 1:1

³⁸ 개역개정, 빌 3:14

³⁷ 개역개정, 롬 1:15

³⁶ 개역개정, 롬 2:20

이방선교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연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도상에서 자기에게 이방선교를 맡기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이후 이방 선교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이라는 확신에 그리스도께서 다메섹로 찾아가시라 하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했다. 바울은 다메섹 제사장에게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떼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네게 나타낸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임이나 너의 말로 지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임과 장차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³⁹ 것을 주장하였다. 사도행전 26:16-18 에서,

위로부터의 부르심"³⁸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를려주신" 하나님에 부를 받은 사절"³⁷,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치관이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을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대한 소명의 깨달음과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라는 사명 의식으로 진념과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극적인 세계관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³⁶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울의 회심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변화로 나타났고, 이어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신념 체계'의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신념 체계의 변화는 선교라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폴 히버트의 주장 대로 바울의 "회심"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세계관 변화와 소명과 사명의 인식의, '신념' 변화와 그에 따른 선교 '행위'의 변화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룬 제자였던 아나니아에 의해 증명되기도 하였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증명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에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공동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했고, 그곳에 도착한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하여 일 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드디어 이방을 향하여 바울의 첫 환침음이 내디뉜다. 기독교 전도 사상 획기적인 이방인 전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때로 이런 마음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체찍칠 당하고 례에 맞거나 성을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들었을 때, 낙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이끌려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40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성경적 세계관 변화로 "기독교의 이튼적 기층 정령은

물론 그레코로만 사회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⁴¹이 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명을 깨달으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자신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모든 이방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⁴²임을 분명하게 말했다.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 장, 22 장, 26 장에서 세 번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은 바울 개인 뿐 아니라 “종교사에서 최대의 전향이라고” 디베리우스(Diebelius)는 말한다.⁴³ 이 경험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이 새로이 굳혀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에서 그를 하나님의 높임 받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으로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다. 빌립보서 3 장 7-9 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모든 노력과 꼼꼼한 율법 준수, 유대교 신앙을 위한 열심은

⁴¹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새물결플러스, 2015, 127

⁴² 개역개정, 롬 1:1,5

⁴³ 로버트 후크(R. F. Hock), “바울의 선교의 사회적 상황”, 정경연 역,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9, 19-25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갖다 주지 못했다. 사도행전 22 장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 자서전적이고 변증적인 주장을 펼친다.⁴⁴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바울 안에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확정 지었다.⁴⁵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하고 체계화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등등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 대로 이방 선교의 사명의 “신념”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선교 활동 “행위”를 하였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까지 3 차례 걸쳐 20 년간의 전도여행기간, 지중해 동부 주요 중심 도시들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울은 빌립보서 3 장 12-14 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꾀대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3:12).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런 지식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꺼번에 다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지식은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바울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⁴⁴ F.F. Bruce, “사도행전 (하)”, 김재영, 장동민 공역, 서울:아가페출판사, 1986, 235

⁴⁵ 김연태, “바울해석”,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28-29

대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현재로서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의 지식이 구원에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다 알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알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것이다.⁴⁶

바울이 디모데후서 4:6-7 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회고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고 말할 때 ‘드로모스’의 문자적 의미는 달리기 경기의 코스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 곧 삶의 모든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성취하는 과정’을 말한다.⁴⁷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 고 말한다. 여기서 ‘믿음’은 주관적 의미로 바울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지켰다는 것과, 객관적 의미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확고한 사명을 받았음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 베드로 (Peter' s transformation)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 중 베드로가 단연코 부각되고 있다. 그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그리스도의 세 명의 핵심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⁴⁶ 두란노 HOW 주석, “빌립보서 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 아카데미, 2007, 167.

⁴⁷ 두란노 HOW 주석,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 아카데미, 2008, 126. 성경의 행 13:25; 20:24; 갈 2:2; 빌 2:16; 3:14; 히 12:1 을 인용하고 있다.

아들이시니이다”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⁴⁸ 제자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 칭찬하셨으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⁴⁹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이름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전이었다.”⁵⁰ 후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들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상기시켰다.⁵¹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즉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것과 동일한 믿음에 의해 이 교회에 결합된다.⁵²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생업을 포기하는 결단력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삼 년 동안 그의 신앙은 주목 받을 만한 영적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은 언제나 그의 연약한 믿음을 역력히 보여 주곤 하였다. 폴 허버트의 주장대로 베드로의 “회심”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를 동반해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

바다위로 걸어 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모든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사이 배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향해 물 위를 걷다 빠지는 모습⁵³, 변화산에 초막을

⁴⁸ 개역개정, 마태복음 16:16

⁴⁹ Ibid, 마태복음 16:18

⁵⁰ 앤디 스탠리, “비저니어링”, 정연석 옮김, 도서출판 디모데, 2013, 144

⁵¹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 전광규, 김진선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504. 벤전 2:4-8; 참조. 고전 3:11 인용

⁵² 개역개정, 에베소서 2:20-21; 요한계시록 21:14

⁵³ Ibid, 마태복음 14:22-33

54 Ibid, 마가복음 9:5-6
 55 Ibid, 요한복음 13:8-9
 56 Ibid, 요한복음 18:10
 57 Ibid, 마태복음 26:69-75
 58 톨히버트,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증평을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601
 59 개역개정, 마태복음 20:18

보여주는 시점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사명을 받은 후부터 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부의 문명으로 돌아갔던 그가 극적인 영적 성장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는 어부의 문명으로 돌아왔다.
 그는 요한복음 21: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며 저희가
 믿지 못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⁵⁹ 그 사실을
 거짓 '회심'이었음을 보여 준다.⁵⁸
 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차원인 세계관, 신념, 행동에 변화가 없는 위선적이고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톨히버트의 말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도망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말하자 맹세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그 곁에
 여종에게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또 다른 여종이 그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는 가야바의 궁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
 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곳은 가야바의 궁전의 바깥 들에서
 연약한 신앙과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말라고 하던 모습⁵⁹, 예수님을 체포하려 온 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모습⁵⁸들은 그의
 짓자고 제안한 모습⁵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자신의 발을 씻기지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⁶⁰된 이후부터 베드로는 영적 변화를 보이는 성장기로 접어든다. 즉 그의 신앙의 성장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주인 되었던 세상적 세계관⁶¹이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를 만나고 사명을 받는 장면을 요한복음 21:15-17 절에서 자세히 기록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의 회심 이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과 같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한 사람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성화된 현재형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담대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베드로의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그 속에서 ‘산 돌’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삶의 마지막에 승리해서 완전히 거룩해진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경우 ‘산 돌’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현재 사실이라고 단언한다.⁶²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과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바로 인식하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그는 인간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⁶⁰ Ibid, 요한복음 21:15-17

⁶¹ Ibid, 마가복음 10:32 - 45 예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세속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⁶²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부흥과 개혁, 2016, 266

용기와 대담함과 열정과 나약함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세계관이 변하고,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는 믿음과 ‘신념’의 체계가 바로 정립된 진정한 회심 후, 그는 이러한 선천적 약점들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되었다. 여전히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던 열정의 ‘로열리스트(Loyalist)’ 베드로로 거듭났던 것이다.⁶³

베드로의 디베라 회심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처음 열두 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⁶⁴들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역동적인 사역을 수행했던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⁶⁵ 앓은 뱁이를 일으켜 세웠고⁶⁶,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으며(행 4 장), 죽었던 여제자 도루가를 살렸고⁶⁷,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⁶⁸,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하였다⁶⁹. 이러한 베드로의 활약은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었다.

베드로전서 5:2-3 절에 교회 장로들에게 인내와 참음, 용기를 갖고 믿음을 부인하라고 압박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 무리의 목자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 당시 장로는 교회에 속한

⁶³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2000, 153

⁶⁴ 개역개정, 행 2:14-41

⁶⁵ Ibid, 갈 2:7-8

⁶⁶ Ibid, 행 3:1-10

⁶⁷ Ibid, 행 9:40

⁶⁸ Ibid, 행 10:47-48

⁶⁹ Ibid, 행 12:7-11

임명된 지도자들⁷⁰로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돕고, 꾀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만들어 감으로써,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자들이었다. 이는 베드로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는 명령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반영한다. "내 양을 치라"⁷¹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여기와 요한복음 구절에서 사용된다. 즉 "양을 치다" "양을 기르다", "보호하다", "목양하다"를 뜻하는 포이마이노(poimaino)가 사용된다.⁷²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뜨겁게 진력하라고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신념, 행위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회심'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셨던 것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세계관이 변하는 진정한 회심을 맛보았으며, 그 영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교회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속한 영적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 나갔으며 예루살렘 바깥으로 로마 전 지역까지 복음화를 이어갔다.

C. 초대 교회

알렌 그라이더(Alan Kreider)의 "회심의 변질"에서 알렌은 초대교회의 회심에 3B, 즉 믿음(Belief), 행동(Behavior), 공동체소속(Belonging)의 세가지 변화가 수반됨을 확인했다. 알렌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회심과 같이

⁷⁰ Ibid, 행 14:23; 20:17; 딤후전 5:17, 19

⁷¹ Ibid, 요한복음 21:16

⁷²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베드로전서", 전광규, 김진선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203.

진정한 영적 변화와 성장은 그 과정에서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Value System)와 세계관에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3B (믿음-행동-공동체 소속)에 걸친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고 개종시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이러한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들이 초대 교회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도들이 수시로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곧바로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교회들은 우우 죽순처럼 퍼져 나갔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의 회심기에서 기록하였듯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이 추상적인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명의 연합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신적인 인격”⁷³이라고 한다면, 회심에 따르는 영적 변화와 성장도 또한 그 새 생명의 연합에서 나오는 ‘세계관’, ‘신념’, ‘행동’의 변화가 동반될 수 밖에 없다.

1) 저스틴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까지의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몇 인물들의 회심과 영적 변화들을 볼 때 저스틴을 빠트릴 수 없다. 주후 130년 경, 저스틴은 철학 공부를 위해 순회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에 그는 스토아학과, 아리스토텔레스학과, 피타고라스학과, 플라톤 학파등에 매료되었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다.⁷⁴ 그의 변증서를 통해서 그의 회심의

⁷³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 양혜원 옮김, 홍성사, 2001, 281

⁷⁴ 알렌 크라이더(Allen Kreider), “회심의 변질”, 도서출판 대장간, 2012, 32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회심 경험 후에 축한 자유인, 로마 출신뿐만 아니라 캄바도기아인과 포리기아인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로 민음의 공동체를 영위했던 사람들과 함께 관수형에 취해졌다. 남자와 여자, 노예와 3B(민음, 행동, 공동, 공동체 소속)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신앙 생활을 하다가 165년 그 영적 성장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함께한 민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그는 세계관, 신념, 행동을 아우르는 진정한 회심을 거쳐 영적 변화와 꾸준한 있습니다.”⁷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함께 모여 참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패했으며, 관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를 부족민과 상관도 하지 않았던 또한 외국인 혐오증으로 만미앙은 폭력 사용에 대해서는 “서트를 증오하고 공동 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공평에 처한 모든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만족을 누렸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재산을 영역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탐욕적 물질주의에 대해, 한 때 헌신합니다. ‘저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마지막 두 마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존하지는 unbegotten 하나님께만 절제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주를 행위였다. “우리는 켄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한 때 음란에 빠졌지만 우리는 이제 그는 반복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영역은 기록하고 있다.

썬들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알렌은 “회심의 변질”에서 저스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저스틴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영적 세가지 영역에서 마케의 권세에 저항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실 그것들은 ‘신념’, ‘행동’, ‘공동’의 변화를 굳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돈, 켄스 그리고 권력의 저스틴은 그의 저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세계관’, 있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스틴 자신 안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공동체가 얼마나 포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⁷⁶ 저스틴의 영적 변화와 성장 가운데에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가 삶에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격려하였던 영적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었지만 성령으로 하나된 사랑의 신앙 공동체야말로 그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핵심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어거스틴의 회심과 영적 변화

354년 로마의 관원이며 지주인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북아프리카 누미비아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9년동안 마니교에 심취하며⁷⁷ 인생의 행복과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어거스틴(st. Aurelius Augustinus, 354-430)의 회심은 로마에서 일어났다. 어거스틴은 명실교가로 이름을 떨치던 밀란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그 자신 수사학자로서 자주 찾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만남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삶을 두르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386년 늦여름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한가히 명상에 잠겨 있었다. 울타리 밖에서는 아이들의 재잘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책을 들고, 읽어라!" 그는 탁자에 놓았던 성경책을 펴들었다. 펼쳐진 성경에서 로마서 13장 13-14 절의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⁷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⁷⁶ Ibid, 37

⁷⁷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심취한 것은 결코 방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⁷⁸ 위키백과/아우구스티누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A%B0%EA%B5%AC%EC%8A%A4%ED%8B%B0%EB%88%84%EC%8A%A4>

보여지는데, 그 예로 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한보다 독신을 권하였고, 수도원
 참위인체적인 영성이었다.⁷⁹ 동시에 그는 이원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바울의 신화 노선을 따르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적이며, 또한 교회론적이며,
 소개하게 되었다. 그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영적 중심 사상은 사도
 그는 회심한 후 그리스 철학과 이교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술들과 가르침으로 그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참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주교의 자리까지 올라 신앙의 공동체에 많은
 모니카의 눈에서는 하임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 안되어서 이거스틴은 그의
 의식,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다. 세례를 받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결이신 어머니
 밀란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엄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은 것이다. 387년 봄 부활절 전일 밤, 이거스틴은
 전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소리가 들을 채웠다. 이제 그는 예수
 은거했다. 그곳에 어머니와 친구들이 찾아온 어느 날 함께 인간의 진정한 행복,
 순간을 지나자 모든 공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카시키아콰이라는 시골마을로
 세계관과 신념과 행동을 일시에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거스틴은 회심의
 있어야 했다. 결국 그에게 지·정·의에 전인격적인 회심이 일어났고, 이는 그의
 회개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회심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그는 이제 새로 태어나야만 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 솟구쳤다
 물려왔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무너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의 가슴으로

운동에도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다.⁸⁰ 그의 영적 성장의 핵심 동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고, 동시에 그의 영성을 폭 넓고 깊게 만든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함께하려는 그의 영적 훈련들과 수도원 생활을 꼽을 수 있다.

어거스틴의 저서들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나 신학을 들여다 보면 사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동행한다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여정인 동시에 청진적인 여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회심과 더불어 영적 변화와 성장 생활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인간 영혼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다.⁸¹

어거스틴이 남긴 여러 가지의 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지향하는 분향이다. 인간은 그분에게로 가며 그 분에 의해서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다.”⁸²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모든 성도가 바라고 향하여야 하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이고, 모든 성도는 결국 그분에 의해 그분에게로 감을 분명하게 믿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영성과 신학은 온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관, 신념, 행동의 변화가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⁸⁰ 데이빗 테일러(David Taylor),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신앙”, 김원주 역, 생명의말씀사, 1995, 93-103

⁸¹ 홍치모, “영성 운동의 역사적 고찰”, 『목사 계속 교육 강의집: 성령과 영성』 제 7 권, 유니온학술자료원, 1990, 156-157

⁸² Aurelius Augustine, Sermon. 141, 4, 4; cf. Confessionum. 7, 18, 24; Doctrina Christiana. 1, 34, 38; Civitas Dei 9, 15, Gordon S. Wakefield, op. cit., 365 에서 재인용.

D. 종교 개혁

1)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의 불을 지핀 마틴 루터는 중세 시대에 만연해 있던 스콜라주의적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적 황홀 경험과 일반적인 도덕주의의 개념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는 자신의 영적 변화와 회심 이후, “자기 수련과 훈련에 의해서 신앙적인 삶이 습관화 되며, 이러한 습관이 나아가 성화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룩한 단계에 이른다는 느낌을 피해야 한다”⁸³고 가르쳤다. 루터의 중심 신학 사상은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감추어진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계시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가 나타났다. 회심과 영적 변화와 성장의 전환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십자가의 신비로운 비밀이 드러나는 깨달음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루터의 신학은 모든 인간의 공로, 모든 형태의 행위 신앙은 배제된다.⁸⁴ 오직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이다. 그는 지극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른바 “이신 정의(justification by faith)”의 신학이다.

⁸³ 질 레이트(Jill Raitt) 외, “기독교 영성 (II)”, 이후정 역, 은성출판사, 1999, 395.

⁸⁴ 이영두, “기독교 영성”, 임마누엘, 2002, 46

그는 과거에 개인 수양과 수도원 생활 등을 통해서 그 당시 신앙의 흐름이었던 신비주의, 도덕주의, 합리주의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육체의 한계까지 몰아쳤지만 결국 인간적인 한계 상황을 맞게 되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루터가 깨달은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요약하면, 첫째로 성령은 말씀 없이는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성령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이다.⁸⁵ 다시 말해 말씀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언제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경은 그저 종이 위에 활자에 불과하며 그런 것은 인간에게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⁸⁶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루터의 신학과 영적 성장에 관한 가르침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만 그의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루터는 이신칭의만 강조하였는가? 이형기는 그의 책 “종교개혁 신학 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루터 역시 칭의 받은 기독교인이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전진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루터는 로마서 12:2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전진하라’고 말한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진이 아니라 차선에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다. 마치 환자가 병으로부터 건강으로 나아가듯이’ 한 기독교인은 죄악과 사탄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 전투와 더불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그의 무거운 짐을 벗고 조용하게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⁸⁷

⁸⁵ 파울 알트하우스(Paul Althaus), “루터의 신학”, 이형기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53

⁸⁶ 도널드 디머레이(Donald E. Demaray), “루터에게 듣는다”, 윤종석 옮김, 두란노서원, 1992, 63

⁸⁷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출판국, 1995, p. 47

루터의 신학은 성경과 성령,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역동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 있어서 도덕은 신앙의 결과일 뿐 그 원인은 될 수 없었다. 루터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 믿음은 성경 메시지의 전 인격적 수용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한다.⁸⁸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관, 신념, 행동이 바뀌는 진정한 회심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루터의 이러한 깨달음과 영적 회복과 변화들은 중세 교회의 부패한 교권과 형식적 제도에 치중했던 교회들을 성경적인 본질로 회복하는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계속되는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복음과 성령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2) 칼빈

잔 칼빈의 영적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의 영적 영향에 대하여 부스마(William J. Bouwsma)는 “칼빈을 조직 신학자 또는 교리 신학자로만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칼빈 개인에 대한 영성과 영적 변화와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된 것들이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⁸⁹

칼빈에게 영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어거스틴과 루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칼빈은 루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사상의 대부분이 루터와

⁸⁸ 이영두, “기독교 영성”, 임마누엘, 2002, 147

⁸⁹ 질 레이트(Jill Raitt) 외, “기독교 영성 (III)”, 이후정 역, 은성출판사, 1999, 460

공유한다.”⁹⁰라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론을 취급하면서 중생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앙생활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볼 때 그는 루터의 “이신칭의”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관심이 “성화(sanctification)”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⁹¹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화는 성령에 의한 계속적인 변화 작업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이끄는 과정이다. 이러한 칭의와 거룩함을 가져오는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연적인 요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루터의 “이신칭의”와 표면적인 차이는 있지만, 진정한 회심과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칼빈에게 있어서 영적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영적인 열매였다.⁹²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초월성 및 그분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의존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비로서 시작된다는 것이다.⁹³ 칼빈이 이해하는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이고 둘째는 인간의 타락 이후의 처참한 존재이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면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존재의 상태를 깨달아야 하며 그 둘은 동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있는가를 바로 바로 깨달을 때에 비로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⁹⁰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 “칼빈, 루터, 어거스틴”, 칼빈주의연구원 역, 기독교문화협회, 1986, 40

⁹¹ 한성기, “오늘의 신학과 내일의 신학”, 서울: 잠언, 1997, 216

⁹²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vi. 4.”, Wm. B. Eerdmans Pub. Co., 1995, 378

⁹³ 질 레이트(Jill Raitt) 외, “기독교 영성 (II)”, 이후정 역, 은성출판사, 1999, 467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⁹⁴ 그런데 이 같은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성령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의 주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회심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인식하고 그를 닮아가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회심과 더불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화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⁹⁵ 그는 영적인 신앙고백과 믿음의 실천, 이신칭의와 성도의 성화하는 삶 동시에 강조하였다.

II. 영적 성장에 대한 이론(Precedent Literature)

영적 성장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로렌스 리처드(Lawrence O. Richards)는 기독교 영성을 다루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전제조건을 말한다.⁹⁶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존재에게 전달된 성경과 계시적 진리를 받아들이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 존재는 본질상 죄 아래 갇혀 있으며 영적 실재적인 면에서 죽었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고 성경적 증언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육신으로 와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실재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⁹⁴ Ibid, 469

⁹⁵ Ibid, 470

⁹⁶ Lawrence O. Richards, "A Practical Theology of Spirituality", Grand Rapids : Academic Books, 1987, p. 18

한다는 것이다. 넷째,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⁹⁷고 말한 것을 믿으며 이와 같은 그분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진정한 영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의 영적 순례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성령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빌 권햄(Bill Gihm)은 그리스도인 된 후 영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사는 진리, 믿음, 행함, 감정의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⁹⁸

- 1) 1 단계: 진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 2) 2 단계: 믿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 3) 3 단계: 행함-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믿고 순종의 삶을 산다. 때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 4) 4 단계: 감정-생명의 삶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

노만 샤휈(Norman Sehawchuck)은 영적 성장을 회심, 묵사, 고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소개하고 있다.⁹⁹

⁹⁷ 개역개정, 요 14:6

⁹⁸ 빌 권햄(Bill Gihm), “자면적 영성”, 유산출판권.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188-225

- 1) 회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신뢰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악 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회개란 지난날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결단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영성
발달의 전제 조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 2) 헌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응답하게 되면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상황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이 찾아오고 저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성숙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나가는
것이다. 상단을 통해 영성 발달을 이루어 나갈 때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
- 3) 고난: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인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믿음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의 시련은 끊이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 굴복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⁹⁹노만 사우척(Norman Sehawchuck). 루우벤 잡. 로버트 도허티, "영성훈련 지침서", 오성춘 옮김,
기독교문사, 1992, 28-39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 우리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발달을 이루게 된다.

- 4) 그리스도와의 연합: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흠이 없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다¹⁰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새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영성의 경지일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과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영적 회심과 각성에 선두에 서있었던 영적 선각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에서 세계관, 신념, 행동들이 변하는 몇 가지 원리들이 나타난다. 첫째는 자기 부인의 원리, 둘째는 자기 십자가의 원리 그리고 셋째는 예수를 좇는 삶의 원리이다. 자기 부인의 원리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의 발견과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기 부인이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설령 자기 부인을 하더라도 진실한 자기 부인이 될 수 없고 철저한 회개로부터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것으로써 완성된다. 바로 자기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 주인되는 예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¹⁰⁰ 개역개정, 에베소서 5:32

삶의 주인이 바뀌는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는 영성의 추구하고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혼의 계발에 있어 자기 발견이란 자아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장소를 키우려 하다 보면, 거룩한 길에 어긋나는 태도와 욕심들을 불가피하게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고백하고 내버려야 한다. 이중 그 어느 것도 즐거운 경험은 아니다.”¹⁰¹

이같이 십자가의 원리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하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굴복이 있어야 한다. 성도의 핵심 가치관인 세계관과 표출되는 ‘행동’을 연결하는 ‘신념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에수를 쫓는 삶의 원리는 예수만을 추구하며 따르는 삶의 결단들과 순종의 ‘행동’이다. 성도들은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따르는 자임을 선명히 보여 주게 된다.

결론

영적 성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5:5 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들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거하다’의 헬라어는 명령형이다. 그것은 계속적인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다.¹⁰² 다시 말해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¹⁰¹ 고든 맥도날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윤종석 옮김, IVP, 2012, 116

¹⁰²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요한복음, 전광규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498.

영적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¹⁰³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삶으로 실천하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개발하여야 한다. 삶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¹⁰⁴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숙과 성화가 삶 가운데 진행된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교회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설교, 성경공부, 소그룹, 봉사등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알렌 크라이더(Alan Kreider)는 “교회에서 회심이 실종되었고, 대신 구원의 확신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했던 회심이 실천적 윤리가 빠진 예식이나 체험 위주의 회심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고 말했다.¹⁰⁵ 성도는 두

¹⁰³ 개역개정, 엡 4:13, 롬 8:29

¹⁰⁴ 닐 앤더슨(Neil Anderson),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유화자 옮김, 서울:조이선교회, 1990, 76.

¹⁰⁵ 알렌 크라이더(Alan Kreider), “회심의 변질”, 박삼중·신광은·이성하·전남식 옮김, 서울:도서출판 대장간, 2017, 17.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받아 관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 받은 자들임을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요
 참미암아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선택 받은
 하나님의 '조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특권을 나열한다. 하나님의 '백하신 민족', '거룩한 나라', '왕 관은 제사장',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관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조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인간의 정체성은 변화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 확립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를 인생가운데 경험하며 그의 부르심 즉 소명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가 수없이 많다. 순간순간 그들의 선택이나 무심코 그들의 생각을 말할 때
 펠자 주위에 있는 교회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리더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놀랄
 뜻을 분별하여 그분께 받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성장이 더딘 이유는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영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성장은 그리스도와
 경우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여 모든 행위를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이다.
 가지 극단주의를 조심하여야 한다. 즉 행위구원만을 강조하여 율법주의에 빠지는

화립하도록 가르치며 그 정체성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각 개인이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한다.”¹⁰⁶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화려하고 안락한 교회 생활에 만족하여 영적인
 전라되어 버린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성화를
 성장은 필수적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일상적 삶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영적
 이와 같이 성도들은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장이 돌림게 발전했음을 고백했다.

사명을 확신하게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사명들을 이루어 간 때 그들의 영적인
 롭마를 정체성을 깨닫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사도바울, 베드로, 저스틴, 이거스틴, 마틴 루터와 켈빈 등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성도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브라함, 다윗,
 대하여 선포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아들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 역사에
 항상 준비하되 은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살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그 증거로 나타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것이다.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세계관을 통한 영적 변화와 성장 (Transforming Worldview)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2017 년도 미국에 제 45 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다. 마치 그의 이름과 같이 카드게임에서 에상을 뒤엎고 그가 으뜸 패를 켜 것이다. 트럼프의 뜻이 플레이카드들 중에서 으뜸 패를 의미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각각 다른 시각으로 트럼프와 그의 선거전략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결정하였다.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듯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 트럼프의 선거전략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해석하고 평가하여 결정을 했다.

복음주의 목사들은 보수적인 기독교를 지향하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에 그에게 표를 주었다. 직업이 없거나 빈곤층 국민들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에 표를 주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클린턴을 투표하는 것 보다 차라리 트럼프에게 한 표를 던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을 비하하고 소수민족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를 경멸하며 클린턴에게 한 표를 주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테러의 원인을 제공하는 무슬림인들과 그리고 미국에 마약과 그로 인한 마약조직들의 범죄가 위협하는 멕시코인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에 어떤 이들은 찬성을 또 어떤 이들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같은 시대, 같은 사회,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평가 한다.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이해하고자 전 세계 여러 민족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끝에 그들의 문화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들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과 인생을 사는 모습에 세계관이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다원주의 세계관의 강력한 영향아래 놓여있다. 레슬리 뉴비긴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그럴 뿐 아니라, 그런 다원성을 모두들 승인하고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다원주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⁷라고 설명한다. 미국 한인 이민 교회 또한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이 무너지고, 진리의 혼돈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파편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로 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 공통적으로 공유하던 가치 체계나 세계관이 무너져버리고 거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교육과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복음 12:56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하늘을 살펴보고 날씨가 맑을지, 폭풍이 불어올지 예견함으로써 날씨의 징조를 성공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에도 이 시대의 징조는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꾸짖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자연현상을 통해 일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되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교회 교육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며 본질적인 영적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매 순간

¹⁰⁷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옮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15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가치 체계를 제공해 준다.

제 3 장에서는 세계관의 변화가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고찰 할 것이다. 또한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찰 할 것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이민교회는 특수한 교차문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상황화와 적절한 교차문화 소통으로 전달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세계관의 시작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세계관이 미국에 이민와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에게 적합한 상황화는 무엇이며 그들의 세계관 변화를 이끄는 교회 교육을 위한 교차 문화 소통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 세계관 (Worldview)

A. 세계관의 정의

세계관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독일 역사가들은 문화를 연구하는 가운데 한 민족의 깊고 영속적인 문화적 패턴을 가리키는 말로 세계관(Weltanschauung)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독일어 단어 “Weltanschauung”를 처음 소개했다.¹⁰⁸ 세계관을 뜻하는 worldview는 독일어 Weltanschauung의 번역어이다.

¹⁰⁸ 폴히버트(Paul Hiebert),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옮김, 서울:복있는 사람, 2010, 29.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대표적 이론가 중 한 명인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세계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 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다.¹⁰⁹ 그는 사람들이 내려야 할 모든 의사 결정에 세계관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즉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할 때 이혼해도 되는가? 세금 징수가 불공정할 때 세금 징수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도 되는가? 범죄는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자녀를 설득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등등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세계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¹¹⁰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는 “사람들이 실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칭할 수 있다” 라고 정의했다.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세계관을 “어떤 문화의 신앙과 행동 이면에 있는 실재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이라고 묘사한다.¹¹¹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세계관에 대하여 “문화는 피상적인 행동의 차원과 깊은 세계관의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의 핵심과 모든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는 사람들이 해석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과 가치, 그리고 신뢰의 구조가 있다. 이들 가정과 가치 그리고 충성심을 세계관(worldview)이라고 부른다” 고 정의했다.”¹¹²

¹⁰⁹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마이클 고힌,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7, 25.

¹¹⁰ Ibid, 29.

¹¹¹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Grand Rapids: Baker), 1985, 45

¹¹²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기독교 문화 인류학”, 안영권·이대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49.

113 탐 스토터(Tom Stalter), "문화인류학 강의", 그레이트스 신대원
114 Ibid.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각각 다른 관념의 세계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것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이 세계관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관은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크레포트는 세계관의 기층에 대하여 "특정 사회 그룹이 공유하는 인식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문화의 핵심으로서 세계관은, 한편으로는 실재를



이 두 가지 차원은 가시적인 차원으로서는 인간의 행동과 비가시적인 행동을 유발시킨 비가시적인 차원으로서는 인간의 원인은 90 퍼센트이라고 말했다.¹¹³ 문화 인류학 강의에서 가시적인 차원으로서는 인간의 행동이 10 퍼센트라면, 그 원인으로서는 비가시적인 차원이다. 여기에 대하여 탐 스토터(Tom Stalter)는 차원으로서는 그 행동을 유발시킨 인간의 내면이다. 결과로서의 가시적인 차원과

인식하는 기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실재에 대한 인식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고 말했다.¹¹⁵

폴 히버트는 세계관이란 “한 집단이 사물의 본질과 관련하여 형성하는 근본적인 인지적·정서적·평가적 전제들로 자기 삶을 정돈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했다.¹¹⁶ 히버트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킨 내면에는 그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지적·정서적·평가적 차원들이 동시에 작동하여 결정하며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말했다. 이 중 평가적 차원은 인지적 차원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하게 하고, 정서적 차원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정하게 하며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적 차원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인지적·정서적·평가적 중심 부분에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곧 한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세계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¹¹⁷

이와 같이 세계관은 어느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느끼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Christian world View)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특성이며 삶의 시각이며 이해하는 관점을 포함한다. 히버트는 “성경적 세계관을 하나님이 창조

¹¹⁵찰스 크레프트(Charles Kraft), “기독교 문화 인류학”, 안영권·이대현,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25.

¹¹⁶폴히버트(Paul Hiebert),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이 변화”, 흥병룡 옮김, 서울:복있는 사람, 2010, 31.

¹¹⁷ Ibid, 51-52.

세계를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이해로” 정의 했다.¹¹⁸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때에, 각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야 한다. 아브라함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다르고,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각 세대에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인 것과 같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 근거한 세계관은 하나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유신론을 주장하며 초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신을 믿는다. 기독교의 유신론은 특별 계시(성경)와 일반 계시(창조 질서)에 기초하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한 만물에서 찾는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하여 히버트는 이렇게 정의 하였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성경과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에 대한 고도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적 세계관을 주요 청사진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정연한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 타락,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의 실체 등을 포함한다.”¹¹⁹

하나님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부패성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H. Wright)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¹¹⁸ Ibid, 501.

¹¹⁹ 폴 G. 히버트·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2.

된다"는 것이다.¹²⁰ 즉 부패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창조되어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증생을 경험하게 되면 우주의 궁극적 질서에 대하여, 인간과 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역사와 세상과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 변화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 탐스토티는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면서 명목상 성도의 상태가 습관화 된다"고 말했다.¹²¹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메세지를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게 된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다. 사도바울의 사역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나뉠 수 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쫓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쫓박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다. 누가는 사도행전 8:1절에, "사울이 그(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9:1-2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한 위협과 살기가 등용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담녀를 막론하고 쫓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다메섹을 찾아가 응유하여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은 바뀌었다. 바울은 자신의 자선적인 칼라디아에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잘

¹²⁰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 "하나님의 선교", 정음배·한화를 옮김, 서문:IVP, 2010, 530.

¹²¹ 탐스토티(Tom Stalter), "문화 인류학 강의", 그레이스 신대원.

합리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에 종속되지 않는다.

서로 분열되는 현상을 조래했으며, 공적인 진리 안에는 세속성, 인본주의, 유물론, 나뉘었다. 이와 같이 삶의 양분화된 인간의 의식도 사회와 가정 그리고 일과 놀이가 가치관으로 나뉘었다. 공적인 영역으로서 과학과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종교로 객관적이고 공적인 진리와 사적인 영역으로서 신앙에 근거한 사적인 진리, 정서, 유틸리티와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가정이 나뉘었고, 공적인 영역으로서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공적 지식과 사적 지식으로 나누게 되었다. 공적인 영역으로서 “종교적” 부분으로 분리하여 자신의 삶의 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읽어버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을 “세속적” 부분과 허버트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은 세계를 한 차원으로 보는 관점을

1) 세계관의 부패

행동하게 된다.

것이 이후에는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경험하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결정하던 이와 같이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증생을 증심의 사고와 그리스도 중심의 결정과 그리스도 중심의 행동으로 변화된 것이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생을 경험하고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1:25; 단후 1:9-11).

자신을 이방인들을 구하는 복음의 사도라는 사명을 따라 그의 삶이 변화 되었다(로마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행 3:7-9). 마룸의 이같은 확실한 신앙은 마침내 인도하였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자기의 성별은 하나님께 영원한 성리로 택정하였다고 하였다(관 1:15-16). 하나님은 마룸의 전 생애를 영광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 마룸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알버트는 창조로 형성된(formed) 구조가 타락으로 인해 방향이 왜곡되었고(deformed) 그것을 구속으로 변혁한다(reformed)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고 모든 제도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실재의 본질에 그 기원을 둔다고 주장했다.¹²² 그의 구조와 방향이라는 도식은 간략하면서도 성경적 세계관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즉 구조란 창조된 사물의 '본질' 즉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 창조된 사물을 말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방향이란 범죄로 인해 그 구조적인 규례로부터 이탈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 구조적 규례에 다시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알버트의 주장은 사물의 '본질' 즉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 창조된 사물이 죄로 인해 그 방향성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에베소서 2:2-3 절에 보면,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사도바울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다. 알버트의 주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sarks)이다. 이 말은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으로도 번역된다.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¹²²알버트 월터스(Albert Walters) • 마이클 고힌,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7, 58.

육체의 본성이 부패하여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인간의 생명체는 유기체(organism)로 되어있다. 모든 부분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그들 상호 및 전체 사이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어 하나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닐 앤더슨(Neil T Anderson)은 인간은 외적인 요소인 오감, 즉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감을 통하여 이 세상과 관계하는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적 자아 즉 생각하는 마음, 느끼게 하는 감정, 선택하게 의지를 가졌다고 말했다.¹²³ 즉 인간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Figure 3 닐 앤더슨의 최초의 인간 창조¹²⁴

¹²³ 닐 앤더슨(Neil Anderson),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유화자 옮김, 서울: 조이선교회, 2007, 27-28.

¹²⁴ Ibid, 27.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완전한 생명체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어그러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영이 죽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 육체적으로 죽음이 왔다. 의지는 하나님 중심적에서 세상 중심으로 부패 되었고,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등 부정적으로 부패 되었다.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말을 여섯 번(창 1:10, 12, 18, 21, 25, 31)을 반복하여 말씀 하셨다. 여기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에 대하여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하거나 실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피조물에는 조금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기록했다. 특별히 사람 창조를 만족해 하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 장은 인간들의 타락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피조 세계에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¹²⁵ 세상은 그 때 이후로 타락과 오염으로 고통을 당해왔다. 로마서 8:22-23 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부패하여 탄식하며 고통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¹²⁵ 개역개정, 창 3:17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20 절).

피조세계의 타락은 한 개인의 감성이나 합리성과 같은 인간 기능에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 사회의 풍조, 사회 제도, 예술, 학문, 학교, 회사등 하나님의 원래의 설계에 부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2) 세계관의 회복

세계관은 자신의 문화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되며 자신의 삶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세계관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 차원에 속하므로 변화의 속도 또한 매우 느리다.

히버트는 “만일 세계관까지 전환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계관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게 되고 기독교를 기독교적 이교주의로 변질시키게 된다. 행위와 믿음은 기독교적이라도, 그 밑바탕에 깔린 가정들과 범주들과 논리는 이교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¹²⁶ 또한 그는, “세계관의 전환은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¹²⁷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잠깐의 복음 전파로 ‘회심’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에 관련된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않다. 폴 히버트는 마크와 Judy Zabel 선교사가 한 부족에 복음을 전하자, 그 즉시 온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¹²⁶폴 히버트(Paul Hiebert),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옮김, 서울:복있는 사람, 2010, 504-505.

¹²⁷폴 히버트(Paul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이종도·이현모·정흥호 옮김, 서울:조이선교회, 1985, 68.

Mark looked at the chief and elders before him and at the more than two hundred men, women, and children crowding behind them. "Have they all *really* become Christians? I can't baptize them if they don't each decide for themselves!" he said to Judy, his wife.¹²⁸

에베소서 2 장 1 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한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그들의 죄가 그들을 영적인 무반응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¹²⁹.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살리셨다는 말은 흔히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 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¹³⁰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제공하셨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다.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순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인지 세속적인 세계관인지 구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알버트는 세계관의 회복을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말했다. 오순절 성경께서 인간의 삶을 내부로부터 갱신하러 오셔서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 퍼져 나감으로

¹²⁸ Paul G. and Frances F. Hiebert, "Case Studies in Mission", Baker, 1987, 158

¹²⁹ 개역개정, 에스겔 37:1-14, 로마서 6:23; 7:10,24; 골로새서 2:13

¹³⁰ Ibid, 요한복음 5:21; 6:23; 로마서 4:17; 고린도전서 15:12-23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관계, 문화적 활동 등에 내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영이 부활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에베소서 2장 2-3 절에 보면,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라고 사도바울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육체의 욕심과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겨 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러한 인간들이 그 방향을 돌려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념 체계를 가지며, 행위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 26:18 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가는 인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선포했다. 바울은 복음이 영적 소경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빛(하나님을 아는)이 그들의 마음에 비쳐서,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진정한 회심은 세계관, 신념, 행동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죄에 대하여 죽어 신령한 하나님의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하는지를 관 설명해 주고 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 7-9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신년조차도 빠른 속도로 다시 세속화되고 있는 문화에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신념의 많은 부분, 심지어는 근본적인 하나됨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본인이 기뻐하는 것인지 성경을 토대로 점검해야 있는 자신을 보면서, 왜 자신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선택이 과연 관계의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하고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부부의

점검해 보아야 한다.

문명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세계관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리를 자신의 삶에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문명할 의해 바르게 문명했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이 하겠습니까” 라고 성경적인 적용을 말한다. 그럴 때에 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자주 느끼는 것은 그들이 큐티나 성경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실제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자가 성도들과 대화를 통하여

있게 된다. 즉 영이 부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다.

된다. 마음은 변화되고 감정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의지는 성령을 좇아 행할 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며, 영은 부활하여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었으며, 그것도 요셉의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였다. 그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 이었으며 수많은 규칙과 전통은 물론 구약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바리새인이었다.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에 바울이 갖고 있는 자격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자신이 힘써 쌓아왔고 지향했던 자격들을 배설물로 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된 것이다. 세상적인 가치 지향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지향하게 변화된 것이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에 기록된 개인들의 회심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회심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 즉 조용하고, 비밀스럽고, 점진적 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놀랍고도 갑작스럽게 크게 변화된 것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은 속임수와 지나친 열광주의의 분명한 표지로 여겨지고 있다.”¹³¹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였듯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의 핵심인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한다. 누구든지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신념과 행동 등의 영적 삶의 전반에 “놀랍고도 갑작스럽게 크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관의 개혁이다.

¹³¹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감정론”, 장성욱 옮김, 부흥과 개혁사, 2005, 212

C.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걸림돌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 동안 경험한 경험과 지식에 의해 가정하고 분류하고 구분하여 선택한다. 이러한 인식 영역은 정신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이 세상의 현상들을 조직화 한다. 마치 정신세계의 저장 폴더나 저장 파일과 같이 사람들의 인식 영역은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혼동하거나 또는 아무런 분별없이 무심코 세속적인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거나, 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 가치관 사이에서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맞아야만 하는 현대의 풍조를 네 가지로 요약한다. 즉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이 그것이다. 그는 이 시대에 통용하고 있고, 유포되거나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일컬어 풍조라고 말하고 있다. 21 세기 사회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정신적인 풍조를 그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 시대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¹³²

교회 교육에서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중에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에게 영향을 주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살펴보고

¹³² 존 스토틀, “제자도”, 김명희 옮김,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¹³³ 데이빗 A 노에벨, “충돌하는 세계관”, 류현진·류현모 옮김, 서울:꿈을 이루는 사람들, 2013, 103.

결림돌이 되고 있다.

공동체에서도 사랑의 공동체,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사랑은 교회
중 하나임을 말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보다 우선되어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바울은 이러한 현상은 말세에 일어날 징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은 디모데후서 3:2절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하나뿐인데, 바로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이다.” ¹³³

더 물을 것이 없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바(Meher Baba)는 “질문은 하나뿐이다.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위한 하나라는 의식이 우리를 온전한 신으로 만든다.” 라고 말했다. 또한 메헤르
신이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함께 신이다. 하나님을 위한 모두, 모두를
루스 몽고메리(Ruth Montgomery)는 “신이 우리의 일부인 만큼 우리 또한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

우선시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뉴에지와 같이 자기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찰장 사회보다 먼저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권리에서 개인을
것을 옹호 하므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경우에는 투쟁하기도 한다.
권리가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하는
개인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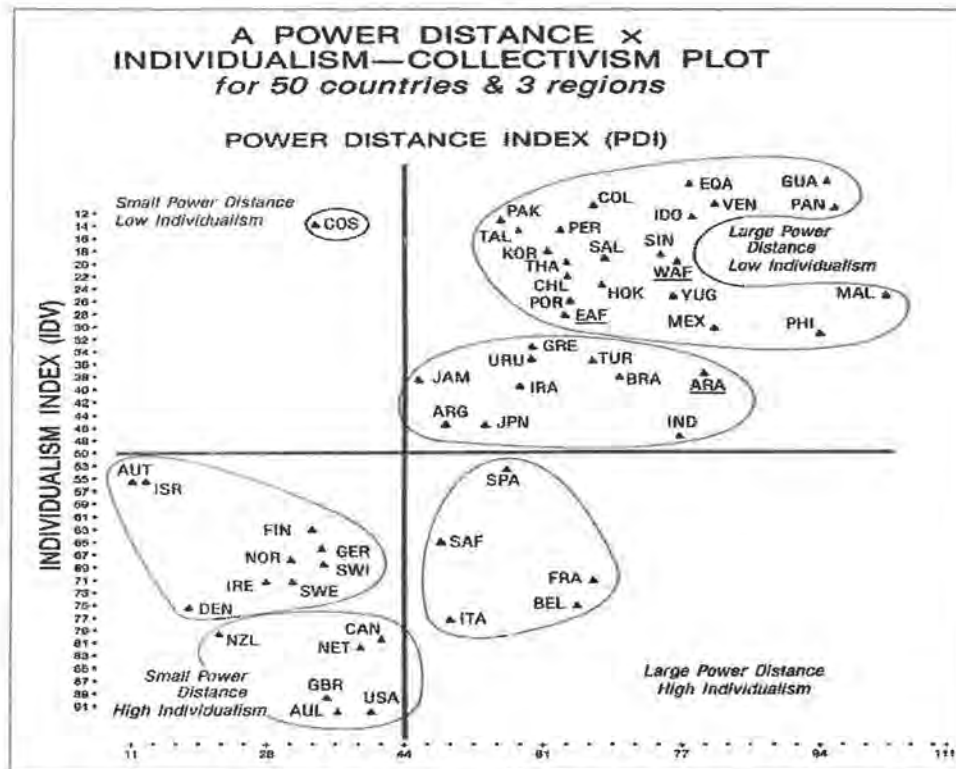
1) 개인주의

매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호프스테드 (Geert Hofstede) 는 IBM 을 경영하는 동안, 국가 문화의 호프스테드 모델 (Hofstede' s Model of National Culture) ” 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는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관과 행동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연구는 주로 여러 국가 간의 문화 차이가 경영진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오늘날 기업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비교문화 심리학, 국제 경영학, 문화간 의사소통 등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호프스테드의 문화의 차원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는데, 권력 거리(PDI),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과 여성성이다. 이 이론은 차후에 장기지향적과 단기지향적이 더 추가되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주의 성향은 다른 50 개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 홀스테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¹³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네 가지 문화 차원을 다음 그래프로 살펴보면, 가장 차이가 큰 것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이다.

¹³⁴ Geert Hofstede, "The Cultural Relativity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Theo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re-1989); Fall", 1983; 14, 000002: ABI/INFORM Global pg.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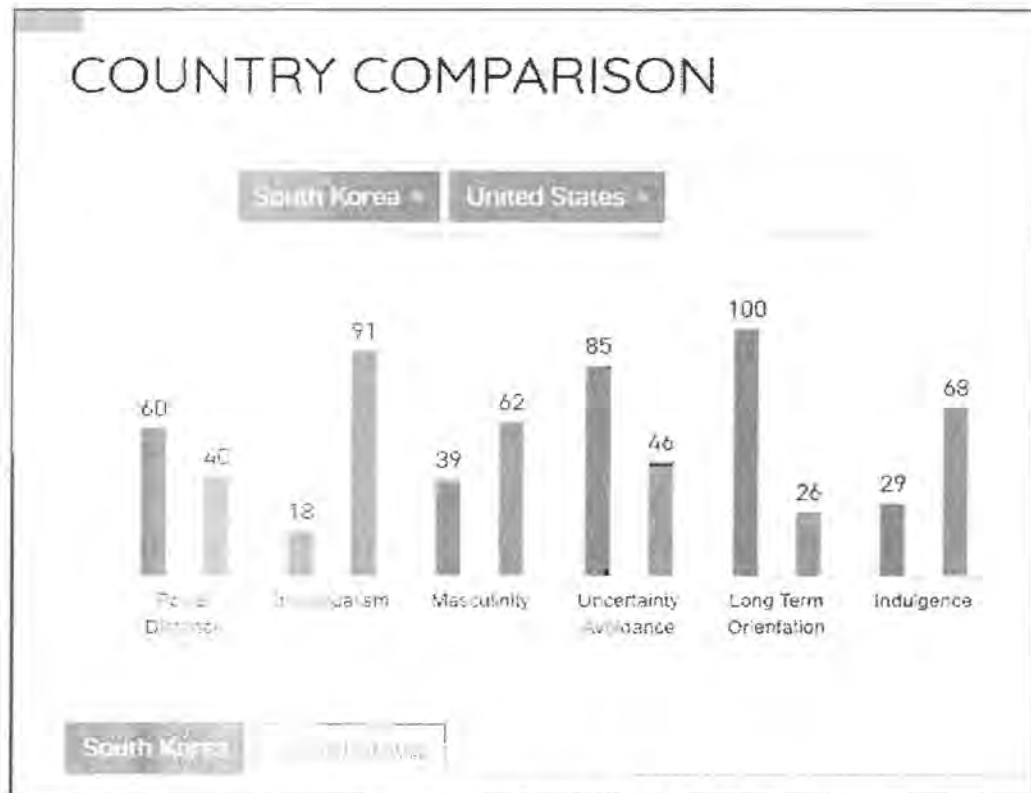


Figure 50 Hofstede'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USA vs Korea¹³⁵

위의 도표를 보면, 한국인들의 개인주의는 18 퍼센트인 반면 미국인들은 91 퍼센트로 한국인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개인들간의 연계가 느슨하여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게 평가 된다. 반면 집단주의적인 성향은 개인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은 자신을 표현할 때, “I” 라고 표현하는 반면 한국은 “We”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한국은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부여하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집단의 책임과 결정을 중요시 하는 반면, 미국은 개인이라는 정체성에 그 비중을 크게 하여 개인적 이익을 중요시하며 개인적 성취와 결정에 그 비중을 둔다.

¹³⁵ Hofstede Insights, Country Comparison, <https://www.hofstede-insights.com/country-comparison/south-korea,the-usa/>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성장한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와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새로운 미국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미디어, 인터넷등을 통해서 개인주의 사상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스르는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2) 물질주의

노골적으로 물질을 우상삼고 물질적 축복을 좇는 행통의 복음을 설교하거나 주장하는 부흥 강사나 목회자의 숫자는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소수 리더들이 끼치는 영향력이나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미국 안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유명한 인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들(T. D. 제이크, 베니 헌, 조엘 오스틴 그리고 조이스 마이어)은 각별히 미국적인 입맛에 맞는 이교적인 세계관을 유포하는 공급업자들이다. 그 밑바닥에는 “번영의 신학”이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¹³⁶

국민일보가 만 19 세 이상 개신교인 900 명과 목회자 100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속화와 물질주의’ (교인 41.9%, 목회자 33%)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았다.¹³⁷

¹³⁶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옮김, 부흥과 개혁, 2009, 97

¹³⁷ 국민일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2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5679&code=61221111&cp=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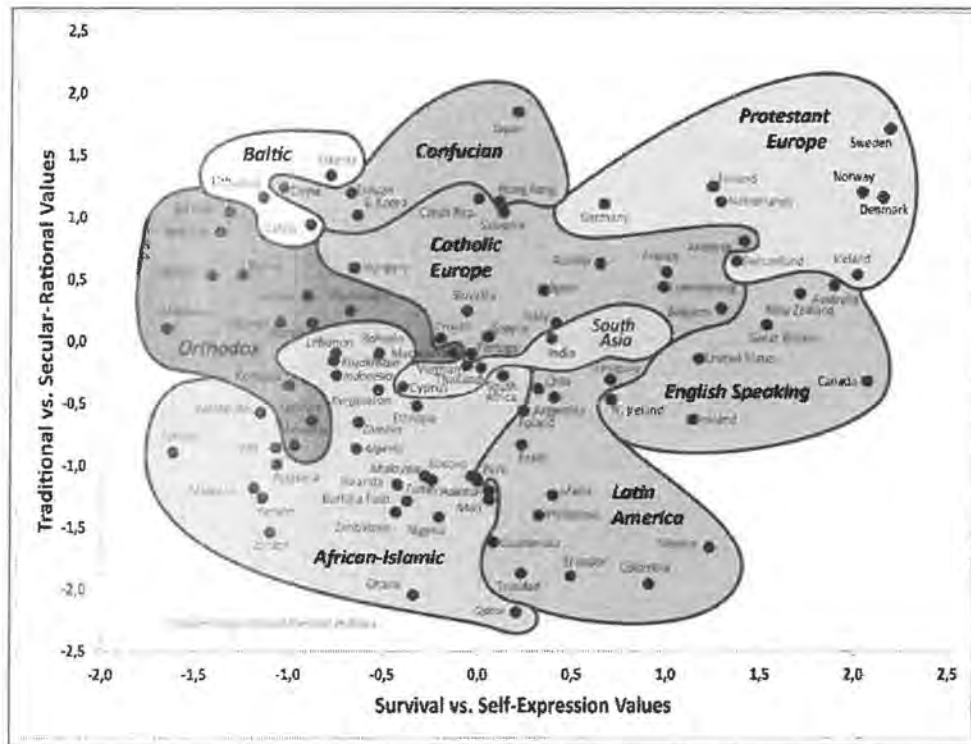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Figure 6>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¹³⁸

미국의 정치학자 잉글하트는 국가 발전의 목표에서 물가와 인플레이션 억제,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제주의적 태도를 "물질주의"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정부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수렴을 우선시하는 문화주의적 태도를 "탈물질주의"로 정의해 각 국민의 가치관을 비교분석 했다.

¹³⁸ Ibid,



<Figure 7> 세계 문화 지도- WVS wave 6(2010-2014)¹³⁹

위 도표는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조사하여 2015 년에 만들어진 세계문화 지도이다. 잉글하트와 웰젤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의 가치관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해석했다.

위 그림에서 세로축은 전통적 가치 대 세속합리적 가치의 긴장을 보여준다. 전통적 가치는 종교,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권위와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존중 등을 중시한다. 세속합리적 가치가 강한 사회에서는 종교나 전통적 가족가치, 권위 같은 것들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가로축은 생존적 가치 대 자기 표현적 가치의 긴장을 보여준다. 생존적 가치는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안전을 중시하며,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이 강한

¹³⁹ World Values Survey, Cultural map - WVS wave 6 (2010-2014),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CMSID=Findings>

편이어서 신뢰와 관용의 수준이 낮다, 또한 자기 표현적 가치는 환경보호, 외국인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 양성평등 등을 중시하며, 정치적, 경제적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참여의 요구가 높아진다.

가로축은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단계론(Hierarchy of Need)과 함께 한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다섯 개의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 등이다.¹⁴⁰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많고, 이들은 경제성장, 권위주의적 정부, 애국심, 군대, 법과 질서를 선호한다.

위 Figure 7 도표를 보면, 한국은 세로 축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즉 강한 세속합리성과 강한 생존적 가치의 조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가로축에서는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

장덕진은 그의 논문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에서 5 개국을 비교하여 물질주의자 대 탈물질주의자 비교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¹⁴⁰ 매슬로우는 1943 년 욕구 단계론을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이라는 논문으로 처음 발표하였고, 1954 년 “동기와 인성”이라는 책에서 완성하였다. Abraham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1943, Psychological Review 50(4):370-396. Abrah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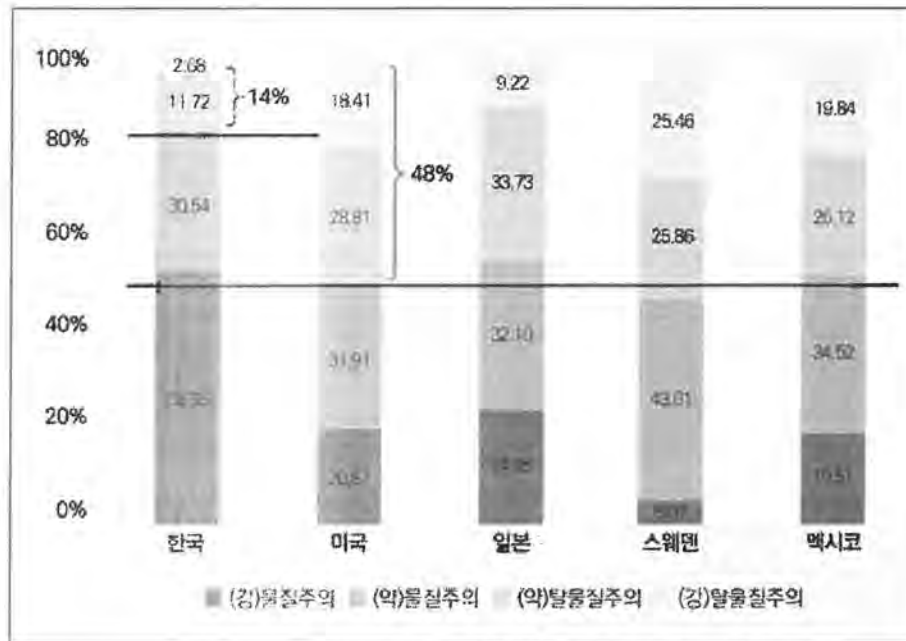


Figure 8> 4 개국 물질주의자 vs. 탈물질주의자 비교

위 표 Figure8 에 의하면 미국, 일본, 스웨덴, 멕시코와 비교해 볼 때에 한국은 강한 물질주의임을 알 수 있다.¹⁴¹

조셉 마테라(Joshep Mattera)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 가지 징후(10 Signs You Are a Secular Believer)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사람들을 사귀려고).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일부일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¹⁴¹ 한국일보, “한국인 물질주의 가치관”, 2017,
<http://www.hankookilbo.com/m/v/fa103f945f194c79b501b41826c7feb0>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¹⁴²

3) 포스트모더니즘

21 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유일신의 진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탈이성주의로 인한 무조건적인 다원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원성은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원리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여 상대주의에 빠지게 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량이 넓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21 세기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로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의 해방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제도 및 결혼에 대한 거부, 이혼의 급증, 독신자의 급증, 호모 섹스의 사회적 허용, 정치적으로는 독재 권력의 거부, 지배 이데올로기의 거부 등이다. 이로 인해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일련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들이 당연한 듯 활개를 치고 있다. 자유연애, 포르노, 일탈한 성교육, 동성애, 혼전 동거, 청소년 임신, 낙태, 조력 자살, 안락사, 제약 없는 줄기 세포 연구, 클론(clone)¹⁴³, 사생아, 무책임한 육아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규범 윤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한 행동인 상황윤리가

¹⁴² Joseph Mattera, *10 Signs You Are a Secular Believer*, <http://josephmattera.org/10-signs-you-are-a-secular-believer/>, Joseph Mattera- 뉴욕 레저렉션교회 담임목사, 미국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¹⁴³ 생물학에서 복제(cloning)란 자연 상태의 생물 개체가 자신과 동일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생물 공학에서 말하는 클로닝이란 DNA 조각이나 세포, 유기체를 복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생물 복제, 생명 복제는 특별히 후자를 이른다. Clone 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줄기, 가지를 뜻하는 κλώνος 에서 유래했는데, 잔가지를 이용해 꺾꽂이를 하는 전통적인 복제 방법을 뜻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로 등장한다.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단 한가지의 기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과 윤리적 지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1 세기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다(사 17:6; 21:25).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보편성 원리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폄하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2:2 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NIV는 “the pattern of this world”로 번역하고 있다. 즉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 안에는 세상의 가치와 행동과 관습을 따라 가려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매순간 이러한 습성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돌이켜야 한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말할 때 ‘re-’의 뜻을 지닌 접두사 ‘다시-’를 사용하여 헬라어 ‘아나카이노시스’(anakainosis)는 헬라어 문자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듦’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D. 세계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 (Transforming worldview learning theories)

하워드 핸드릭스는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는 교육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 교육은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¹⁴⁴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옮김, 서울:생명의말씀사, 2016, 47-53.
¹⁴⁵ Ibid, 54.

자신의 세계관을 점진적으로 변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영향이나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성경적 근거에 의한 선택으로만 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매 순간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이 문화적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공연합으로 그들이 공부하는 자이면서 또한 가르치는 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뜻지 않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주장한다.¹⁴⁶ 기독교 교육은 빠르고 쉬운 대담을 대신해 찾아 주는 것이나 현실에 결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고 헨드릭스는 “교사의 의무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 자기 세 번째로 기독교 교육은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맛보고, 느끼고, 만질 때, 비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들은 변화 모든 사람들에게 역자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씨름할 수 있도록 묵상하며 배워야 하는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두 번째로 기독교 교육은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성경은 평생 성경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추구해야 한다.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생각하는 법에 집중하여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1의 번째로 그의 생각이 궁극적인 변화를 그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행위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¹⁴⁷ 교육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선택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비기독교적인 선택을 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 분별하고 성경적인 결정을 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향해 반사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일생 동안 세계관은 계속해서 변화 한다. 세계관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문화와 표면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화된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구성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재구성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상황에서 원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변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Building a Christian Worldview”의 저자인 앤드류 호페커 (Andrew Hofferker)는 “Our world view determines which ideas we consider to be most important”라며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¹⁴⁶

히버트는 세계관이 변형되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주장한다. 그 첫째 방법은 의식적 차원인 신념과 관습의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관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때 발생한다. 의식적 신념은 세계관을 개조하고, 세계관은 의식적 신념을 빚어낸다.

¹⁴⁶ W. Andrew Hofferker, “Building a Christian Worldview. Volume2 The Universe, Society, and Ethics”, Copley Custom Publishing Group, 1998, xi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문화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바라보고 외부인이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경청하는 것이다.¹⁴⁷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교회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총체적인 복음을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인식되고 경험된 총체적 복음을 통해서 각 개인의 일상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반복해서 훈련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히버트는 그의 책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에서 세계관의 변형을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세계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계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 또는 그 동기는 또 무엇에 의해 형성된 사고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세계관에 노출되어 보는 것이다. 세계관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과 타인의 세계관을 검토함으로써 세계관의 지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폭 넓게 바라보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세계관이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대안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에 비추어 그것들을 재검토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의식 만들기이다. 히버트는 중요한 전환점인 회심과 같은 사건을 뚜렷이 표시하려면, 신성한 것을 가리키고 그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¹⁴⁷폴 히버트(Paul Hiebert),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옮김, 서울:복있는 사람, 2010, 608-611.

해야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그 중요한 사건이 한낱 평범한 일상적인 경험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⁴⁸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다. 성도들은 내면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회심한 성도들은 단순히 마음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새 주인 아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이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수시로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이 다른 타인과의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무엇이었고 믿었고 있는지 공부함으로 자신의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될 때마다 어떠한 의식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교회 교육을 실시할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중심의 성경공부를 제안한다. 질문과 드물 중심의 커리큘럼 성경공부가 효과적이며, 성경을 적용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 받거나 소감을 쓰도록 하여 스스로 성경적인 적용들을 유추해 내도록 한다. 또 한가지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인 이슈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병행하도록 제안한다.

II. 상황화 (Transformative Learning using Contextualization)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특정 문화 안에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인간들과 소통하셨다는 것이 상황화의 모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의 상황화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상황화는 가장 신학적이며 인류학적인 접근인 것이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 남성과 여성간의 소통,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 상사와 부하간의 소통,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소통, 민족과 민족간의 소통, 문화와 문화간의 소통,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소통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들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성경을 오늘날의 특정 민족을 향하여, 특정 문화권 안에서, 특정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민교회의 상황화는 필자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신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연구 조사에서 과연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목회 지도자의 상황화와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 지도자가 얼마나 미국의 문화와 환경에 또한 이민자들의 다문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상황화” 라는 선교학적인 단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상황화’의 질문을 할 수 없었던 연구 조사 과정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상황화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이민자들의 상황을 매우 잘 이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매우 부정 1 -2- 3- 4- 5 매우 긍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76 명중에서 18%가 이민자의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4 번의 비교적 그렇다가 30%, 3 번에 30%, 2 번 비교적 그렇지 못하다 20%,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도 1%가 있었다.

두 번째 상황화 질문은 “목회자가 이민자의 삶(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역(설교, 심방)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매우 부정 1 -2- 3- 4- 5 매우 긍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76 명중에서 거의 반수인 47%가 매우 관계성이 높다고 대답하였고, 4 번의 비교적 그렇다가 35%, 3 번에 15%, 2 번 비교적 관계성이 없다 3%, 전혀 관계성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1%가 있었다.

상황화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응답자의 82%에 해당되는 미국 이민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민자들의 삶(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역(설교, 심방)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대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목회자가 얼마나 미국 이민자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는 4 번 ‘비교적 그렇다’ 와 3 번 ‘중립’ 에 응답자가 각각 30%씩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도표를 참고 하면, 상황화와 영적 성장의 직접적인 관계성(Importance of Pastor's contextualization) 과 현재 출석 교회의 목회자는 상황화 정도 (Reality of the pastor's contextualization)의 비교해 볼 수 있다.



<Figure 9> Contextualization of the pastor vs. importance of the pastor's contextualization

도표를 보면 상황화와 영적 성장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선과 실제 이민 목회 현장에서의 목회자의 상황화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렇게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미국 이민 목회자의 상황화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민 교회 목회자들은 미국이라는 다문화적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이민 생활과 상황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민 목회 현장에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적합한 상황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필자는 미국과 한국의 두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주한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황화를 논의 할 것이다.

A. 상황화의 정의

상황화란 용어가 복음과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가장 대중적인 용어로 정착되고 있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용어가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세계 교회 협의회(WCC)였다.¹⁴⁹ 20세기 중반까지의 서구중심 선교가 서구문명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하나의 문화적 패키지로 전한 것에 대한 반발과 반성에서 상황화가 시대의 흐름을 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까지는 문화 인류학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던 선교가 복음의 수용자 문화에 대한 무지, 무시, 편견으로 차민족중심적인 기독교화와 문명화로 복음을 절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선교 커뮤니케이션론』(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에서 헤셀 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가 인용한 몇몇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상황화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토(Byang H. Kato)는 “상황화란 용어는 개념이나 이상을 주어진 상황과 관련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쓰고 있고, 브루스 니콜즈(Bruce J. Nicholls)는 상황화를 “왕국 복음의 불변의 내용을 각기 다른 문화와 특수한 실존적 상황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지니는 언어적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조지 피터즈(George W. Peters)는 “적합하게 적용된 상황화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합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¹⁴⁹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 『선교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옮김,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136.

¹⁵⁰ Ibid, 140.
¹⁵¹ 데이빗 헤세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 "Contextualization: Meanings, Methods, and Models", William Carey Library, 2013, 200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의 노트에
 재인용. 30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먼저 알아가고 종교 행위나 관습 등의 형식적인 외형들을 다 문화에 성경의 본질인 것처럼 정착화시키는 방법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토착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그대로 두되 그것을 전하는 방법과 문화와 환경에 적합하게, 그러나 복음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지 않게 전하고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수용자의 애국되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을 그들의 문화 안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과정에 있는 현대인의 삶에, 복음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이 오히려거나 철론적으로 상황화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변화의

있다." ¹⁵¹
 대위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데 수반되는 그 모든 활동과 상황화는 관련이 전도, 기독교적 교훈, 교회 개척과 성장, 교회 조직, 예배 형식 등 비언어적이며 신학과 관련이 있다. 성경 번역, 해석과 적용, 정육신적 함,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상황화는 언어적인 동시에 응답자들이 처한 문화적, 실존적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의미를 지니는 계시(특히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 속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에 충실하면서 "상황화란 인간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역, 말씀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대한 자신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다.

또한 헤셀 그레이브 자신은 그의 다른 책 "상황화"라는 책에서 상황화에

하비 콘(Harvie Conn)은 상황화에 대해서 "복음의 해석학적 요구를 향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쓰고 있다. ¹⁵⁰

적용보다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다. 원문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고서는 적용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적용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원문에 대한 적합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복음의 본질이 내용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은 반드시 현지인들의 문화와 소통방법으로 전달되며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This means that if one is to really understand a given behavior on the basic level I am referring to, one must know the entire history of the individual."¹⁵²이라고 설명하며,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때에만 올바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올바른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서 주고 받는 모든 내용들을 상대방이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즉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상황화의 시작인 것이다.

B. 성경에서의 상황화 모델

초대교회 안에서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같은 본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음을 볼 수 있다. 예수의 복음 사역을 증언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공관복음서는 그 말씀을 읽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상황화 되어 기록되었다.¹⁵³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는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 보다는 현저히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구약성경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선포했던 것이다. 또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the kingdom of heaven) 즉 “하늘 나라”라고 불렀다(마 4:17). 반면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서의 지지와 독자는 모두 유대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신성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인

¹⁵² Edward Hall, "Beyond Culture", Anchor Books, 1989, 69

¹⁵³ 그랜드 종합주석, 제 14 권, 마태복음·마가복음, 서울:성서아카데미, 2000, 72.

자신들의 독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과감히 사용했던 것이다(막 1:15; 눅 9:11).

뿐만 아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독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친절하게 번역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의 이름을 “골고다”라고 부르고 있다(마 27:33, 막 15:22). 그러나 누가는 그 지역 이름을 헬라어로 “크라니온”(kranivon) 즉 “해골”이라고 번역해 주었다(마 27:33, 막 15:22).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요 1:1) ‘로고스’라고 표현 했다. 그 당시 진리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이성과 만유의 원리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 로고스를 인격자이신 하나님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C. 상황화의 필요성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의 저자이며 교육학자인 잭 메지로(Jack Mezirow)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학습이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축적적으로 한 개인의 경험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그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순간을 일컫는다고 설명하며, 교육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ulture can encourage or discourage transformative thought. Modernization creates an imperative need for the transformation in learning that become possible as the result of developmental changes in

adults' ability to become more critically reflective of presuppositions.”¹⁵⁴

올바른 상황화가 없다면 올바른 말씀의 전달도 일어나지 않으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이같이 상황화의 필요성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호간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독특한 렌즈를 가지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다. 그 렌즈는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기질과, 경험과 교육의 수준과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문화 안에서 동화되고 사회화된 렌즈를 통해 타문화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는, “인간은 특정한 한 문화 속에서 출생하는데 그 문화는 나름의 세계관과 사고 방식, 행동 방식 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동화와 사회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¹⁵⁵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화와 혼합해서 이해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는 이민자들과 같이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모두 자민족중심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거나, 자민족중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온전히 전달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우리의 행동의 100 퍼센트가 모든 측면에서

¹⁵⁴ Jack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1991, 3

¹⁵⁵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옮김,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472.

자신이 속한 문화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그는 문화화라고 말했다.¹⁵⁶

한 예로 미국에는 할로윈(Halloween)축제일이 있다. 매년 10월 31에 행해지는 행사인데, 이 날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믿고, 그것들을 놀려주기 위해 사람들은 유령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긴다. 이 날에 많은 아이들은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면 “과자를 안주면 장난칠 거예요(trick or treat)”이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면 집주인은 아이들에게 사탕, 초코렛이나 동전등을 나누어 준다.

위키백과의 통계에 의하면, 이 할로윈 축제일에 참여하는 미국인들이 무려 94퍼센트 된다. 미국의 열 개의 축제일 가운데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축제일이다. 2015년에는 할로윈 축제에 총 6.9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¹⁵⁷

여기에서 상황화의 문제는 한국인 기독교인들도 아무런 성경적인 판단이 없이 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 심지어는 기독교 목회자들조차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거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웃지 못할 일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교회의 중직자들도 자신의 사업터에 각종 준비와 귀신들의 그림과 형상으로 할로윈 장식을 하여 한껏 분위기를 띄운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화와 풍습을 바라보라고 충고라도 할 때면 율법주의라고 오히려 반박을 한다. 미국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로윈에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상황화가 기독교 혼합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현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¹⁵⁶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기독교 문화인류학”,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74.

¹⁵⁷ Wikipedia.org, “Public holidays in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holidays_in_the_United_States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랫동안 혼합종교를 섬겼던 모습들이 이미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다. 고고학자 제에브 메셀(Ze'ev Meshel)은 시나이 사막의 동쪽에 위치한 쿤틸렛 아즈루트(Kutillet Ajrud)을 발굴하였는데, 주전 8 세기의 큰 토기 몸체에 고대 히브리어로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아세라(Asherah)는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여신을 말한다. 토기에 적힌 고대 히브리어의 내용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섬겼고, 또 바알에게 배우자, 아세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도 배우자를 두어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던 것이다.¹⁵⁸

이러한 혼합종교의 시작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가르침에서 발전된다. 미주 한인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혼합화가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비판적인 상황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 온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문화를 아무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인 교회 안에서도 미국의 문화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나, 특정 미국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그 문화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상황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떠한 특정 문화 안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찰된 문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찰된 문화가 그 문화권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들의 문화가 전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는 받아 들이지

¹⁵⁸ 크리스천투데이,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2)",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58939/20121030/%EC%9D%B4%EC%8A%A4%EB%9D%BC%EC%97%98-%ED%83%90%EB%B0%A9-%EC%97%AC%ED%98%B8%EC%99%80%EC%99%80-%EA%B7%B8%EC%9D%98-%EC%95%84%EC%84%B8%EB%9D%BC-2.htm>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특정 문화에 대한 올바른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타문화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특별히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한인교회와 같은 미주의 수 많은 한인 교회들 안에서도 적합한 상황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이러한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안에서 미국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교육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문화

문화는 복음과 무관할 수 없다. 헬셀그레이브는 “창세기 11 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빚어진 언어의 혼잡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종의 문화적 단절을 가하셨다”¹⁵⁹라고 말했고, 크래머(Hendrik Kraemer)는 “창세기 11 장에 대한 필연적 성취는 사도행전 2 장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회복될 때, 언어의 혼잡은 사라지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¹⁶⁰라고 말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의 회복은 곧 문화의 회복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문화를 배제시킬 수 없으며, 온전한 복음의 전달은 문화의 회복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사이에 교차문화 소통의 회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문화는 21 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생소한 언어가 아니다. “지구촌 한 지붕”이라는 관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촌 안에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되었다. 21 세기의 문화는

¹⁵⁹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옮김,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25.

¹⁶⁰ Hendrik Kraemer, “Communication of Christian Faith”, Philadelphia:Westminster, 1956, 66.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거리를 단축시키고, 문화를 움직이도록 동기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서, 서양의 문화가 동양에서 출렁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구 곳곳에서 매 순간마다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종교에도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A. 문화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은 문화에 대하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¹⁶¹고 정의했다.

찰스 크레프트(Charles, H. Kraft)는, “문화는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방식,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적 유산’,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밑그림’이다.”¹⁶²라고 정의했다.

히버트(Paul G. Hiebert)는 문화란,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이 공유하며, 그들의 상징 체계를 사용하여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통합된 믿음, 느낌, 가치 그리고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¹⁶³으로 정의했다.

¹⁶¹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mall_detail.nhn?docid=14437200

¹⁶² 찰스 H 크래프트(Charles Kraft), “기독교 문화 인류학”,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01.

¹⁶³ 폴 G. 히버트(Paul Hiebert), 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39.

위와 같이 문화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신념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독특하며 총체적인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화라는 용어에는, 문화생활, 대중문화, 교회문화, 전통문화, 민족문화, 예술문화, 소비문화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문화의 종류에는 물질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 문화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뿐 아니라 재화를 만드는 기술까지 포함이 된다. 비물질 문화에는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가 있는데, 제도문화에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가족제도와 같은 사회구성원의 관계를 정하고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과 규칙을 말한다. 관념문화는 정신문화(좁은 의미의 문화)라고도 말하며 과학, 이데올로기, 예술, 교양, 전체 의식의 여러 형태, 사회적 규범과 가치와 같은 정신적 삶의 과정이다. 이 구분에 따른다면 정신 문화는 물질 문화에 의해 영향 받으며 또 정신 문화가 물질 문화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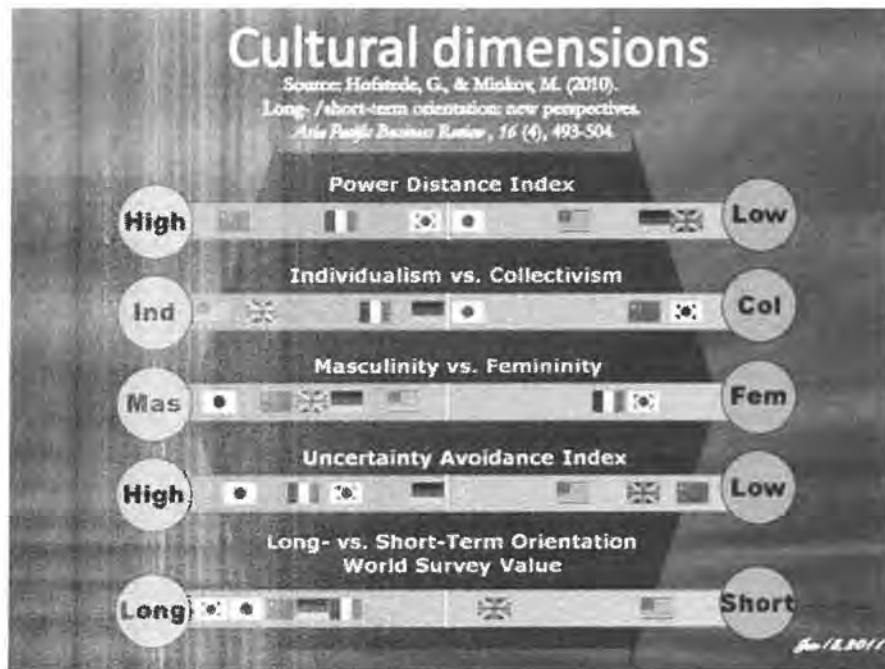
문화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가치체계, 신념체계 그리고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사람에게 세상과 인생과 사건을 해석하는 인식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적 차원인 윤리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세가지 차원은 문화의 핵심을 구성한다. 인식적 차원은 지식과 논리를 지배하고, 감성적 차원은 감정과 심리를 지배하고, 평가적 차원은 가치와 규범을 지배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¹⁶⁴

결과적으로 행동양식과 가치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심층에 있는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회심이란 세계관의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문화적 변혁에 이르는 신념의 변화와 성경적 열매를 맺게 되는 행동의 결과까지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¹⁶⁴ 폴히버트(Paul Hiebert),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옮김, 서울:복있는 사람, 2010, 51.

B. 홉스테드의 다섯가지의 문화적 차원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홉스테드(Geert Hofstede)의 고정된 연구방법이 있다. 홉스테드의 연구 결과인 다음 표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원의 지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의 분류는 동양적 가치를 반영하는 한국과 서구적 가치를 반영하는 미국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준다.



<Figure 10> 홉스테드의 다섯가지의 문화의 차원¹⁶⁵

먼저 홉스테드의 다섯 개의 가치중심 연구방법으로, 권력간 거리(Power Distance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권력간 거리가 높은 한국은,

¹⁶⁵ Penn state, Bridging the Gap, <http://sites.psu.edu/global/2015/09/20/bridging-the-gap/>

제도적, 조직적 권력이 수직적이며 계층적이라는 뜻이다. 권력간 거리가 낮은 미국은 수평적이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란 한 문화가 개인 혹은 집단에게 의존하고 충실도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은 극단적인 집단주의이며 반대로 미국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이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매우 커서 극과 극이다. 남성주의 대 여성주의(Masculinity vs. Femininity), 남성문화는 물질적 성공, 확신, 경쟁력, 자기주장, 유물론, 야망, 권력에 더 집중하고, 여성문화는 애정, 양육, 대인 관계에 집중한다. 불확실 회피 성향(Uncertainty Avoidance), 조직을 질서함에서 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느끼는 모호함에 의한 위협 때문에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정도를 말한다. 장기 지향성 (Long-term vs. Short -Term Orientation)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장기 지향적인 사회는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다. 단기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끈기, 전통에 대한 존중, 사회적 책임의 준수 등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가 선호 된다.

위 표 (Figure 10)을 보면 미국 문화와 한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문화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이다. 미국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한국문화는 집단주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한인 이민 교회 안에서 1 세대와 2 세대 사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들어난다. 한국의 문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민 1 세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 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문화가 더 개인적일수록, 독립적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문화가 더 집단주의적 일수록 사람들이 상호의존적 자아 높게 드러난다.

한인 이민자들이나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국 문화와 현지 문화와의 문화적인 차이 또한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 안에서 형성된 이민자의 이중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음식에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고기를 먹을 때 그 의식과 그 고기를 별개로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 부류는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확신하지 못했다¹⁶⁶. 그 때문에 종교 의식으로 바친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은
 첫째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와 직접 관계를 맺어서는 안
 우상에 대한 제사 문제와 관련이 깊었다. 이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되는지를 둘러싼 논의였다. 우상 숭배 문제는 헬라와 로마 문화에 널리 퍼져 있던
 드러나는 부분이다. 상황화의 핵심은 우상에게 일단 제물로 바친 음식들을 먹어도
 고린도전서 8 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화와 상황화의 예가 매우 정확하게
 사람이 그 본문에서 깨닫는 차원과 다를 수 있다.
 해석한다. 어떤 문화에 속한 사람이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 문화적 관점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은 그 사람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A. 상황화 (Contextualization)

IV. 상황화와 교차 문화 소통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평가가 하여 이민자들과 이민 교회 지도자들이 현지 문화에 적합한 상황화를 이루어
 훈련을 통해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중립적인 것인가를
 훨씬 객관적인 차원에서 저로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의 인식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먹었다¹⁶⁷. 세 번째 부류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하여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몰랐고, 따라서 자신들이 그런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¹⁶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일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전이나 우상과 관련이 있는 장소들이 수 없이 많았으며 그러한 장소에서 종종 만남을 가져야 했고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적인 모임, 즉 각종 결혼식이나 사회적인 기념행사에 널리 통용되던 사회적인 문화이자 관습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커다란 문화적 갈등을 일으켰다.¹⁶⁹

고린도의 공적인 모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 일단 음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사제는 그 음식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부분은 제사에서 번제로 태웠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사제의 몫으로 돌렸으며, 세 번째 부분은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아갔다. 만약 사제가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 그 음식은 시장으로 빠져나가 사람들에게 되 팔리는 것이 통상이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고민하게 만든 두 번째 이유였다.

모든 음식은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대부분 시장으로 다시 보내졌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음식이 이방 신전의 제단에 제물로 바친, 이미 오염된 음식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을 경우에 자신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야 했다.

¹⁶⁷ Ibid, 고린도전서 8:9-11

¹⁶⁸ Ibid, 고린도전서 8:7-10

¹⁶⁹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고린도전서", 김일우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86.

바울은 고린도전서 8 장 부터 10 장에서 이들의 상황화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우상에게 음식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은 그 음식을 더럽힐 만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러한 음식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친구들과 더불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⁷⁰ 이방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스스로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여 확신 속에서 행할 경우는 정죄함이 없으나,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고 스스로 의심하면서 먹는 자들에게는 죄라는 것이다.¹⁷¹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옛 관습에 대응하는 모습을 폴 히버트의 비판적 상황화의 모형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² 첫째는 현지의 문화나 옛 전통적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즉 상황화의 거부이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성경적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현지의 문화나 전통적 관습을 성경적 가치와 비교 검토하여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비판적 상황화이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사소한 율법주의적인 속박들에 전혀 얽매이지 않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믿음대로 전혀 개의치 않고 먹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¹⁷⁰ 개역개정, 고린도 전서 8:8-9

¹⁷¹ Ibid, 로마서 14:23

¹⁷² 폴 히버트(Paul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이종도·이현모·정홍호 옮김, 서울:조이선교회 출판부, 1996, 265.

조심하라는 경고 한다. 믿음의 행위는 사랑과 민감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문화적 혹은 전통적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무비판적 상황화이다. 초신자들은 동료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보고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혼합주의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여전히 문법적·역사적 도구들을 주의 깊게 적용하여 그 저자나 편집자가 말하거나 글을 쓴 맥락에서 의미한 바를 가능한 잘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나서 그 본문들의 의미와 함축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 할 때는 문화적 다양성이 발휘된다. 하지만 그것은 방법론적이고 신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다양성이다.”¹⁷³

상황화에서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문화가 관련되어 융합을 이룬다. 첫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문화, 둘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또는 선교사 자신의 문화, 셋째, 복음을 전해 받는 자의 문화이다. 이 세 가지 문화가 서로 실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 융합 되면서 진정한 상황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전통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된다. 여기서 생긴 기독교 문화는 전통 문화를 제거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한다. 이와 같이 문화와 상황화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B. 교차문화 소통 이론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the Theories)

문화가 다른 교차 문화(Intercultural) 상황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문화와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이민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이민자의 문화인 미국 문화를

¹⁷³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한화룡 옮김, 서울:IVP, 2010, 47.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와 소통의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엘리자베스 티스델(Elizabeth J. Tisdell)은 교차문화 상황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복음 메시지의 전달에 앞서서 메시지의 소통 방식, 감추인 의미, 현지 문화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have tried to set a context for how educators who want to draw on spirituality to create culturally relevant and transformative learning environments might approach attempting to do so. I emphasize that although one can make suggestions about how to think about such approaches, in reality, as Parker Palmer(1980) suggests, we do not think our way into a new kind of living; we actually live our way into a new kind of thinking. This living our way into new kinds of thinking plays out differently in the different contexts of adult, community, and higher education, and each educator needs to develop her or his own idea of what this might look like in practice."¹⁷⁴

인류는 오랫동안 문화간의 소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수사학과 소통(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대하여 연구해왔다. 오랜 연구에 연구를 거쳐서 학자들은 수사학과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들을 증명하고 강화해 나갔으며 그 의미를 다양한 환경과 문화들의 환경 속에서 더욱 심화된 연구들을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몇가지 방법들을 일컬어 '수사학'이라고 명하였다. 도널드 브라이트는 수사학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다."¹⁷⁵라고 정의한다. 더글라스 에닝어는 그러한 정의를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경향은 어떤 종류의 기호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왔다"는 점에서 모든 방법과 모든 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¹⁷⁶ 2차 세계대전 이후 윌리엄 하우웰, 로버트 올리버, 존

¹⁷⁴ Elizabeth J. Tisdell, "Exploring Spirituality and culture in Adult and Higher Education", Jossey-Bass, 2003, 201

¹⁷⁵ Donald C. Braynt, "Rhetoric: Its Function and Scope", Quaterly Journal of Speech, 1953

¹⁷⁶ Cecil A Blake. "Rhetoric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 1979,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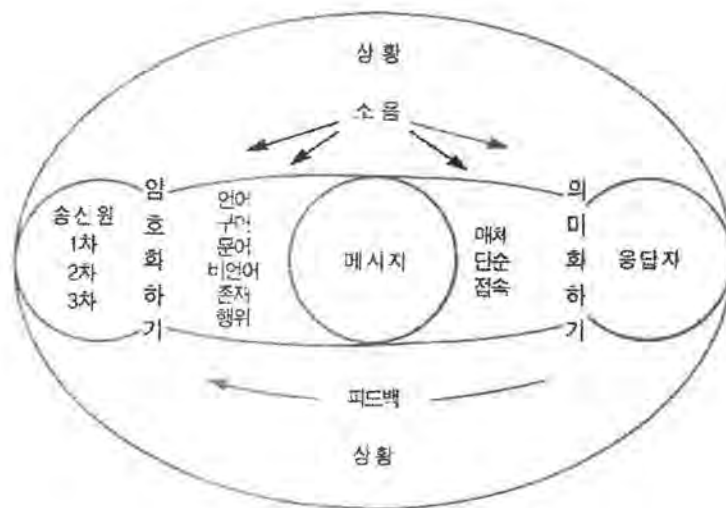
코던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자들은 수사학의 영역을 교차 문화의 영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론들을 잠시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통에 상관되는 세 가지 요소, 즉 화자, 언어, 청취자 간의 관계로 보았다. 이것은 모든 소통 이론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¹⁷⁷ 에릭 번(Eric Berne)의 게임 모델은 종종 경제 협상과 같은 식의 소통의 행위들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갈등, 전략, 목표, 점수, 득점, 실점등 게임과 같은 용어들로 기술된다. 하지만 가장 넓게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인공 지능 모델'로서 원거리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서 발전된 것이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¹⁷⁸란 용어는 노버트 위너가 만들어낸 것으로 인간의 신경계통과 전자 정보체제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위너의 연구에 근거하여, 클라우트 샤논과 워렌 위버는 송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 경로(channel), 암호(code), 암호화자(encoder), 의미화자(decoder), 소음(noise), 반응(feedback)의 요소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만들었다.¹⁷⁹

¹⁷⁷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번역: 강승삼, 생명의 말씀사, 1999, 37

¹⁷⁸ 인공두뇌학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체, 기계, 조직과 또 이들의 조합을 통해 통신과 제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¹⁷⁹ 이 논의는 Claude E Shannon, Warren Weaver 의 연구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Figure 1.1〉 커뮤니케이션 모델

예를 들어, 이러한 소통과정에서 하나님이 1 차 송신원이라면 바울은 2 차 송신원이고 디모데와 그의 제자들은 3 차 송신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선지자적 소명과 사도의 소명이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디모데가 2 차 송신원, 그의 제자들이 3 차 송신원이 되는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 송신원이 1 차인지, 2 차, 혹은 3 차인지의 문제는 정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적 계시’와 인간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일 것이다. 즉 복음의 메시지와 인간의 경험, 직관, 통찰력, 해석, 그리고 의견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만 한다.¹⁸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소통에 있어서 기본 원리도 송신원인 화자는 늘 응답자 혹은 청중의 자리에서 목적에 맞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폴스톡”의 지자 오스기니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리에서 충분히 동감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¹⁸⁰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번역: 강승삼, 생명의 말씀사, 1999, 41,

일은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에서 창의적 설득과 뜻밖의 전복의 가장 탁월한 예일 것이다. 게다가 결과까지 좋았으니 금상첨화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온전히 회복되었다.”¹⁸¹라고 예를 들면서 제자의 도와 변증이 분리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창의적 설득의 예술’을 강조한다.

Barlund 는 그의 책 “Communication in a Global Village,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ader”에서 문화가 서로 다른 교차문화의 환경에서 어떻게 의미를 주고 받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문화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통해 자체 목적을 표현하고 문화의 내용을 전달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그 활동을 지배하는 상징이나 법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문화의 모호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무지와 자문화적 오만을 드러낼 뿐이다. 현지인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인지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적 전제와 가치관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현지인들의 경험 세계 속에 들어갈 관문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다.”¹⁸²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려면 이민 1세부터 1,5세, 2세대 등 다양한 기간의 미국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목회자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려면 미국의 문화와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김민선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주의적 가치는 미국 사회의 특성이고, 따라서 그 가치가 인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자민족 중심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¹⁸³고 주장한다.

이민 교회안에 미국과 한국 문화의 교차문화 소통에 있어서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¹⁸¹ 오스 기니스, “폴스톡 Fool’s Talk: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설득의 예술”, 윤종석 옮김, 복있는 사람, 2016, 281

¹⁸² Dean Barlund, “Communication in a Global Village,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ader, 6th ed.”, New York: Wadsworth, 1997, p.24.

¹⁸³ 김민선, “인간 커뮤니케이션”, 번역: 범기수, 박기순, 우지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12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타문화의 사역 현장에 파송된 근본 목적은 그 교차문화 소용(커뮤니케이션)이 최고의 목회적 또한 선교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위임명령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하는가?” 라는 명제는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 교회 목회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선교적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선교사는 왜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의미에서, 헤켈그레이브는 그의 책 “선교 커뮤니케이션론”에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 없이 수신자인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교차 문화의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가 시작된 것도 불과 몇 십년 물론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서양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다문화와 열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불안, 주장, 논쟁, 관음 판리, 기만 전략, 침묵, 재요청하기, 허풍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분석은 여러 가지 중요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현상, 즉 정의하고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에서의 인간 파정에서 탐피해서 보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의 관점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자아개념으로만 보아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그러한 서양적 사고와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유능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독립적인 그러나 진민선은 그녀의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적 방법으로 소용해 나간 필요가 있다. 교차문화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론들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적인 대인 상호작용에서, 상호의존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있다. 헤셀그레이브는 교차 문화에서의 전도에 있어서 대상 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 구체적 소통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음대로 사는 ‘존재 전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선포 전도’, 복음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응답자들을 향해 강권하는 ‘설득 전도’를 제시한다. 이 셋 중에서 선교사의 전도 사역이란 기독교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단순히 말과 글로 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남녀가 회심하여 신실하고도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헤셀그레이브는 주장한다.¹⁸⁴

타문화권에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문화와 행동 방식을 존중해주고, 수신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설득자로서 성도들이 복음을 본질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인식하도록 권면함으로써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제시하여야 한다.

¹⁸⁴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99, 597-611

제 4 장 연구 조사 결과와 분석 (RESEARCH FINDING AND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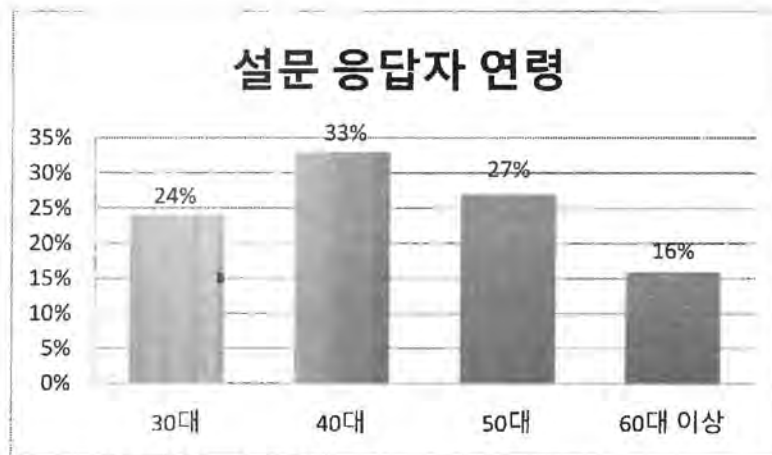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교차문화 상황에서, 한인이민교회의 교인들이 현재 교회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들이 느끼는 교회 교육의 효과와 영적 성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정량 연구(Quantitative Research)방법과 정성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병행하여 택하였다. 이 연구조사에서 필자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수집 및 분석, 해석 그리고 평가하였다. 조사 대상은 미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민 1 세와 이민 2 세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와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조사는 시카고 지역 4 개 교회에 76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부분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구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조사의 설문지는 표준 형식을 따라 본 연구 목적을 알리는 짧은 연구 목적 요약과 함께 29 개 항목의 질의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조사의 질문들은 간단한 서술형 답변하는 방식, 간단한 품목들을 주관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설문지는 연구 조사 과정 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 수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본 연구 조사에서 필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그 배경과 영적 변화와 성장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여 분석하려고 하였다. 설문지 외에도 10 명 정도의 목회자 및 선교사들과 각각 1 시간 정도씩 인터뷰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정성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실행하였고, 그 분석 결과들은 본 연구 논문에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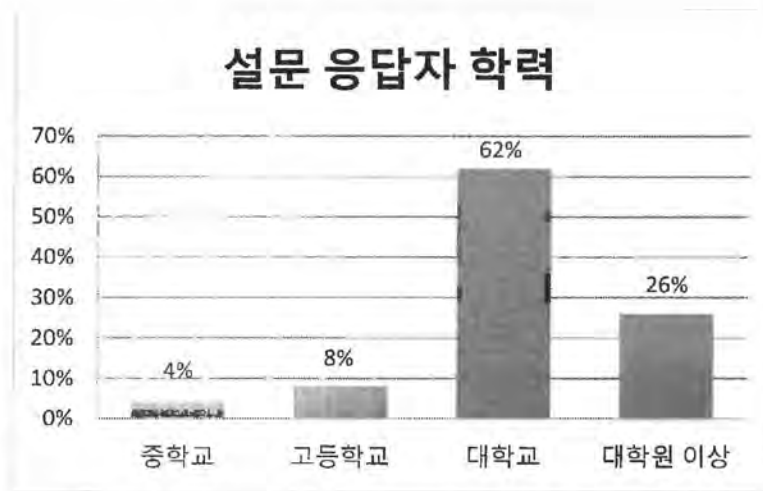
I. 설문응답자 구분(Respondent Property)

설문응답자의 나이, 성별, 학력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 분류로 30대 24%, 40대 33%, 50대 27%, 60대 이상 16%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54% 여성 46%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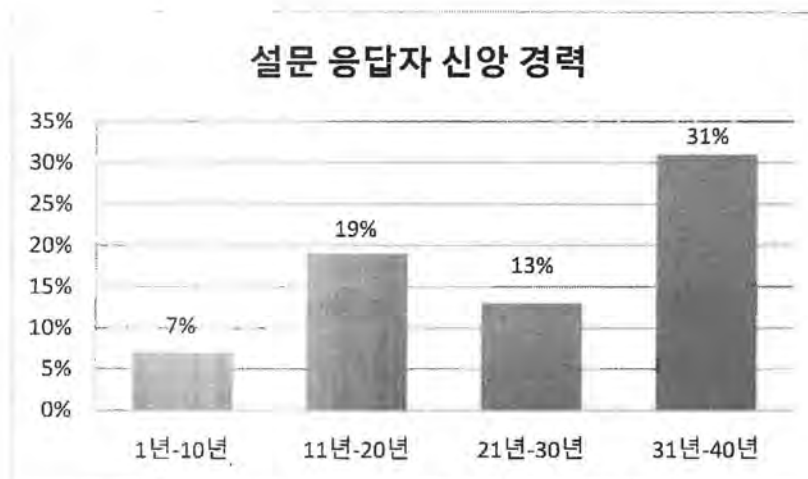
<Figure 12> 설문 응답자 연령

응답자의 최종 학력 분류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 4%, 고등학교 졸업 8%, 대학교 졸업 62%, 대학원 이상 26%로 나타나 8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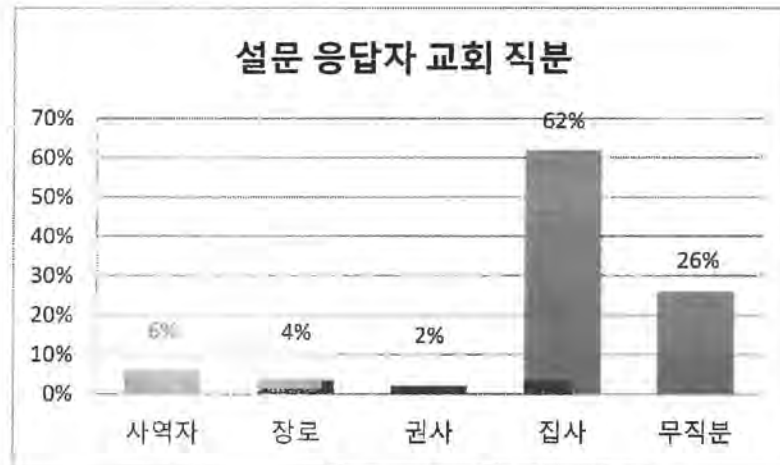
<Figure 13> 설문 응답자 학력

교회에 출석한 기간으로 통계를 산출한 “신앙 경력” 은 1 년에서 10 년까지의 초신자 7%, 11 년에서 20 년출석자가 19%, 21 년에서 30 년 출석자는 13%, 31 년에서 40 년 출석자가 31%, 31 년에서 40 년 출석자가 31% 으로 나타나 30 년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2%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연령별 분석에서 30 대 이상이 73%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30 년 이상 교회에 출석이 62% 의 통계를 감안하면 전체 응답자중에서 30 대 이상으로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은 불과 11%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4> 설문 응답자 신앙 경력

응답자들의 교회 안에서 직분은 목사·전도사·간사·사모등의 사역자가 6%, 장로 4%, 권사 2%, 집사가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직분 또는 기타는 26%로 집계되었다. 집사와 무직분 또는 기타의 합계는 88%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15> 설문 응답자 교회 직분

II. 조사 분석 (RESEARCH ANALYSIS)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되는 질문들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며, 그 설문조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 이민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 교육이 필요한지 결과들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서 미국 이민 교회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석되는 교회 교육의 신학적 접근과 적용과 교육학적 접근과 적용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과 적용들, 선교학적 접근과 적용들, 마지막으로 목회 상담학적 접근과 적용들을 논술할 것이다.

A.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교회 교육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응답자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가?” 라는 미래적 희망의 질문과 또한 “현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영적 성장의 본질에 관한 자가 진단 질문들이 질문 6 번과 7 번이다.

“영적으로 변화 받고 성장하고 싶은가” 라는 미래적 질문에 82.7%의 압도적인 비율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라는 영적 변화와 성장을 희망하는 답변을 하였다. 반면 “현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자가 진단 질문에는 37%의 응답자가 “중립” 31%의 응답자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 오직 23%의 응답자만이 “매우 그렇다” 에 답을 하여서 많은 응답자들이 영적 변화와 성장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만큼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54%의 응답자들이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에 대답함으로써 현재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과반수의 응답자만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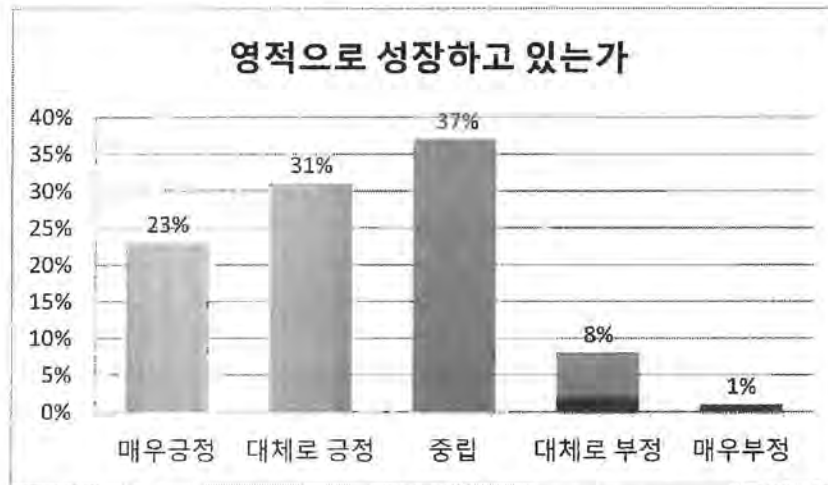


Figure 16>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응답자들의 영적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영적 변화의 요인들은 다소 피상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 중복되거나 겹칠 수 있고, 성장을 일으키는 영적 경험들이 단회적일 수도 있고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은 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지·정·의 구분 외에도 사회, 윤리, 심리적 요인들이 있고, 인식, 신념, 철학¹⁸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영향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 주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예배·설교 24%, 찬양 7%, 성경공부 33%, 영적 교제 8%, 전도 및 선교 훈련 3%, 제자 훈련 1%, 기도 4%, 큐티 6%, 고통과 환란 13%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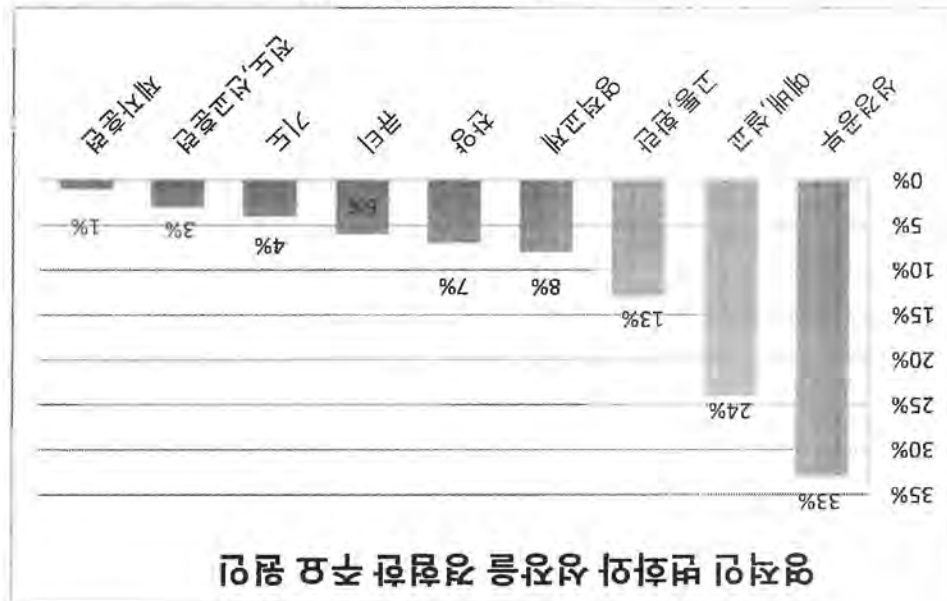
¹⁸⁵ Bryan Byung Joo Kim, "CORRELATION BETWEEN TRANSFORMATIVE LEARNING AND CULTURAL CONTEXT: A CASE STUDY OF ADULT PARTICIPANTS IN A KOREAN AMERICAN IMMIGRANT CONGREGATION" A DISSERTATION, 2011, 69p

하겠다.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정장을 위해서 참여하고 싶은 교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역시 성경공부로 3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도 및 영성 훈련이 16%, 큐티 12%, 찬양 10%, 은사 개발 8, 제자 훈련 7%, 선교 및 전도 훈련 6%, 리더십 훈련 5%의 순서로 나타났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적 변화와 성장의 가장 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들이 선교와 성경 공부 등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이유를 합치면 57%에 응답자가 성경 공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하였다. 한가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는 선교, 성경 공부 다음 세번째로 많은 13%의 응답자가 “어려움과 고난” 이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독의 시간들을 지낼 것이며, 어떻게 그 상황을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지를 적용부분에서 다루도록

Figure 17 > 영적 성장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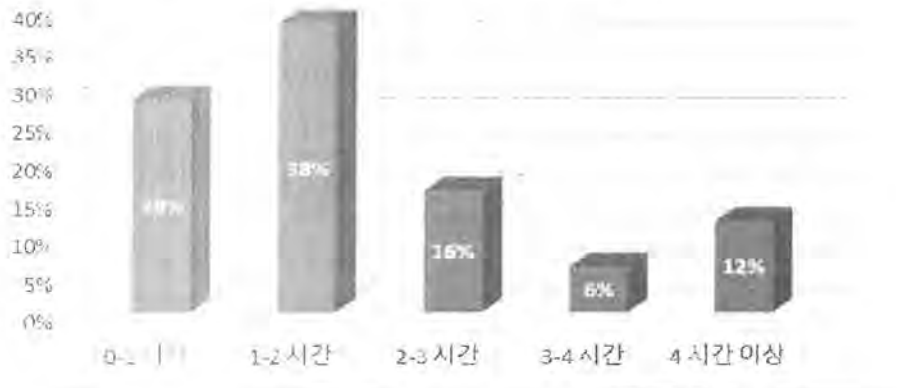


<Table 1> 교회 교육과 참여

교회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프로그램	현재 참여중인 프로그램
제자훈련(Discipleship)	7%	0%
기도모임/훈련(Prayer Meeting/Training)	15%	16%
큐티(Q.T)	12%	12%
성경공부(Bible Study)	36%	61%
은사 계발(Development Spiritual Gifts)	8%	0%
리더십 훈련(Leadership Training)	5%	2%
신앙 상담(Counseling)	10%	4%
선교 및 전도훈련(Mission/Evangelism)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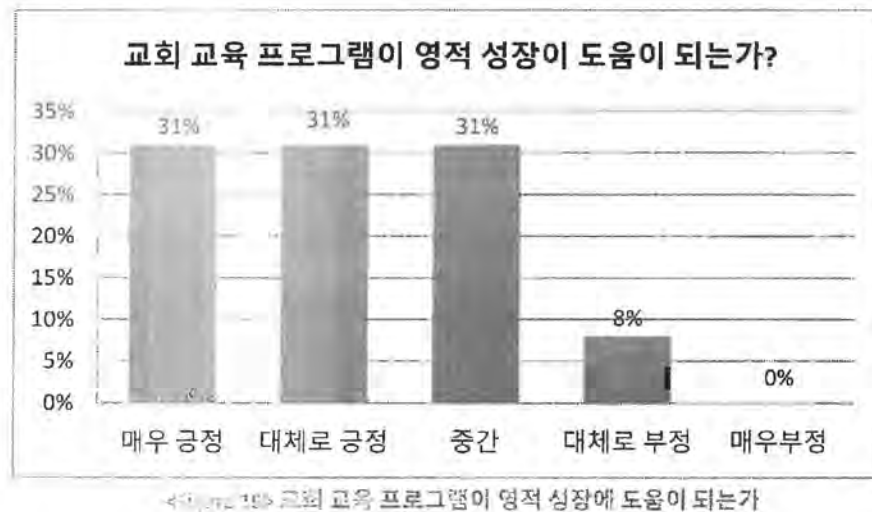
설문지 11 번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훈련을 위해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시간 수치로 알아보았다. 결과는 1 시간 이내 28%, 1-2 시간 38%, 2-3 시간 16%, 3-4 시간 6%, 4 시간 이상 12%등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3 시간이 총 44%였고 4 시간 이상 영적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교인도 12%나 되어 3-4 시간을 사용하는 6%의 2 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영적 훈련을 위한 주간 시간 사용



<Figure 18> 영적 훈련을 위한 주간 시간 사용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의 여러가지 교육 즉, 설교, 성경공부, 기도, 제자훈련등이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 31%, 대체로 긍정 31%, 중간 31%, 대체로 부정 8%, 매우 부정 0%로 62%의 응답자들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영적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하였다.



B. 영적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과 디딤돌

필자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무엇이 방해 요소가 되는지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방해요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관적인 각자의 생각을 기술하도록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목회자의 상황화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또한 반대로 그 영적인 걸림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간단하게 주관적인 입장을 기록 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매체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기술하게 함으로서 그 영적 디딤돌을 찾아보았다.

우선 영적 성장에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질문의 의도는 이인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들과 교회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중에서

교회 교육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도출됨으로 인해서 본

논문에서 처음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결론지어야 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질문의 답은 응답자 각자가 주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답들이 도출되었다. 그 다양한 응답들을 비슷한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야만 했고, 그들을 종합하여 통계를 내는 과정들을 거쳤다. 영적 성장의 결실들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게으름 23%,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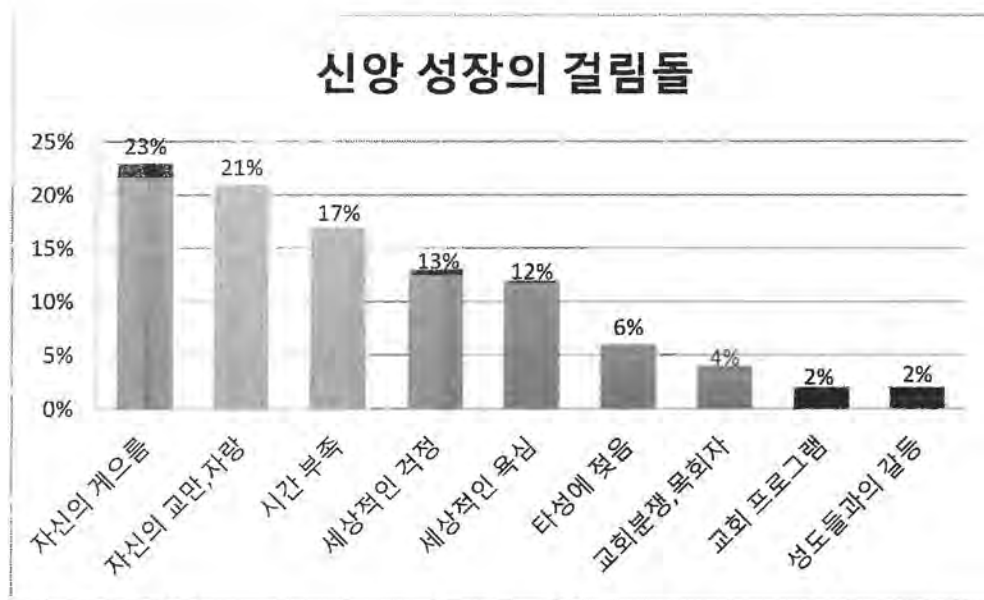
교만과 자만 등으로 필요성 부족함을 느끼지 못함 등이 21%, 세 번째로 바쁜

이민생활과 가정생활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정도들이 17%, 네

번째 순위는 세상적인 걱정 염려 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13%, 그 다음은 세상 문화와 세상적인 욕심 등 12%,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영적 성장을 막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등으로 나타났다.



<Figure 20> 신앙 성장의 걸림돌

항목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가장 많은 6 개 항목에 총 9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나머지 8%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적 요인들이 매우 작은 부분들로 나타났는데, 교회의 분쟁 혹은 목회자의 문제가 4%, 교회 성경공부 혹은 영성 프로그램의 부족의 문제가 2%,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 관계 2%등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이민자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과 “목회자가 이민자의 삶(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역(설교, 심방)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리커트 척도(매우 부정 1 - 2 - 3 - 4 - 5 매우긍정)로 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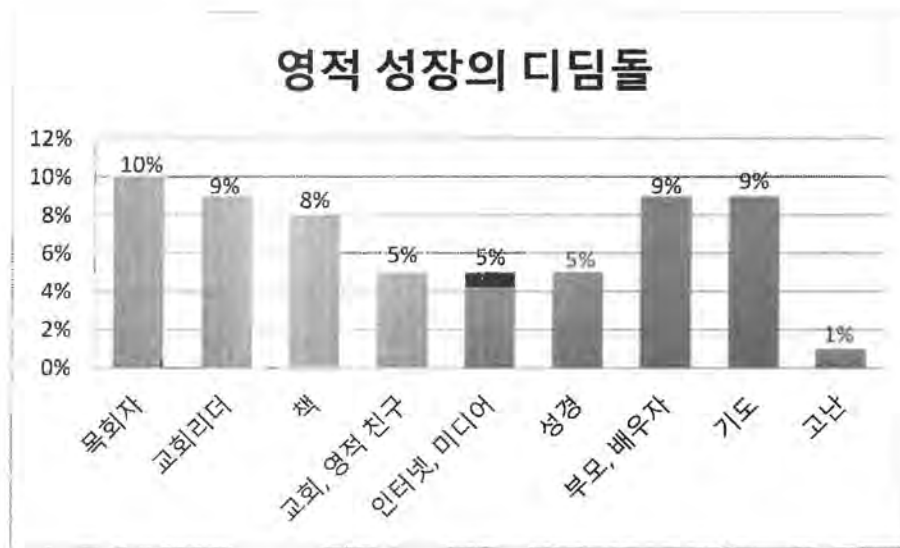
Table 2> 목회자의 상황화와 성도의 영적 성장의 관계

	출석교회 목회자의 상황화(이민자)	목회자 상황화와 성도의 영적성장 관계
5	18%	47%
4	30%	35%
3	30%	15%
2	20%	3%
1	1%	1%

조사 결과 목회자가 얼마나 이민자의 상황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의 상황화 정도가 성도의 영적 성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중 매우 매우 그렇다 47%, 대체로 그렇다 35%로 전체 응답자의 82%가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회자가 얼마나 이민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설교나 성경 공부, 기도와 영성훈련등을 상황에 맞게 훈련해 나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전달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이민 교회의 목회자가 얼마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매우 긍정이 불과 18%에 그쳐서 관계성에서의 47%와는 29%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표 Figure9 를 참고하면 그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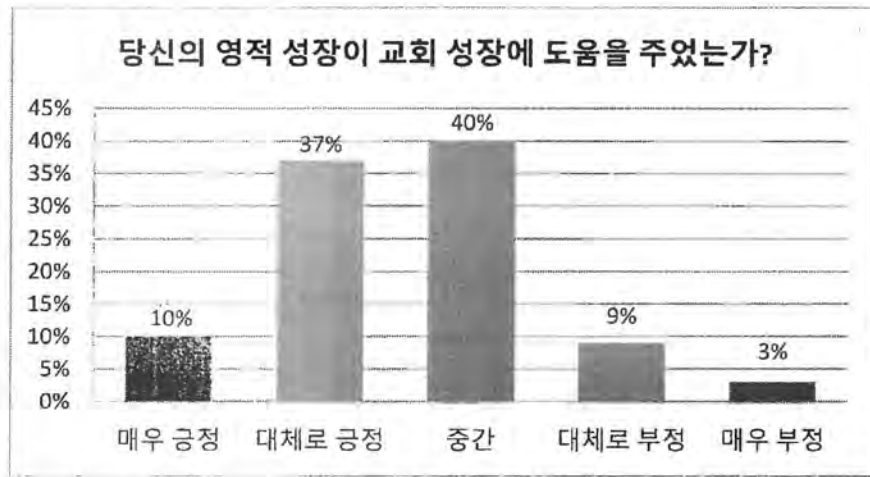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매체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질문으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매체는 무엇입니까? (예: 목회자, 교회 리더, 친구, 책, 인터넷-미디어, none)” 으로 구체적인 답을 직접 나열하도록 하였다. 목회자 1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교회 리더 9%, 책 9%, 교회 또는 영적 친구 8%, 인터넷 혹은 미디어 5%, 성경 5%, 부모나 배우자 3%, 기도 1%, 고난 1%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아래 도표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21> 영적 성장의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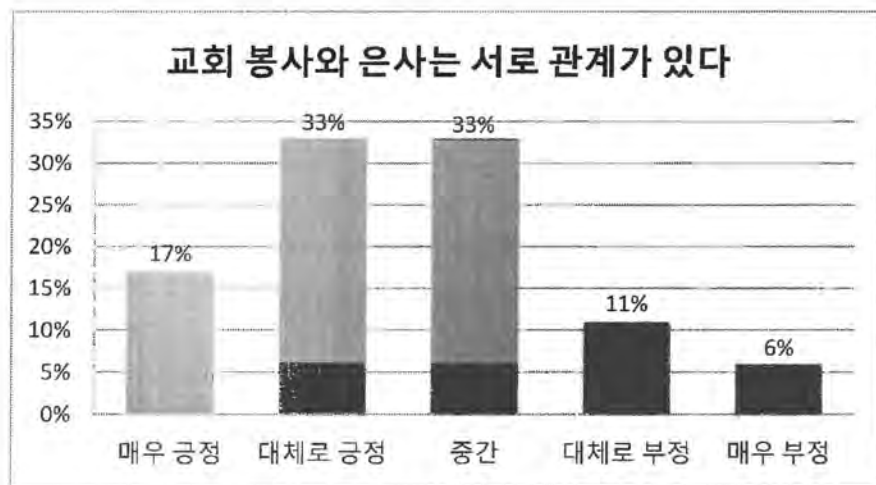
C. 영적 성장과 현재 신앙 생활 (Transformed life)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확인하고 수치화하려고 하였다. 첫 번째 그 질문에서는 “당신의 영적 성장이 교회(공동체) 성장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는 매우긍정 10%, 대체로 긍정 37%, 중간 40%, 대체로 부정 9%, 매우 부정 3%로 나타났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체로 긍정하는 응답자가 37%가 되었다. 매우 긍정과 대체로 긍정을 합치면 약 절반에 가까운 47%가 본인의 영적 성장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Figure 22> 당신의 영적 성장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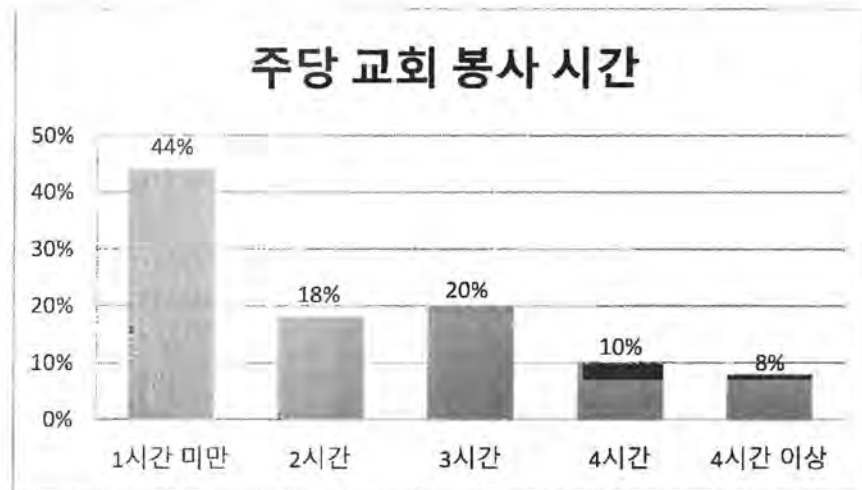
“현재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역이 당신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매우 긍정 17%, 대체로 긍정 33%, 중간 33%, 대체로 부정 11%, 매우 부정 6% 등으로 나타나서 전체 50%가 매우 긍정이나 대체로 긍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체로 부정과 매우 부정은 전체 응답자의 17% 정도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Figure 23> 교회 봉사와 은사는 서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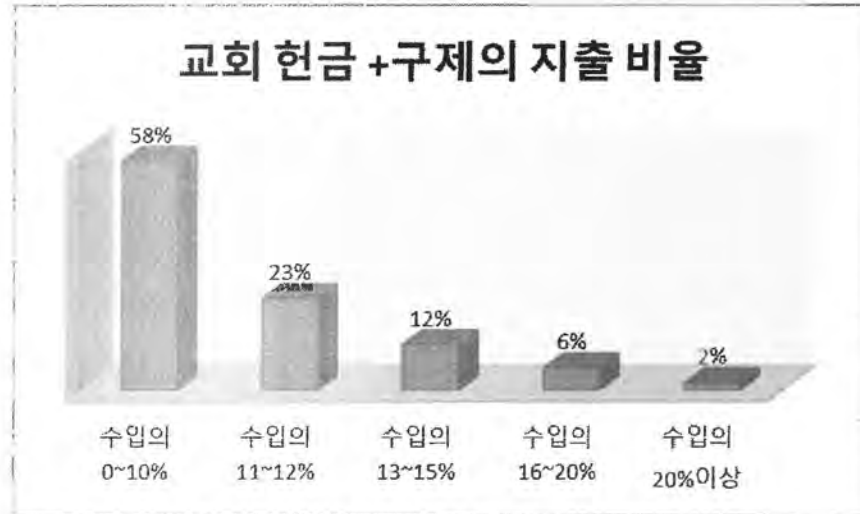
아래 몇 가지 질문에서는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시간과 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수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아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전체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주어진 연구 시간과 응답자에게 주어진 질문의 한계성이 있음을 밝힌다. 설문지 19 번 문항에서 “현재 교회에 봉사(커뮤니티봉사, 전도, 선교활동등 포함)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고 있나요?” 의 질문에서, “1 시간을 봉사한다” 가 44%, “1 시간에서 2 시간 봉사한다” 가 18%, “2 시간에서 3 시간 봉사 한다” 가 20%, “3 시간에서 4 시간 봉사 한다” 가 10%, “4 시간 이상 봉사한다” 가 8%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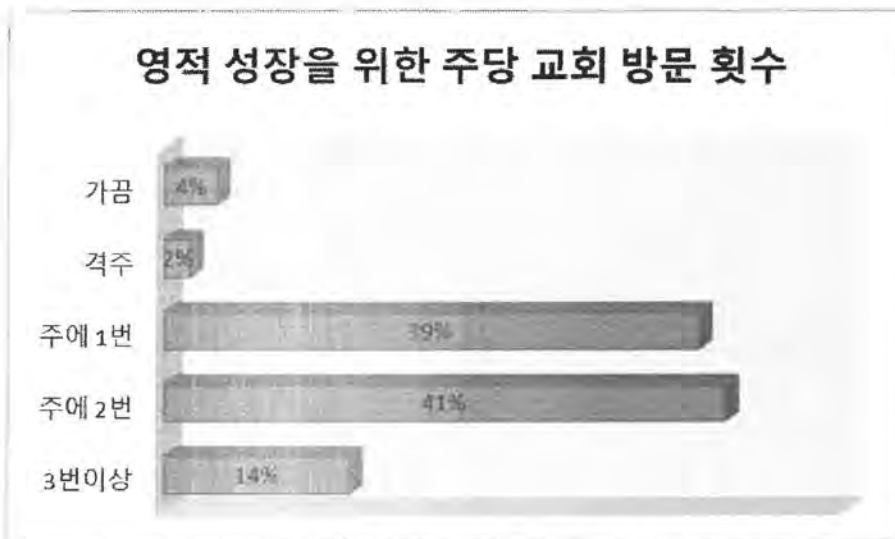
<Figure 24> 주당 교회 봉사 시간

현재 교회헌금(십일조, 선교헌금포함)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당신이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당신의 수입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Figure 25> 교회 헌금 + 구제의 지출 비율(총 수입에 대한)

예배, 성경공부, 셀모임, 기타훈련등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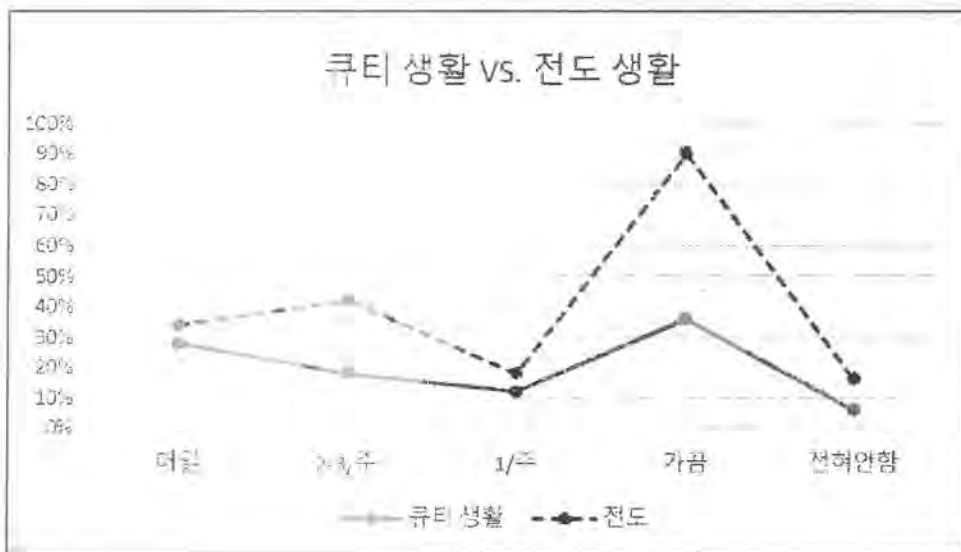


<Figure 26> 영적 성장을 위한 주당 교회 방문 횟수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합니까?” 라는 두개 항목의 질문은 영적 성장이 현재 신앙의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 수치로 일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영적 성장을 위한 큐티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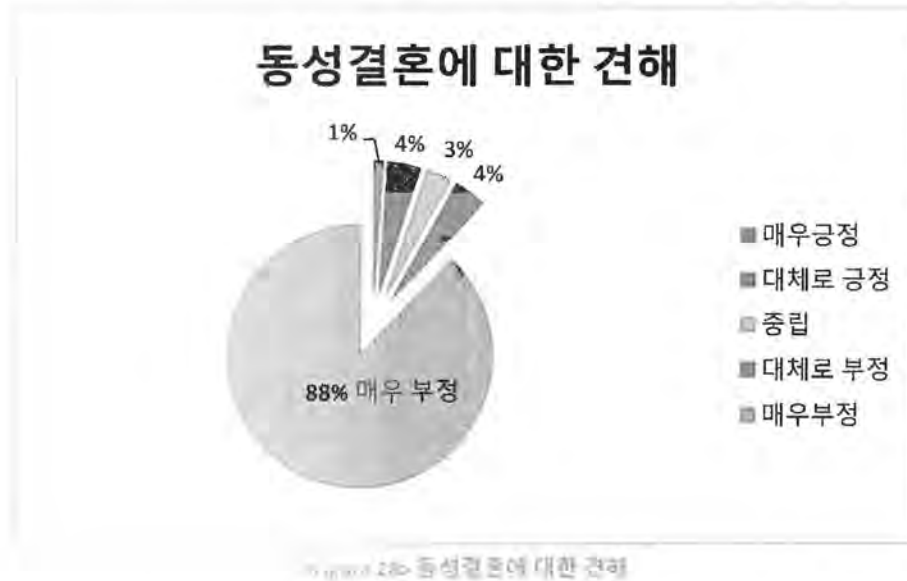
	큐티 생활	전도
매일	28%	6%
2-3/주	18%	24%
1/주	12%	6%
가끔	36%	54%
전혀안함	6%	10%



<Figure 27> 큐티 생활 vs 전도 생활

“당신은 동성연애 혹은 동성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 질문에 매우 긍정 1%, 대체로 긍정 4%, 중립 3%, 2. 대체로 부정 4%, 매우 부정 88% 으로 집계되어 “매우 부정” 과 “대체로 부정” 에 전체 92%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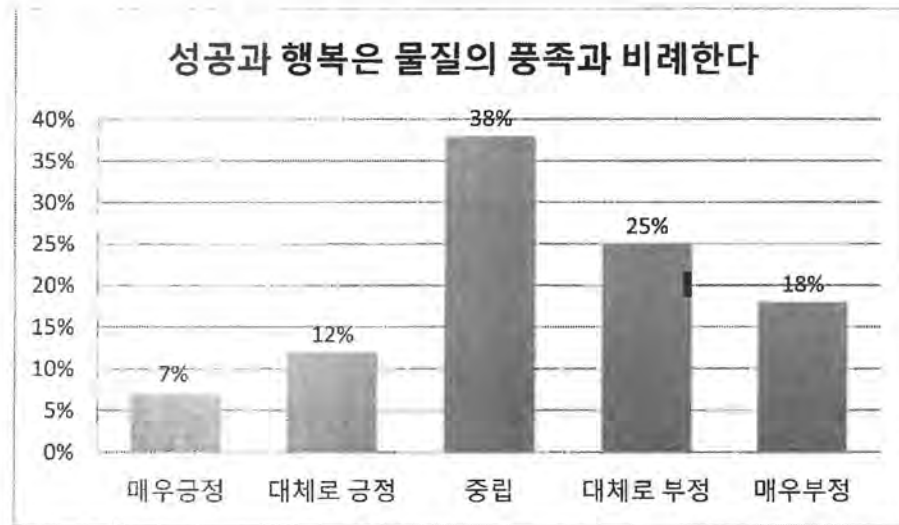
차지함으로써 한인 사회 교회에서는 동성연애 혹은 동성 결혼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를 단답식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를 분류하고 종합한 결과는 “비성경적이어서” 라고 대답한 성도가 전체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됨으로”, “접리에 위배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므로” 라고 답한 응답자가 40% 로 두번째 많은 답이었다. 나머지는 “동성연애는 정신병이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비정상이다.” 등의 대답이 전체 7%를 차지 했고, “성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요구되는 개인적 선택” 이라고 답한 사람도 2%를 차지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혹은 “행복한” 삶과 물질 풍족은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3 - 4 - 5 매우긍정)” 라는 질문을 통해서 과연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매우

긍정 7%, 대체로 긍정 12%, 중립 38%, 대체로 부정 25%, 매우 부정 18% 으로
 답하였다. “성공 혹은 행복한” 삶이 물질적 축복과 비례의 관계를 합계를 비교하면
 긍정:부정이 19%:43%로 나타나서 비례하지 않는 부정의 입장을 가진 응답자가 두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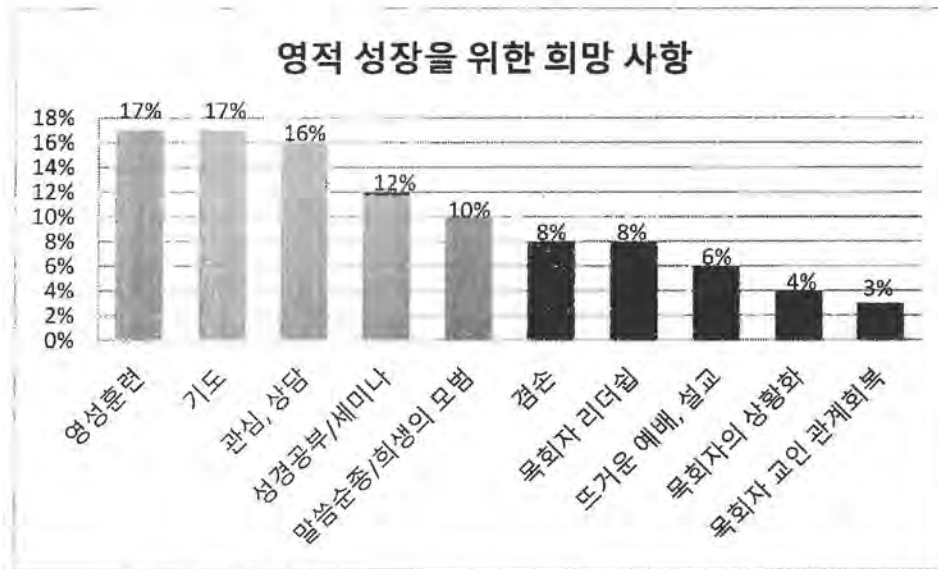


<Figure 23> 성공과 행복은 물질의 풍족과 비례한다

마지막 질문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나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답식)” 을 물어보았다. 응답자 각자의 주관적인 답들을 비슷한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계를 하였고 합계 순으로 정리한 결과는 Table4 와 같다.

<Table 4>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목회자에게 바라는 사항

영성훈련	17%
기도	17%
관심, 상담	16%
성경공부/세미나	12%
말씀순종/희생의 모범	10%
겸손	8%
목회자 리더쉽	8%
뜨거운 예배, 설교	6%
목회자의 상황화	4%
목회자 교인 관계회복	3%



<Figure 30> 영적 성장을 위한 희망 사항

마지막 질문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12%로 집계된 성경공부와 세미나 보다도 문화가 다르고 감성적으로 배마를 수 밖에 없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17%의 응답자가 대답한 것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지식위주의 목회를 하지 말고, 영혼 구원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목회자와 리더십 자체의 영적 부흥" 과 "성령 충만"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적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영성이 깊은 말씀을 듣고 싶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를 소망한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교회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말씀과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간증하는 훈련이 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 한다고 대답하다.

두 번째, 첫 번째와 동일한 17%의 응답자가 교회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영적 회복" 하도록 하고, "성도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며", 기도로 "성령충만" 하며,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 으로 "하나님과 더욱 소통" 하며 "성도들이 부족하더라도 이해와 사랑과 인내로 기도"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하고, 성도들도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싶다" 는 의견들이 있었다.

세 번째, 16%의 응답자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알고자 노력" 하여야 하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 또한 "성도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잘 파악하고", "모든 성도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개개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운 일로 스스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영적, 육적 안위를 궁금해하며 점검해 주기 바란다",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심방이나 전화상담등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를 바라고, "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과 관심을" 가지며 "성도들과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 를 요구하고 있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그저 두 세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지만 많은 이민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은 30 명이 되지 않는
 교회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해와 이해, 성도들의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회복 시켜줄 신앙 상담이 한국의
 미국 이민 교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폭넓은
 지배력적인 미국에 이민와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적응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있는
 보다는 집단 중심적 이고 고백력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한 것들은 교인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이라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미국 이민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 이해와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가르침이라고 단했다. 즉 성도의 영적 상태에 대한 관심과 성도와 하나님 관계에
 응답자 중에 한 명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도와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롭고 각박한 이민자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대한 관심과 사랑을 원하며 심방이나 개인적인 만남, 혹은 신앙 상담등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성도를 개개인에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성도를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목회자와 리더들이 자신들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자신들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리더들의 영적인 훈련과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영성 있는 철교와 가르침과 훈련으로
 대표적인 세가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목회자와 교회에 요구한 내용의

에클레시아(ekklesia)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으며, 이 공동체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열 두 제자들을 "부르사" 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한 백성은 세계를 위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19:6)"는 카함공동체의 역할을 제정하는 말씀이다, 제사장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¹⁸⁶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 열방에 대한 여호와와 소유권으로 구분하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모아(카함, qaham) 시내산에서 되는 것(렘 3:19)"이다.

것이다(골 1:1; 2:9). 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증만하신 것으로 증만하게 하시는(렘 1:23)"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서 그 명령은 최고의 성취를 하게 될 '땅에 증만하라'는 축복이자 명령을 받는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증만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A. 변화를 이끄는 신학적인 접근

III.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적용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자유하며, 변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적용을 다음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민 교회의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천임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상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가정교회들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것을 현실을 보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¹⁸⁷라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심으로 교회는 출발하였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뜻을 품고 계신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견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띠어 가야 한다.”¹⁸⁸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전적인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 신앙시대의 초기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과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열방의 민족을 “부르고”, “증만케” 하기 위하여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도와 선교의 대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하여 빌립보, 테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다. 세상을 향한 바울의 복음의 선언은 온 아시아와

마게도나지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외적인 종교탄압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들을 통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생겨났다. 이같은 신앙의 교회 영적 성장은 철저한 복음의 선언과 성령의 역사가 그 근저의 근거였음을 알 수 있다. 성령의 본체적인 사역이 교회 영적 성장 과정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교회 영적 성장은 성령의 사역에

기초한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역하여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성장케 할 수

있었다.(행 8:26-40, 13:2-4, 15:36-41, 16:6-10) 그는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였으며 (고후 5:19-20), 결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굳게

¹⁸⁷ 개역개정, 마 16 장 18 절

¹⁸⁸ 마이클 로런스, “목회와 성경신학”, 공역인 옮김, 부흥과 개혁사, 2011, 414

하였다(행 14:21-22, 15:41 20:30).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반드시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위임하고 떠났으며(행 14:23; 20:17-38), 세워진 현지교회에 경제적인 후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고후 9:6-9) 돌봄 사역으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성장케 한 바울의 신학을 보면, 그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자의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성장은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골 1:9),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게(골 1:10)”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골 2:19) 자란다는 교회들을 향한 그의 서신에서 교회 성장의 신학이 잘 보여진다.

맥가브란의 중부 인도의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교회의 중심임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모임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가브란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과 그의 증거의 패턴과 섬김, 선교와 전도의 팽창이 모든 인류 속에서 그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느린 성장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병이다” 라고 말한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이라는 사명에 대해 구약, 신약, 바울의 신학과 맥가브란의 관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회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감당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중들 집단을 목표 삼아서 “토착교회들이 자생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권하며, 단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개종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목표로”¹⁸⁹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진실로 그의 교회가 구원받은 자로 차서 넘치는 부흥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숫자가 더해지는 목표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양적인 면이 전부는 아니다. 교회의 총체적인 임무는 전도와 교회 조직과 교육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도 성장해야 한다.

1) 이민교회의 역할

미주에 있는 한인 이민 사회에 있어서 이민교회의 역할과 목적은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의 토마스 스톨터 교수는 “교회 개척과 성장” 과목의 노트에서 “The nature of the church, 교회의 본질”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 경우, 모든 인류의 영원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우주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에 관한 진리이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진리는 전달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아야 한다.”¹⁹⁰

¹⁸⁹ 간하배, “교회성장신학”, 성광문화사, 1994, 197-240

¹⁹⁰ 탐 스톨터, “교회 개척과 성장/ OPG Course Document Four : Growing churches are turned outward in mission to the community and world. 성장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16, 13

미국 이민이라는 교차문화의 상황에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변함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교회의 영적 성장은 성령의 사역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경영이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현재 한인들은 전세계 170 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한인들이 세계 구석 구석에 살고 있는 것은 27,436 명의 한인기독교 선교사들이¹⁹¹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교회를 성장시켜왔고, 그러한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인 이민교회들이 세워졌고 한인 이민교회의 모임이 성장해서 한인회가 조직 되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건립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듯이, 세계 방방곡곡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성장시키며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왔다. 그렇게 한인 이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설립되어 왔고, 한인들의 이민사와 이민 교회사는 함께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주 이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민 초창기 한인 이민 교회의 역할은 교회 성장은 물론이고, 이민자들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나라의 위기가 있던 일제치하의 기간에는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등이 독립운동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이민 교회가 감당하였다. 이와 같이 이민 교회는 민족적, 사회적, 교육적인 역할등을 다양하게 감당해왔다.

현재 미주 지역에는 약 4,500 개의 한인 이민 교회들이 있다. 그 많은 수의 교회만큼이나 이민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들도 이민 교회안에 존재해왔고,

¹⁹¹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493>, 2017 년 12 월말 현재 한국 선교사 파송 수는 170 개국 27,436 명으로 전년 대비 231 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가 나뉘어지는 사례도 종종 보게된다. 교회를 통해서 이민 생활의 아픔을 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과 개인의 치유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 더 없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위대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야말로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별히 교차문화 상황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민 교회의 역할은 이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의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내적 치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 안에 모든 내적 치유와 회복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이민 교회가 전해야 할 참된 복음의 본질이자 역할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 말씀을 통한 상처 치유의 부족, 건강한 리더십의 부재, 강력한 말씀 사역등의 “교회 역할”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내 총 4454 개 한인 이민 교회¹⁹²에 대다수가 100 명이 넘지 못하는 소형 교회이고, 이러한 대다수의 소형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은 개척 이민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일주일 내내 법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학교로, Social Worker 처럼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정작 목회자의 본분인 말씀 사역에 지쳐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치유와 영적 성장사역과 건강한 리더십의 양육등은 요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¹⁹²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2>, 미주 한인 교계 언론 <크리스찬투데이>는 2018 년 1 월 21 일 미국 내 한인 교회가 총 4454 개로, 323 명당 1 개꼴로 교회가 있다고 보도했다.

통한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목회자는 점점 더 비본질적인 사역에 매어 달리게 되고 지쳐가게 된다.

또 하나의 이민 교회에서의 교회 역할은 영적 유산을 1.5 세와 2 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요즘 이민교회의 화두가 “다음 세대” 이다. 하지만 트리니티, 풀러, 콜든코넬신학교 재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유학생은 많지만 한인 2 세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요즘 모든 이민 교회들은 청소년들과 유년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를 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다음 세대 인도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놓치면 이민교회의 맥이 끊어지고 영성이 이어지지 않는다.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는 말이 있다. 다음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성장은 일세들에게서 멈추고 말 것이며 나아가서는 쇠퇴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세대를 영적으로 잘 키우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 희생과 대가를 감당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한인 이민교회들은 한국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급감하면서, 이민교회내의 평신도 지도력은 1 세에서 2 세가 아니라 1.5 세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5 세의 특징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이다. 성경을 보면, 유대 디아스포라 중에서 이중언어와 이중 문화를 가진 1.5 세와 2 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다. 요셉, 다니엘, 모세, 에스더, 느헤미야, 예수, 마나바, 디모데등 많은 성경인물들이 역사가 어려울 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한인 1.5 세와 2 세들이 이민환경에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앞으로 한인 이민 교회의 성장이라는 자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다.

현재로서는 한인교회의 지도력이 1.5 세로 넘어가는 초기단계라 그 역할에 있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필자는 30 년전 미국으로 유학왔고 첫 사역으로

3-4 년을 청소년 영어권을 사역하다가, 지금은 1.5 세 중심과 1 세대를 목회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를 다 경험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목회의 현장에서 기성 이민세대, 청소년, 어린이등 세대별 특징을 보면, 1 세대는 열정과 헌신이 있고, 2 세대는 머리가 있고, 1.5 세대는 두 가지를 모두 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세대간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은사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하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은 미국이라는 다양하고 색다른 다 문화권에 거주하며,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미국의 문화권 아래 자라나온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의 상황안에 놓여있다. 이러한 다른 문화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맥가브란은 “특수 집회를 만드는데 동질 집단을 분명히 특성화하여 특성을 규정한 후에는 그것이 토착화 되기까지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동질 집단이 분명해지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그 종류의 사람들을 끌게 된다는 것이다. 혼합된 무리를 많이 갖는 것보다는 동질 집단을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는 교회성장의 중요한 원칙이다. 맥가브란 박사는 “많은 계층의 무리가 모인다면 자체 내에 배타적인 것이 생기며 각자 그들의 특성을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쳐지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결단만이 아니다. 만일 동질 집단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집회를 형성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첫째로는 교회가 약화되며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고 분열된다. 둘째로는 모임에 초대 받는 것을 그들의 형제와 떠나서 우리와 합하자는 소리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모임의 성장을 막게 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동질집단을 인정하고 토착화하고 동질 집단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의 역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 선교와 전도일 것이다.

사도행전 2:42 에서 초대교회들은 가르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씨로
형성되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확대된 제자들의 교제가 묘사될 때 오순절
이야기가 선교적 문맥 속에 나온다. “교회는 선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흠어진 단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한번 흠어진
양떼로 보는 교회의 성경적 차원을 재파악해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해외에
흠어질 열두지파¹⁹³로서 그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하도록¹⁹⁴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이민자들은 아브라함의 종족으로서 약속의 땅에 외국인처럼¹⁹⁵ 장막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으로 광야가 과수원으로 변한 것을 보며¹⁹⁶, 하나님의 종말론적
곡식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있어서, 그 중심된 목표는 그저 세계 지향적이거나
교회 지향적이 아니라 우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지향적이며 그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에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내산에서
형성하시고 그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셨고¹⁹⁷, 그는 지금도 계속 그런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형성하신다¹⁹⁸

2) 이민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와 성도의 성장의 비전

¹⁹³개정개역, 야고보서 1:1; 베드로전서 1:1

¹⁹⁴ Ibid, 누가복음 24:47

¹⁹⁵ Ibid, 히브리서 11:9

¹⁹⁶ Ibid, 이사야 35:7

¹⁹⁷ Ibid, 출애굽기 19:6-7

¹⁹⁸ Ibid, 베드로전서 2:9

선교 경험을 가지고 이민 목회까지 했던 정인수목사는 이민 교회의 비전과 부흥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나는 지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부흥의 하나님도 경험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세계관과 목회관에 변혁이 일어났다.”¹⁹⁹라고 고백한다.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목사자 자신이나 리더십의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부흥과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

톰 스테펜은 그의 저서 “Passing the Baton”을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교회의 영적 성장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나 이민 목회자들에게 두가지 배울 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교회 성장시키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⁰ 물론 아무 생각이나 계획도 없이 교회를 사역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자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고 철수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단계별로 계획하고 연구하고 실행하였던 사례들을 나열하며, 선교지 상황에서의 교회 사역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자신이 끝까지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운영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위한 ‘이양’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미주에 한인교회와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 설립의 어려움이 아니고 바로 올바른 시기와 올바른 지도자에게 ‘이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프랭크 바이올라는 “교회는 그리스도 주위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교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확장된 가족이다. 우리는

¹⁹⁹ 정인수,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두라노서원, 2016, 56

²⁰⁰ Tom A. Steffen, “Passing the Baton”, Center for Organizational & ministry Development, 2010

공동체를 위해 디자인 된 것이다.”²⁰¹라며 제도나 계획보다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작지만 유기적인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교회의 사역과 같은 공동 목적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기 위한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교육을 위한 계획, 그리고 자세한 시행들과 유기적인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계획과 새로운 비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 한다.

3)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훈련을 위한 동역자 발굴과 훈련

예수님은 12 제자를 크리스천 공동체들을 시작하셨고, 그들을 사도로 훈련시키셨다. 기도, 섬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병 고침, 공물을 베푸는 것, 질문하는 법,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경험이었다. 갈릴리에서의 경험은 12 제자를 위한 현장 실습과 사역을 위한 훈련이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성도들을 섬김과 청지기의 역할과 영적 리더십을 배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후에 각 제자들은 교회를 시역하고 섬기고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가진 동역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훈련 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민이라는 타문화권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 개발이 필요하고, 영적인 영향력의 상호 도전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 영적 재생산의 자리까지 세워져야 한다. 동역자가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²⁰¹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이남하 옮김, 2010, 도서출판 대장간, 237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서 시너지(Synergy) 효과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하나를 할 수 있다면 열 사람은 열이 아닌 백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영적 리더로 세워지도록 지도력과 책임을 부여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며 그 비전을 동역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나누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단계로 동역자들 찾고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여하는 공동체의 전통, 역사, 사회적 양식을 존중하며, 목회자가 가진 비전을 동역자들에게 의미있게 전달하고 공유해야 하며, 그 동역자들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4)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유기적인 가정교회

피터 왜그너가 말했듯이 “하늘 아래서 유일하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²⁰² 교회 개척은 가장 확실한 복음전도의 방법이다. 그러나 교회개척 후에 그 교회안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교차문화 상황아래 놓여있는 이민사회에서 올바른 교회 개척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의 대상이 한인들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 문화권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이라 할 수 있다.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는 주님의 유기체적인 몸으로 그 특징은 생동감 있게 성장해야 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기능을 균형 있게 감당해 가야 한다.

²⁰² C.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Regal Books, 1990, 11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미국 이민 교회에 필요한 교회는 그러한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그 유기적 교회 안에 유기적인 지체들은 주님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산 돌들이다. 그 돌들이 함께 지어지려면 잘리고, 깨지고, 갈리고, 깎이는 작업을 수도 없이 거쳐야 한다. 우리가 그룹 안에서 어려움에 부딪칠 때 이런 심오한 덕이 쌓여가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오래 건디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유기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이 매우 더딜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 교회 리더와 목회자들은 그룹의 진보를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 열 달이 걸렸다. 그 열 달 동안 우리의 어머니는 통증, 입덧, 불편한 자세, 그리고 옷차림과 식사와 잠자는 것에 큰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살았고 생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태어나는 것과 성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유기적 교회의 성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도가 그 유기적 교회나 공동체를 떠날 때, 목회자는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은 한 그들을 축복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²⁰³라는 말씀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비판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티는 실제로 들보에서 깎아낸 아주 작은 조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꿰뚫어 볼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²⁰³ 개역개정, 마태복음 7:1-2

목회자와 성도들은 유기적 교회로서 상호 교제하며 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영적 여정에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동역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친밀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움으로 변화되며 성장되어가도록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 주로 성경공부와 일대일 제자훈련과 기도모임들이다. 모임 초기만 하더라도 신앙적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그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일반적인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가볍게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제목으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고 신앙적인 멘토와 멘티로 삼고 있다. 또한 조금 더 영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으며, 일년에 한번씩 1박 2일 수양회 모임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유기적 가족공동체로 변화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돕고 있다.

“몸은 몸 지체의 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각 멤버가 머리에 연결되며 따라서 서로에게 연결되는 기능적인 유기체이다.”²⁰⁴라고 탐 스톨터는 말한다. 필자 역시 꿈꾸는 교회는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유기적 교회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전도 되어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멤버들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기적 가족 교회를 꿈꾼다.

²⁰⁴ 탐 스톨터, “교회 개척과 성장/OPG Course Document eight”,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16, 2 : Lesson Eight: 8 과 “A growing church is a family of believers committed to the Lord and to each other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께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헌신된 신자들의 가족이다”

²⁰⁵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이남하 옮김, 도서출판 대장간, 2010, 263-269
²⁰⁶ Ibid, 267

성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변화하며
 메로 분열을 면치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프랭크 바이올라의 주장
 목회자 사이, 1세와 2세와의 사이,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위기와 갈등의 단계를
 때문에 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한다. 교인과 교인 사이, 교회와 한인회 사이, 교인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 이민 교회 안에는 교차문화라는 추가적인 요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또다시 순환하게 될 것이다.

것이다. 프랭크에 따르면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절과 같이 두 번째 단계, 세
 것이다."²⁰⁵라고 그는 주장한다. 네 번째 단계는 검증된 몸의 생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다면 교회를 얻게 될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이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분열을 면치 못할
 가든지 둘 중 하나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단계이다."²⁰⁵ 그들을
 위기와 갈등의 단계이다. 자멸하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세 번째 단계로
 교회의 성장의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밀월 기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프랭크 바이올라에 따르면,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기적

5) 성도들의 영적 성장 결실물의 극복

가정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지도자의 지속적인 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름이 가도를 후원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가정교회들은 각각 유기적인
 커진다면 각 가정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훈련된 멤버에게 새로운 가정교회를
 물론 가정교회가 자연적으로 회중적 교회로 나아가서 위성모형 교회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용바른 말씀 사역과 상담이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이민 교회 사역에서도

일반적인 목회자가 상담의 기초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대교회에도 넘쳐났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비록

찾아 연결해주고 더불어 말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실 이 상처의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아야 한다. 물론 문제의 심각성과 종류에 따라 전문 상담가를

중요하게 대우 될 때에, 우선적으로 목회자는 말씀을 통한 본질적인 치유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치유와 상담의 역할이

아픔을 갖고 있는 신음하는 교인들을 구체적인 상담의 치유와 상담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는 목회자는 이민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은 상처받고

통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백한다. 다양한 관등 속에서 우리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는 하고 싶은 것을 내려

원리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고안된 것임을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관등들을 겪어 오면서, 과연 이 모든 관등들과 십자가의

또한 그것은 순해를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한다. 필자는 실제로 교회안에

성장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²⁰⁷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도가

영적인 비명을 발견하라 십자가는 몸의 생활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십자가는

그러므로 포기하는 것을 배우라. 지배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방법을 버리는

프랭크 마이어라는 " 교회 안에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이민 교회내 기성 이민세대들과 1.5 세, 2 세대들과의 단절이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영어권 사역자와 성도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 주고 품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는 동역자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의 소통이 세대간의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리더가 얼마나 그 도양을 잘 이해하고 파종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피터 차 교수의 현재 연구 발표에 의하면 90년대 일명 'Silent Exodus'(조용한 탈출)로 한인 교회를 떠났던 2 세들이 가족과 문화적인 이유로 다시 한인교회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차 교수는 “2 세들이 1 세 교회로 돌아오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느냐는 것이 문제”²⁰⁸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이 우리 이민교회가 실제로 당면한 현실이고 큰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이민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몇몇의 대형 교회에 2 세들이 집중되는 것보다 여러 중소형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용해서 여러 이민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건강할 것이다. 필자는 필자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시카고지역의 커뮤니티에 속한 이민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연합하여 세대간의 화해를 위한 예배와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 2 세들의 40%이상이 '교회의 희망과 비전의 결여'라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이민 1 세대나 기성세대가 2 세들에게 이민 교회의 비전 나눔을

²⁰⁸ <http://www.tfbc.org/%EC%8B%A0%EB%AC%B8-%EA%B8%B0%EC%82%AC-%EC%9D%B8%ED%84%B0%EB%B7%B0-%EC%9D%B4%EB%AF%BC-%EB%AA%A9%ED%9A%8C-%EC%B2%A0%ED%95%99%EA%B3%BC-%EB%B0%A9%ED%96%A5/>, [신문 기사 인터뷰] 이민 목회 철학과 방향

전과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의 세대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삶의 능력이 함께 전도지를 돌리며 자기 교회로 나오라며, '수평이동'만 부추기고 있다. 참된 복음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 이 민사회의 현실이다. 고작 한인 마켓에서 삶에 터전에서 지친 나머지 전도를 함에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전도를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이민 교회는 많은 면에서 삶의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여진다.

6) 보다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를 위한 추가적인 사역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대들이 하나가 되어 문화와 사회 환경에 의한 참 소동과 인간 관계로 연결되도록 사이에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각 이민 교회들이 1세대들과 2세대들 머리인 예수님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성육신적 사역으로만 성도들의 영적 하나가 될 때에 그들과 참 소동과 복음 전달의 기반이 마련되어 될 것이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발견되는 성육신적 사역처럼, 이민 1세대들이 2세대들과 복음의 핵심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와 교회 사역의 중심적 가치이다. 예수 문화와 세대를 건너뛰어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육신적 선포는 하나되어 기도하도록 소동하며 이끄는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가진 비전들을 공유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인지에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2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그들은 지체들이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하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가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 ²⁰⁹고 주장한다.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프랭크 바이올라는 "교회 개척에

동반되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한다. 목회자 중심의 전도에서 평신도 중심의 전도로 넘어가고 평신도 전도자들이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에 교회도 살아날 것이다. 특별히 많은 이민 교회들이 분쟁가운데에 있는데, 그러한 분쟁에서 벗어나 선교와 전도의 복음 전파 체제로 철저히 교회가 변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로 회복하며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토착교회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선교의 목표는 모든 문화의 모든 공동체 속에 참으로 토착화된 교회를 가지는 것이다.”²¹⁰라고 교회의 토착화를 강조하였다. 보다 건강한 유기체적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인 이민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의 이웃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시카고 지역에서 다문화권 선교지를 사역하는 선교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영어예배(EM)사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인도, 필리핀, 중국등의 소수민족 교인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가 가고 있다. 여름성경학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사역도 정기적으로 하여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해 진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기위해 다민족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교회 리더들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고, 모든 사역의 시작 단계에서는 기도를 통한

²¹⁰ 박기호, “타 문화권 교회개혁”,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5, 16

²¹¹ 폴 히버트(Paul Hiebert), "영육신적 선교사역", 번역: 안영권, 이대현,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7

민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태어나고 성장한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문화권 안에서 다른 여러
 루아가 집을 짓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권에서
 (Bicultural)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중 문화란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문화 속에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낀 이중 문화
 교회 안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소통의 관등을 겪는 현실적인 한계에 도달한다.
 문화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접근과 전말한 조화는 더욱 쉽지가 않다. 오히려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이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각 사람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앞서서 원지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화와 세계관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인식하고 있다.²¹¹라고 주장하며 타문화 사역에
 인식하고 있고, 신학자들은 민감한 신학적 내용들을 상황화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의
 오늘날 교회 개척자들은 사회의 역동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역자들은 인류학과 의사소통 이론으로부터 사역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
 폴 히버트는 그의 책 "영육신적 선교사역" 서문에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같은 민족이라도 개인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 이해는 문화 속에서의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경험 속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B. 변화를 이끄는 문화적인 측면

다민족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역자 구성과 타문화권 이해의 연구가 필요했었다. 이제는 한인들의 교회에서

타문화권에서 자기화 과정은 분명히 많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동화 되고 자기화 하는 노력이 있어도, 자신이 소유한 문화적 틀 안에서 모든 가치와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1 차 문화인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제 2의 문화인 미국 문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배운 적이 없다, 따라서 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정의 하지도 못한다. 문화에 대한 공부는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등한시 되어왔고 현재도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는 이민자들을 위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프로그램을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위해 미국 문화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없다. 몸소 부딪치며 경험한 만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자국의 문화와 현지인의 문화의 혼동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화의 혼동 속에서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이 교육되지 않는다면, 한인 이민교회의 성도들은 기독교 혼합주의²¹²나 율법주의로 발전할 우려가 크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안에서 문화간의 차이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발견된다. 1 세대, 1.5 세대, 2 세대의 세대간의 차이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조선족과 북한에서 여러 나라를 경유해 온 탈북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살다가 온

²¹² 찰스 크레프트는 그의 책 “기독교 문화인류학”에서 다음과 같이 혼합주의에 대하여 경고한다. “혼합주의는 기독교적 의미들과 이교적 의미들을 혼합하여,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기독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혼합주의를 두려워해야 할 좋은 이유가 있다. 우리(그리고 하나님께서도)가 바라는 마지막 일을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아닌 자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다.”(521)

화교들등 종족별의 차이가 있다. 또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등 사회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신자등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한다면, 문화 인식 훈련을 통해 갈등의 요소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이민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몇가지 문화 요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 충격(Culture Shock)

문화 충격은 모든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고집 할 때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화 충격은 먼저 자국 문화의 핵심가치를 배우고, 타문화에 대한 문화의 핵심들을 배운다면, 성도들의 문화에 대한 민감성은 개발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성도들은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은 커지고, 큰 문화적 혼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러한 문화 충격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문화 충격은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찰스 크래프트는 설명한다. 더불어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 충격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서 설명한 세계관의 차이로 인간 존재성에 대한 개념이나 하나님의 의미와 인식,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응이 큰 차이로 나타나며,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있어서 세계관의 차이와 문화 차이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크래프트는 그러한 문제를 다름과 같이 설명한다.

문화 충격(더 나은 용어로는 ‘문화적 압박’)이 해당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와 다른 가정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적 압박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에 더하여, 세계관의 차이는 우리가 타문화권에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기저에 놓여 있다. 복음에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기독교로 인해 초래된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과 기본적 가정들의 변화이어야만 한다. 세계관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의미 부여의 원동력이야 말로, 기독교가 영향을 끼쳐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²¹³

2) 개인의 개념 체계(Personal Perception)

사람들은 문화가 끼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가 같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된 지각 체계에 의해서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은 많은 오해와 갈등과 혼돈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폭 넓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나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가지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을 갖는 습관이 있다”²¹⁴고 찰스 크래프트는 주장한다. 그는 모든 선교사나 이민 교회 사역자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는 좀더 깊은 감정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는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한 ‘인격’(즉, 사람) 이라는 범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내부 그룹)와 ‘그들’ (외부 그룹)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라 함은 우리의 범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인격’(즉 사람)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을 일컫는다. ‘그들’ 이라 함은 흑인’, ‘히스패닉’, ‘아프리카인’, ‘뉴기니아인’ 등과 같은 고정 관념화된 용어로 생각되는 존재들이다. 비록 이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 생각이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이기 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속한 인종적 범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고를 멈출 때까지는,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누군가 필자에게 필자의 친구 어머니가 흑인이게 인종이었는데도, 필자는 그가 흑인이었는지의

²¹³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기독교 문화 인류학”, 기독교 문서 선교회, 번역: Young-guon Ahn & Dae-hon Lee, 2005, 134-135

²¹⁴ Ibid, 240

여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이 문제를 극복했다는 행복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²¹⁵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무식적으로 갖게 되는 이러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그것이 동일시의 개념이건 비 동일시의 개념이건 성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복음의 전달과 소통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개념 차이(Personal Perception)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선교 사역자나 목회자가 그 개념의 차이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3) 문화적 가치체계(Value System)

로키치(Milton Rokeach)는 자신이 선호하는 행동 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획득하고자 하는 존재 약식이나 목표를 단말적 가치(terminal value)로 분류하여 각각 질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가치 분류법을 만들었다.²¹⁶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도 다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한인교회 안에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미국 이민 교회와 같은 타문화권에서의 사역자들에게 문화 자기 인식(Cultural Self Awareness)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교차문화 안에서 갈등의 요인을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타문화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긍정적인 자세로 바로 인식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타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가치관의 충돌은

²¹⁵ Ibid, 240-241

²¹⁶ Rokeach, Milton.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소극적인 대응으로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용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C. 교회 교육의 접근

1) 일반적인 교회 교육의 접근

교회학교 교육은 지식을 쌓기 위함도, 출세를 하기 위함도, 즐거움을 얻기 위함도 아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참 생명을 얻어 또 하나의 복을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교육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교회 교육의 목적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교육 운동의 선구자이며 삶을 변화 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워드 헨드릭(Howard Hendricks)은 교회 교육을 예수의 어린 시절을 그 예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드릭은 누가복음 2:52 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여기서 예수의 지혜가 자랐다는 의미는 그의 지적인 성장을 가리키며, 예수의 키가 자랐다는 것은 그의 신체적인 성장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예수께서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²¹⁷

즉 교회 교육을 통해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²¹⁷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정명신 옮김, 서울:생명의 말씀사, 2016, 24.

행동과 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지역자들이 간파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수용자들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이나
 효율적인 소동을 위해서 두 번째, 수용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접근해야 한다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있었던 그 당시의 그의 편증적인 접근은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논리적이고 편증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수많은 종교가
 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위해 상업적, 군사적 은유들도 많이 사용했다.
 복음을 전했다. 죄책감, 정의, 무죄 판결 등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회생을 설명했다. 로마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 할 때에는 회생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져와서 예수
 사도 바울은 각 문화권에서 그들의 문화의 양식을 가져와서 전도했다.

교육을 통한 성장을 극대화 할 수 없다.

오류가 발생되거나 소동에 한계가 발생된다. 소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심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자들이 수용자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자민족
 효율적인 소동을 위해서 첫째, 수용자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을 이끌 수 있다.

교육하고,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상황화는 효율적인 소동으로
 문화권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르게
 적합한 상황화는 필수적이다. 각 세대들이 다른 차원의 문화로 소동을 하고 있는 이중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교육이 이중 문화권 안에서 하고 있는 한인 교회를 위해

사도행전 8 장에서 빌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거기서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주요 관리인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 빌립이 이 관리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빌립은 먼저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의 글을 깨닫느냐고 질문을 한다. 빌립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인내를 갖고 수용자를 관찰하며 그에게 적절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수용자의 필요성을 찾아 그의 상황에 적합한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세 번째, 의사소통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세 번째 문화 또는 의사 소통 분위기를 구축하도록 한다. Dodd Carley 는 교차 문화에서의 소통을 설명하면서 “문화간 의사를 소통 할 때 영향을 주요 문화 영향, 의사소통 당사자의 개인적 스타일, 그리고 대인관계 특성들이 문화간 의사 차이 인지에 영향 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런 요소들은 두 사람이 공통성을 발견하고 불안과 확실한 요소들을 줄여 정황적으로 의사소통을 계속할 수 있는 세 번째 문화 또는 의사소통 분위기를 제공한다.”²¹⁸고 주장한다.

2) 상황화와 교차 문화 소통을 통한 교회 교육의 접근들

필자는 본 연구 조사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의 8 번 문항 “설문지 문항 8 번 “당신을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시킨 교회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환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들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33%의 응답자들이 성경공부라고 대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배와 설교(Worship/Sermon)라고 24%의 응답자가 대답하였고, 세번째로 개인적인 고난을 통한 신앙 성장이 13%, 네번째로 부모/배우자/신앙의 친구/동역자등이 8%,

²¹⁸ 칼리 H 도드(Carley H. Dodd),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임헌만 옮김, 도서출판 그리심, 2008, 37

찬양이 8%, 큐티 6%, 기도와 기도예 대한 응답이 4%, 선교/전도/사역등의 섬김이 3%, 제자훈련이 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적 변화와 성장의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등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7%로 과반수 이상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설교와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경공부 소그룹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교육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설교와 성경공부등의 교회 교육은 보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보다 행위적인 순종의 훈련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독교 교육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회복 시키고, 성장 시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기독교 교육 중에서 특별히 설교를 통한 상황화와 소그룹을 통한 상황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상황화된 설교

오늘날 설교가 없는 기독교 또는 설교가 없는 주일 예배는 생각할 수 없다. 존 스타트(John R. W. Stott)는 예수께서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자였다고 하며 설교의 그 근원은 예수부터 시작되었고, 예수의 열 두 제자들이 그를 뒤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므로 설교가 기독교의 본질적이며 영원한 특성이 되었다고 했다.²¹⁹ 포사이트(P. T. Forsyth)는 그의 저서 『긍정적인 설교와 현대 지성』(Positive Preaching and Modern Mind)에서 지난 2 천 년의 교회와 설교의 관계를 "나는 감히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흥하였거나 설교와 함께 망한다고 생각한다"²²⁰라고 했다. 실제로 이러한 그의

²¹⁹ 존 스타트(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생명의 샘, 2008, 23.

²²⁰ 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3.

주장은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말씀이 힘차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부흥이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곳에는 부패가 있었다.

종교개혁은 설교에 구심성을 부여하였다. 루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거룩한 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감독과 목사, 설교자의 가장 고상하고 유일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설교의 중대한 책임에 대하여 말했다.²²¹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흘러 나와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복음을 성경의 세계와 현대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이다. 수천 년 동안 변화해 온 성경의 문화의 넓고 깊은 간격을 오늘날 청중들의 문화 속으로 연결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복음의 상황화를 간단하게 한 마디로 말한다면 “복음 메시지를 청중의 문화적인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황화는 우리 (US)와 지금(now)에 관한 것이다.”²²²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청중을 향해 선포하는 자들이다. 성경의 내용을 문화적으로 상황화한다고 하여 그 복음의 본질까지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조나단 애드워즈는 그의 책 “부흥론”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심하여 영적으로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기독교의 위대한 일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그 자체로는 그것들을 잘못 이해시키는 경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것은 온건하고 냉담하며 무관심한 설교 방식 보다 기독교의 위대한 일들을 훨씬 바르게 이해시킨다고 믿습니다. ...

²²¹ 존 스타트(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생명의 샘, 2008, 32.

²²² 데이비스 헬름, “강해 설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김태곤 옮김, 부흥과 개혁, 2014, 17

기독교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다룸에 있어, 구별과 예증의 명료성, 논증 그리고 좋은 방법이 여러 모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 이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우리 교인들은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더 필요로 합니다.”²²³

설교자가 현대 도시 교회에서 대규모의 회중에게 설교를 하든지, 시골 교회에서 옛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라틴 아메리카의 움막 속에서나 아프리카의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있는 농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기 적합한 문화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고유한 뜻에 대한 오류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듯 설교는 시대와 장소와 민족을 아우르며 각각의 독특한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전달되어 적응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1 세기에 또는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탄생한 성경의 세계와 현재 미국이라는 타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인식되는 그 엄청난 간격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다.

따라서 설교자에 있어서 청중을 아는 것은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청중에게 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줄리어스 킴은 설교에 있어서 성경의 문화와 배경이 중요하듯이 청중의 문화와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중을 아는 것은 과학이고 기술이다. 설교자는 청중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청중에 대해 더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중의 문화적 가치관과 정서들의 일부도 역시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청중 분석의 기술은 어떻게 그러한 통계들과 가치들이 복음의 진리와 그 의미들에 반응해 청중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지 고려하게 한다.”²²⁴

첫째 설교자는 고대와 현대, 성경의 세계와 현재 우리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 속에서 인간의 말로써 그의

²²³ 조나단 애드워즈, “부흥론”, 양낙홍 옮김, 부흥과 개혁, 2005, 508-509

²²⁴ 줄리어스 킴, “설교학: 복음중심적 설교의 설계와 전달”, 신민우 옮김, 부흥과 개혁, 2015, 29

말씀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말씀도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서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채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황화의 틀을 제공해 준다.

설교자는 성경의 신적인 내용을 손상시키거나 인간적인 배경을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본문을 충분히 바로 이해 하여야 한다. 강민호목사는 설교를 작성할 때 설교자가 연구해야 할 여섯 가지의 질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문을 기록한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을 처음 읽는 일차 독자들과 지금 설교를 듣는 이차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²²⁵

이러한 본문 연구를 충실하게 한 후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의 언어와 사상의 범주로 옮겨 그 말씀을 우리 시대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중들이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루해 하며 하품을 억누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들을 안고서 교회에 왔다가 그 문제들을 갖고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민호목사가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일차 독자들과 지금 그 본문을 받은 이차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시해 준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새들백 (saddleback)교회의 담임 릭 워렌(Rick Warren)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설교에서 삼 대지로 설교를 했는데, 미국의 현 성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그들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²²⁵ 강민호, “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 서울:미니스트리 드렉, 2014, 42.

성도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적용적 설교 제목과 적용적 대지 그리고 적용적 설교는 매우 적합한 상황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적합한 상황화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세계와 무관한 진미한 하나의 설화가 아니며, 고대 역사에서의 예수가 아닌, 다시 살아계셔서 오늘날의 다양한 세계 속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현재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설교자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 필자는 다년간의 부회 경험을 통해,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역자라면 그 누구나 성도들이 처한 문화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이나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실생활 문제들을 상담하면서, 일대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수준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제와 관습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성도들과의 가장 효과적인 설교자는 그들의 문제들을 성경 본문이 성경 본문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죽어 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실망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치유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로고스(Logos), 에토스(Ethos), 그리고 파토스(Pathos)가 전달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그의 수사학에서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²²⁶ 그것들은 바로 로고스(logos)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에토스(ethos) 우리가 누구이나, 파토스(pathos)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말하느냐이다.

유명한 설교가 필립스 부룩스(Phillips Brooks)는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²²⁷라고 말하며 설교자는 무엇 보다 먼저 성도들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오브리 맬피스(Aubrey Malphurs) 또한 리더십을 설명하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더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다. 오늘날의 목회에서도 리더에 대한 신뢰는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²²⁸라며 리더로서의 설교자의 신뢰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물론, 설교자가 로고스, 즉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석의와 관찰과 묵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오류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과 설교자가 믿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필요한데, 설교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성경)의 종이라는 분명한 에토스가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성도들의 상황과 문화적 배경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해와 신뢰가 성도들 안에 충분한 기초가 되었을 때 비로서 진정한 소통의 토대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비판적 상황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 즉, 성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로고스인 말씀을 가장 수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²²⁶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trans. J. H. Freese, LC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 1.2.1-15.

²²⁷ Phillips Brooks, “The Joy of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9, 25.

²²⁸ 오브리 맬피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정임 옮김, 국제제자훈련원, 2008, 75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먹어야 할 회중들에게 대한 거룩한 열정(pathos)을 가지고 전할 때에 영적인 힘과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 안에 진정한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b) 상황화된 성경공부

성경공부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성경공부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강해되는 설교와 예배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부류로 큐티와 제자훈련도 말씀이 기초가 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들을 성경 묵상 또는 성경 공부라는 큰 틀 안에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가 성경의 묵상과 공부로 인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받았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회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성경 말씀 이상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경공부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구호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쳤다. 그는 성경은 자궁이다. 거기서 신학적 진리와 교회가 태어난다고 표현할 만큼 성경의 권위를 귀중하게 여겼다.²²⁹⁾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그를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서 그와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²²⁹⁾ 크리스천투데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2017,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8533>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호소했던 것이다(호세아 6:3).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웨네테아’와 ‘니르페파’ 이 두 단어의 동일한 어근인 동사 ‘야다’이다.

히브리어에서 ‘야다’ 동사는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상대방에 대해 외적인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상대방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창세기 4:1에서 “동침하매”에서 찾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뿐 아니라 누구와도 배타적인 성적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또는 사람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또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아 앓을 나타낼 때(삿 3:1) 사용되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며, 율법 수여자,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안다고 주장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만 반복적으로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막 5:7 ; 약 2:19).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율법의 대강령인 신명기 6:4-9 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공부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초, 오직 성경”의 저자 박준용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경공부는 주로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칼빈처럼 성경을 읽

성경공부 방법

를수적인 것이다.

적용하며,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공부는 말씀과 항상 동행하여 모든 상황을 그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지를 말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여기서, ‘강론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장소에서 돌이고, 바깥 문에 기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찬복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철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야 한다는 명령이다. 기록이고 준중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단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세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세마 이스라엘”로 시작한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문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한지니라”

분량씩 꾸준히 강론하는 모임에 참여해 사역자의 강론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거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본문을 설명해 놓은 책을 성경과 함께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²³⁰⁾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공부 방법은 목회자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공부 방법에는, 첫째, 성경통독이다. 계획을 세워 성경을 읽으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성경 암송이다. 성경의 핵심 구절을 외우며 되새기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큐티이다. 성경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회개하며 앞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과 연역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 있다. 귀납법적 성경공부는 성경 각 권을 직접 연구하며 각 본문의 장, 절을 분석하고 어구를 분석하며 그 교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다. 연역법적 성경연구 방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이끌어 내는 사유 방식에 의한 것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우는 방법이다.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역할과 참여도가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10년 8월-2011년 8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됐으며, 표본으로는 서울대교구 내 본당에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성도 1500명을 추출했다. 현재 교구 내 청년 성도 수는 27만 9600여 명이다.²³¹⁾

응답자의 사회적·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볼 때 전체 조사대상자 1642명 중 남성이 42.3%, 여성이 57.5%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대별 분포는 최소

²³⁰⁾ 박순용,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초”, 오직성경, 서울:아가페북스, 2016, 65.

²³¹⁾ 가톨릭신문, 서울대교구 청년 성서사목의 현황과 과제 청년 성경공부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11,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30705

19 세부터 최고 34 세로, 평균 연령은 25.7 세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 재학’ 이 81.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직업별 분포도 ‘학생’ 이 40.7%, 직장인이 54.7%였다.²³²

이들의 평균 신앙생활 기간은 16.2 년이었으며, 청년회 평균 활동 기간은 4.3 년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조사가 개신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성경공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실태 조사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성경공부 경험이 거의 없는 이유로는 거의 절반이 ‘시간 없음’ (47.5%)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16.4%, ‘프로그램 부재’ 가 15.4%, ‘소개 홍보 부족’ 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²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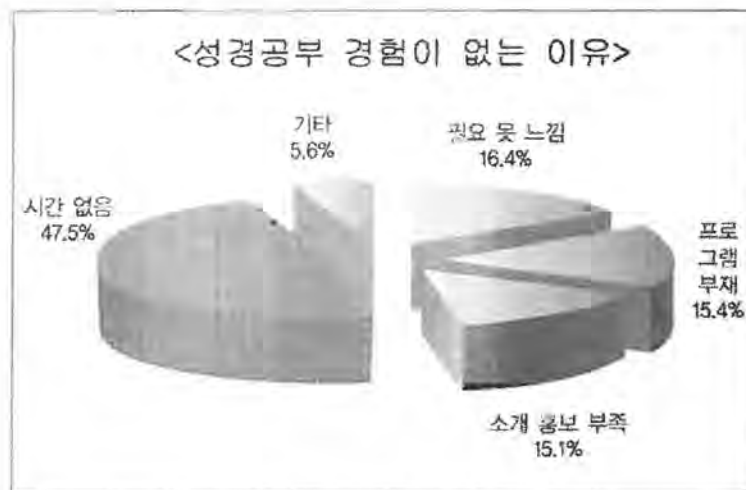


그림 3-3 <성경공부 경험이 없는 이유>

²³² Ibid

²³³ Ibid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청년들의 성경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 '축구' (38.2%)를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는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18.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경공부 또한 레지오마리아, 교사회, 성가대처럼 단체화해야 한다'는 방안(16.2%)과 '본당 사제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12.7%) 등도 주요 방안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청년 주일학교 개설' (7.9%) 또한 눈길을 끄는 대안이다. 이어 응답자들의 6.3%는 '세례성사 직후 성경공부 실시'에 의견을 보탰다.²³⁴

청년들은 성경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견해는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개개인이 알아서 찾아가는 성경공부가 아닌 누구나 각자의 본당에서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경공부 프로그램 구축에 힘을 싣게 됐다.

청년 성도들이 선호하는 성경공부 형태는 '성경 읽기'가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성경 강의'가 38.1%, '성경 쓰기'가 7.4%, '성경 암송'이 0.7% 순으로 조사됐다. 그룹공부와 생활 나눔을 함께하는 성경공부 방식은 50.8%로 큰 호응을 보였다. 강의와 생활 나눔을 접목한 방식은 28.8%, 그룹공부는 10.5%, 강의식 공부는 8.3%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²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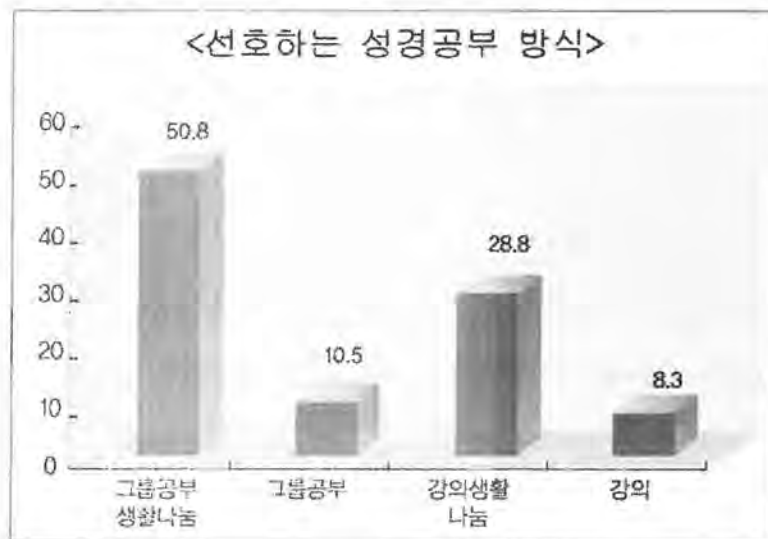
가장 하고 싶은 교육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친 통괄적 내용' (44%)이었다. 이어 '특정한 주제를 통한 다각적 내용' (34.4%), '개별 성경을 선택한 세부적 내용' (20.6%)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오늘의 말씀 묵상'과 '생활에 밀접한 공부' 등이 있었다.²³⁶

²³⁴ Ibid

²³⁵ Ibid

²³⁶ Ibid

그룹공부 때 교육하는 강사나 진행자로 ‘평신도 봉사자’와 ‘주제별 전문가’를 뽑은 비율이 각각 32.4%와 31.9%나 되는 것도 기성세대들의 의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즉 청년 성도들은 직분에 따라 강사 선호도를 보이기보다 전문가적인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의식 공부 때는 교육하는 강사나 진행자로 ‘성직자’를 뽑은 수가 4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어진 대답에서는 ‘주제별 전문가’가 28.7%를 차지했다.²³⁷



<Figure 32> 선호하는 성경공부 방식

청년 성도들은 성경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본당’ (83%)을 선택했다. 각종 센터나 학교 및 직장 등을 꼽은 비율은 10.2%와 3%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성경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청년미사 전’ (28.1%)이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주일 오전’ (13.8%)과 ‘목요일 저녁’ (13.4%), ‘금요일 저녁’ (9.6%), ‘토요일 저녁’ (7.8%) 등의 의견이 있었다.²³⁸

²³⁷ Ibid

²³⁸ Ibid

여기에서 필자가 연구 조사중 성경공부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도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결과들을 비교하면 일부 비슷한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설문지 13 번 “당신이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무엇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각자가 직접 자신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들을 주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몇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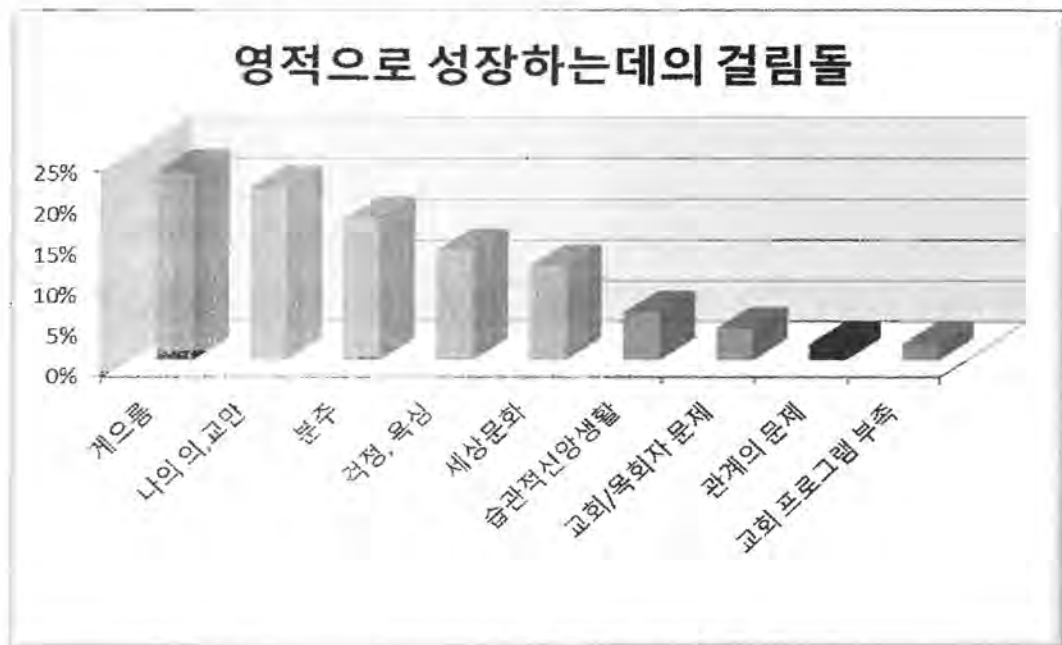


Figure 33 영적으로 성장하는데의 걸림돌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게으름 23%,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자기 자신의 교만/자랑 등으로 필요성 부족함을 느끼지 못함 등이 21%, 세번째로 많은 응답자들이 바쁜 이민생활과 가정생활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17%, 네 번째 순위는 세상적인 걱정 염려 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13%, 그 다음은 세상 문화와 세상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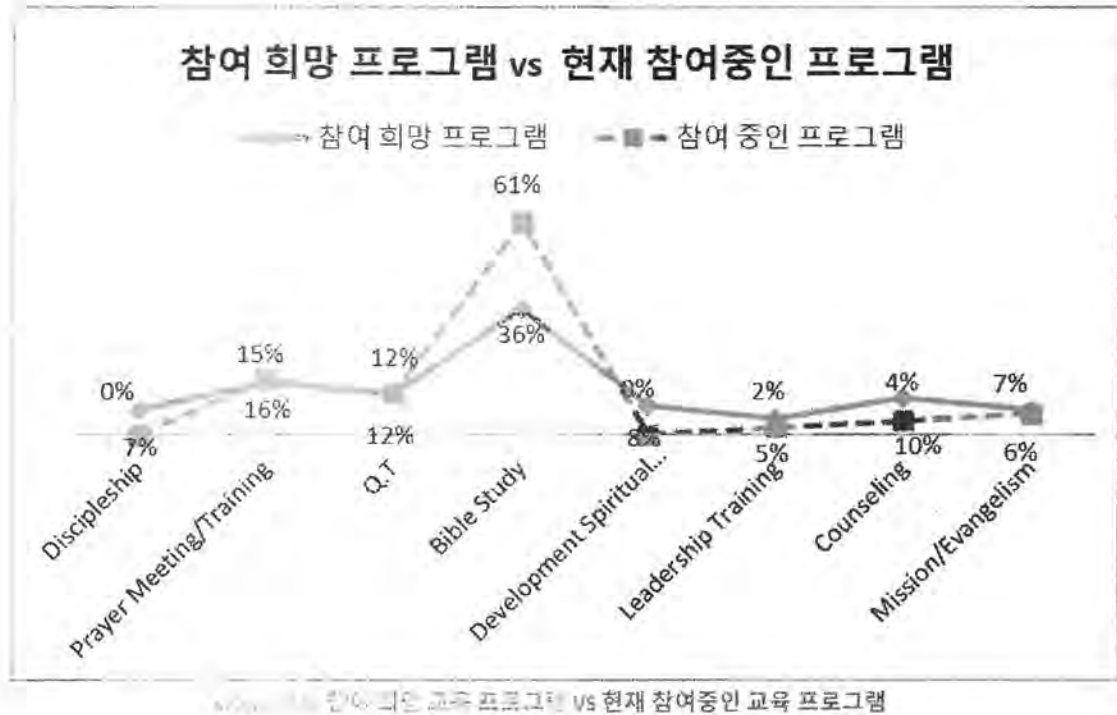
욕심등 12%,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영적 성장을 막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적 요인들이 매우 작은 부분들로 나타났는데, 교회의 분쟁 혹은 목회자의 문제가 4%, 교회 성경공부 혹은 영성 프로그램의 부족의 문제가 2%,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 관계 2%등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보듯이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자신의 게으름, 자량과 교만, 바쁜 사생활, 세상 문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등 자기 자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성도들의 신앙성장이 교회 분쟁과 목회자의 문제, 성경 공부 혹은 영성 훈련의 부재, 다른 성도들의 문제 등으로 자기 자신 외에 외부적 요인을 신앙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서술한 성도는 모두 합쳐도 8%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성경공부의 경험이 없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시간 없음 47%, 두 번째 큰 이유가 자기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16.4%로 자기 자신의 내부적 문제들이 영적 성장과 성경공부 참여를 막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질문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문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역시 성경공부로 3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도 및 영성 훈련이 16%, 큐티 12%, 상담 10%, 은사 개발 8, 제자 훈련 7%, 선교 및 전도 훈련 6%, 리더십 훈련 5%의 순서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9 번에 “당신은 당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입니까?” 의 질문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최고로 두각을 나타낸 “성경공부” 가 61%를 차지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만면 의지는 61%인데 반하여 현재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36%로 현실적인 훈련의 참여는 많이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사상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도록 성경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때에 성도들은 세속적인 악한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지 않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성경공부 활성화를 위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대로 그들이 선호하는 성경공부 형태와 그들이 선교하는 교육 내용을 미리 조사하여 염두에 두고 성경공부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c) 상황화를 고려한 소그룹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조직은 대그룹과 중그룹 그리고 소그룹으로 되어 있다. 소그룹은 교회 조직중에서 가장 작은 그룹이지만 성도들의 교제의 연결망이며 모든 사역의 뼈대이며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그 동안의 사역을 통해 깨달은 것은

조그름이 얼마나 건강하게 활성화 하며 발전하고 있는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받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깊이 알아야 한다. 그들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 이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얼마나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믿음의 열매만큼 역사하고 있는지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제도는 소그룹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야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설교를 통해 성경공부를 통해, 또는 중보기도를 통해 상황화 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윌로우크릭(Willow Creek) 교회는 메가 처치 또는 구도자를 위한 열린 예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에 한인이 많이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큰 한인 교회를 윌로우크릭 교회라고 부른다는 웃지 못할 말이 회자 될 정도이다. 미국 현지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이민 2 세들이 출석하는 미국 현지교회와는 달리 이들은 한인 교회에서 문열을 통한 상처를 받았거나, 메가 처치가 주는 유익을 원하는 이기적인 이유로 때문에 윌로우크릭 교회에 다수 출석하는 기원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메가 처치의 교인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소그룹을 통해 복회적 돌봄을 받거나 양육되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에 속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형교회인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출석하는 한인들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시간에 동역기로 동역되는 만큼만을 듣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윌로우크릭교회의 주일 예배시간에 설교말씀은 한인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진 설교는 아니다. 상황화 되지 않은 설교에 소그룹 활동의 부재는 윌로우크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이민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의 장애가 되는 큰 두가지 걸림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새들백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워렌(Rick Warren)목사 만큼이나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다. 새들백교회의 예배 참석 인원은 2 만 5 천여 명, 하지만 소그룹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를 뛰어넘는 3 만 5 천여 명이라는 사실이다. 새들백교회는 소그룹과 주일예배 모두 참석하도록 권장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소그룹의 중요성을 계속 이해시키고 강조한다.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며, 자신이 받은 은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배 참석 인원보다 소그룹 참석 인원이 더 많은 새들백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개인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 새들백 교회의 소그룹은, 요일대로, 나이대로, 성별대로, 혼인여부 따라, 언어별대로, 지역별대로, 심지어는 민족별대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다.²³⁹ 이렇게 각 개인의 목적, 관심사, 연령, 주거지등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 갖는 가장 큰 유익이다. 소그룹의 종류에는 성경공부, 중보기도, 새신자, 큐터반, 제자반, 은사개발, 리더십 개발, 코칭, 상담, 회복등이 있다.

릭워렌(Rick Warren)목사는 자신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의 우상화는 영적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계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고

²³⁹ Saddleback Church, <http://saddleback.com/connect/smallgroups/join>

설명한다.²⁴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27). 이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엡 4:15-16). 그러므로 각 지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

소그룹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이별 대로, 성별대로, 혼인여부에 따라, 언어별로, 지역별로, 가능하다면 민족별로 각 개인의 목적, 관심사, 연령등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원들은 소그룹 안에서 공감성과 편안함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문제들을 열린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그룹의 장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장점도 있으나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성을 배우게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내 상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보다 성숙한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신보다 어린 신앙을 갖은 구성원을 자연스럽게 돌봄으로 친밀하고 진실한 성도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카고 근방의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소그룹의 모임의 형태 때문이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구역모임을 갖고 있다. 구역장에 의해 한 달에 한번 모여 식사 위주의 교제를 나눈다. 모임의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누기 어렵다.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모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공통성과 공감 위주로 모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²⁴⁰ 릭워렌(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 박경범 옮김, 서울:디모데, 1995, 378.

모인다면, 소그룹이 지향하는 구성원들의 고민과 갈등들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매우 어렵다.

두 번째, 한국적인 문화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세들은 듣고 배운 대로 따르는 문화에 익숙하다. 그들은 서로의 고민과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 또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와 주며,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 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면, 나눔의 문화는 활성화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자질이다. 소형(100 명 미만)교회는 훈련된 리더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중형(500 명이 넘는) 교회와 대형 교회(1000 명이 넘는)역시 훈련된 리더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각 소그룹을 이끌어가며 잠재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잠재적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이양하기 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사역의 한 과정이다. 소그룹을 이끌어 가면서, 그 소그룹에 적합한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하여, 이양하여, 그 리더가 또다른 리더를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어야 한다. 소그룹은 성도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 형성과 리더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모임이다. 동질의 소그룹은 모든 교인에게 개인적인 돌봄과 관심을 제공할 수 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의 상황화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 타문화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충돌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교육, 특별히 설교와 소그룹을 통해 성경의 문화와 현시대의 문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상황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의 고민과 갈등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교를 통해, 성경공부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현 세대의 언어로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D. 변화를 이끄는 선교학적인 측면

이민교회들은 1980-2000년까지가 이민교회 성장의 피크였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민을 왔는데, 1980-1990년에는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1년에 2만명이나 들어왔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민교회 교인들로 충원이 되었고, 그 이유로 이민 교회는 별다른 노력없이 자연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요즘 미국에 들어오는 한인들은 영주자들 보다 비영주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민교회 리더들은 이민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 오는 한인들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비영주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실적으로 한인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민추세가 주춤하면서 한인교회 성장이 멈추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년간 미국은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이민교회가 전반적인 활력을 잃었다. 더우기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세속주의 흐름 속에서 교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다. 최근 어느 예상 수치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내에 한인이민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진단을 내놓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은 성장과 선교의 문제와 한계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교학적 측면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앞에서

미주한인교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민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개혁과 공조를 통해 지향해야 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개념

사도행전 13 장 1-3 절에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개념을 볼 수 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보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 선교단이 파송을 받는다. 이것을 보고 미국의 선교 운동가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사도행전 13 장 안디옥교회로부터 교회와 선교단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회 (Paul's missionary band)라는 소달리티 구조를 출범시킨 모델적인 모달리티 교회로 제칭된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달리티 조직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그들의 사역에 개입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모달리티 조직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두 조직을 구분하는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으로 지역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일컬어 모달리티(modality)라고 부르며 공식적이며 보편적이고 형식적 조직을 갖춘 공동체를 의미한다. 모달리티는 유지와 안정을 추구하지만, 소달리티는 개혁과 확장을 지향한다. 이 두 조직 모두 서로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사역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냐가 양자를 구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도 바울의 선교지와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사역했으며, 바울의 선교단도 교회사역을 위해서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기도 하였다.

둘째, 타문화권 영역의 선교공동체를 일컬어 소달리티(sodality)라고 부른다. 소달리티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공동체로 주로 타문화권 영역의 선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사회적 용어로 쓰인다. 모달리티는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소달리티는 명확한 규정과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바울이 마가를 거부하여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것은 바울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의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소달리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달리티는 보편적인 교회 조직이란 용어로 소달리티는 선교를 위한 특수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라는 뜻을 교회와 선교단체에 부친 것이다.

셋째, 모달리티는 소달리티 사역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소달리티는 사역을 통해서 한 지역과 민족을 섬길 모달리티 구조를 만든다. 이것은 오늘날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선교와 교회의 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며, 선교의 최종목적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2) 지역 한인이민교회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지향

현재 마이너스 성장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모달리티 조직들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탈바꿈하여 소달리티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공조하여 변화되고 개혁되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서 시작된 교회와 선교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나이 및 세대차이를 비롯한 경제·문화·교육 등 각종 ‘장벽’을 건너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를 논함에 있어 더 이상 ‘지리적’ 장벽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선교는 더 이상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1 세기에 들어 선교는 범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지구촌”이라는 단어이다. 지구 ‘글로벌(Global)’과 촌 ‘로컬(Local Area)’의 조어인 지구촌의 개념은 한 지역 내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아닌 곳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이동을 가리켜 선교라 말한다. 즉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믿는 이들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선교지는 너를 아닌 비그리스도인, 명목상 크리스천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들을 말씀과 실천(행위)을 통해 키워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회복, 자기 자신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나아가 자연과의 회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선교요, 선교적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교’ 개념에 대해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선교는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일명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거나,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선교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우리 목사나 선교사들이 신학을 머리로만 알되 배(마음)로는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계이며 문제점일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머리로만이 아닌, 실제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비밀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더이상 머리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의 조직이나 구조보다 사람의 진심이다. 과거 시구에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질인 사람의 진심을 잃어버린 경향이 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되려 그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실수를 범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조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대럴 구더는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사실 선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이며, 성경의 근본적인 성격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교회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는 것, 먼저 구원을 베풀고 교인들의 구원 상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바꿔버린 것, 현대적인 맥락에서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을 괴롭히는 전도와 사회정의의 양극화 같은 것이다. 이런 도전들을 가지고 내가 겹쳐서 써줬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이 1980 년대에 출간되었던 성육신적 전도 신학에 관한 것이다. 그 책에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우리의 전부, 즉 우리의 존재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장했다.”²⁴¹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적 변화라는 사실을 염두해 둔다면, 선교적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 '모달리티(Modality)' 모델 구조와 '소달리티(Sodality)' 모델 구조를 통해서 형적 변화와 성장을 공동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인 연대와 공조는

²⁴¹ 데럴 L. 구더, “증인으로의 부르심: 총체적 구원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 허성식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6, 342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엥겐(Charles E. Van Engen)은 “모달리티 사역자와 소달리티 사역자가 상호 전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종전 모달리티-소달리티간 분리와 분열을 넘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적 방법론을 배워나가고, 21 세기 각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역설하였다.²⁴²

3) 미국 이민 교회 사역에서의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공조

무엇보다도 요즘에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으로 목회자의 부흥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비전에 따른 혁신적인 목회구조를 만들어서,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가 동일한 비전으로 사랑과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에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지않고 부흥을 열망해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했다.²⁴³ 부흥은 아무 곳에도 임하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뭔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남반부 쪽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이전에는 기독교 중심지가 북반부였는데, 지금은 중남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단, 중국등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남미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브라질은 인구가 2 억 2 천만명인데 6 천만명이 강력한

²⁴² http://www.christiantoday.co.kr/home/news/services/email.php?article_id=261814

²⁴³ Jonathan Edwards, “An Humble Attempt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1747

성령운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되었다. 나라의 체제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다. 니과라과, 과테말라, 아르헨티나에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엄청난 교회부흥들이 일어난다. 인도네시아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의 물결의 진원지는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만드시는 원동력이다.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은 남반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비스 콕스(Harvey Cox) 역시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²⁴⁴ 말씀과 성령의 목회가 미래 목회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혁신과 목회 리더십,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맞춘 예배와 양육과 선교로 교회를 구조 조정하여 부흥을 시켜나가야 한다.

a) 교회를 목양적인 공동체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주위에 있는 이민교회를 보더라도 적지 않은 한국교회들이 겉모습만 기독교적인 모습을 띄었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교적이며 관료적인 구조를 가진 교회들이 많다. 교회의 핵심가치는 목양적인 가치적인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 체질이 관료주의적인 체제가 될 때 교회가 병들고 시들고 문제가 생긴다. 목양적인 교회로 나가면서 교인들이 진정한 관계의 질이 성숙되고, 교인들이 서로서로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 여년 동안 목양적인 교회로 나가면서 분쟁해결 및 사랑과 치유가 일어나고 목양본질의 공동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로 양을 치는 곳인데, 교회의 핵심가치는 목양 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목양적인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평신도까지 목양 정신이 충만해야 한다. 목양 정신이 충만한 리더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들의 인격과 존재를 통해 영적 감화력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섬김의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목양적인 리더들은

²⁴⁴ 하비스 콕스(Harvey Cox), "종교의 미래", 서울: 문예출판사, 201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다.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보는 목양적인 구령의 정신이 충만한 것이 목양 정신을 가진 리더들이다.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예전에는 교회안에 행정조직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역이 있었다. 구역은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 뿐이다. 교회의 조직으로 마지못해서 참여 하는 것을, 정말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했다. 장로와 안수집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고, 인격적인 리더십으로, 목양적인 리더십으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교회가 목양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곳에 규제가 들어가고 독선이 들어가고 과잉 행정이 들어가고 교회에 영적 생명력이 상실하는 일이 일어난다.

b) 구체적인 사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목회를 할 때가 많다. 신학적인 담론은 열심히 하지만,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현상적인 교회론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영적 성장을 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훈련이나 사역의 장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검증된 실제 적용되는 교회 훈련을 만들고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 팀사역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헌신하도록 하여 교인들이 수평적인 사역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 전체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수의 리더들만이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burnout)된다. 목회자들과 장로들만 그라운드에서 뛰고 나머지 성도들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방관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교회는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독려해서 그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 하여야 한다. 모든 교인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 현장과 사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

가동이 되지 않는 조직은 구조 조정해서 없애고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공동체 현장이 되어야 한다. 필자 역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방향성을 잊지 않고 왔다. 교인들 스스로가 비전을 갖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사역 팀을 만들고, 교인들이 선교에도 동참하고, 지역사회도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 받은 교인들이 자기 은사 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사역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성육신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교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사역공동체로 변화되며, 궁극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c)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그 에너지들이 선교에 흡수되면서 그로 인해 교회에 거룩한 비전이 생기고, 합일 점이 생기고, 교회에 영적 건강이 찾아온다. 그러한 예로,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해외선교 사역원이 있고 해마다 3-4 회의 해외선교사와 연계하여 단기선교를 떠난다. 주로 단기 선교그룹은 5-10 명으로 구성되어 장로나 안수집사가 리더가 되어 단교선교 팀을 꾸린다. 물론 각 단교 선교팀은 의료, 교육, 천산, 구제, 계몽등 뚜렷한 목적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훈련하며, 각 지역선교사를 돕는 후원으로 제한을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단기선교 전에는 기도로 무장을 하고, 단기선교 이후에는 선교의 결실들을 점검해 보고 다음 해를 위한 더 나은 보안책과

계획을 서로 의논하고 1 년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도록 한다. 이렇게 성도들이 선교지로 가서 직접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다니고, 집을 빌려서 저녁에 모여 선교에 대해 토론을 하는 가운데, 평신도들과 당회원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자각했고, 5 명의 시무 장로와 평신도 리더들이 각각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되었다.

교회 자원을 선교에 집중할 때 교회의 영적 건강이 찾아온다.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것은 교인 모두에게 도전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교회내의 소소한 분파 문제와 갈등의 문제들에서도 선교로 눈을 돌리게 하고 회개케하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기도의 역동성이 생긴다. 기도후원자들은 한달에 2-4 번 만나서 함께 기도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은혜받고 힘을 얻고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활성화가 되는 축복이 있었다.

d) 선교를 통한 2 세 교육

교회가 2 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를 시키는 방법은 선교이다. 결국 2 세 아이들이 선교지로 나가면서 변화한다. 이들은 선교지에 가서 미로서 자신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사는지 깨닫는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일생에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힘든 훈련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변하게 된다.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터이다. 아이들의 과학주의적인 사고관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변화한다. 매년 아이들은 선교지에 가기전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서 돌아와 보고하는 사이클이 서너달씩 간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부모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영향력을 끼친다. 그들이 졸업할 때는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한다. 캠퍼스 세속화 물결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졸업 할 때는 캠퍼스 선교사 파송식을 한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선교만큼 좋은 사역의 도구가 없다. 선교의 은혜에 눈을 뜬 아이들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도 많다.

e) 실버선교회의 선교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청지기의 은혜가 있다. 교인들을 헌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교의 영이 임하니 교인들이 지갑을 연다.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70 세이상 교인들로 구성된 실버선교회가 있다. 그분들도 선교지에 나가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한다”며 비자금을 헌금한다. 2015 년도에는 교인들이 20 만불을 선교를 위한 작정 헌금을 했다. 그 20 만불은 선교를 열심히 했기에 모인 헌금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선교사역원에 그 재정을 할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하면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고, 교회재정이 어려워질때 가장 먼저 선교비를 동결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E. 변화를 이끄는 목회상담 심리학적 접근

오늘날의 많은 목회상담학자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영적,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병적인 증세들을 성경을 목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연결하며 적용하며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목회 상담의 중요한 목적은 영적 혹은 심적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 상담이 번번히 좋은 결실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성경(text)에서 시작해서 문제의 상황(context)으로 가려는 오랜 습관과 고정 관념들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역하는 이민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민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많은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인간 관계적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1 세대와 1.5 세대들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가 내재해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면서 두 문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갈등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이슈들과 자아 정체성의 고민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내적 갈등들로 인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커뮤니티에서 갈등의 소재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이민을 어느 시대에 왔는가, 몇 살 때에 왔는가, 무슨 직업으로 왔는가, 그리고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할 때 누가 마중을 나왔고, 처음에 직장을 누가 소개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자아 정체성들이 변해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민자들은 그들의 정신적, 심리적, 영적 갈등들도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는 대부분 세탁소, 잡화점, 야채 가게, 청소업, 도넛 가게 등 매일 평균 12 시간 이상 육체 노동을 해야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블루컬러 직업(blue color occupation)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서 오는 자괴감 또한 심각하다.

이민 1 세와 그의 자녀들인 2 세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언어적 소통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 1 세들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반면에 2 세는 미국적 생활 방식을 요구한다. 1 세 문화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유교적이며 전통적인 기대를 하는 문화이다. 반면, 2 세들은 자녀와 부모가 평등한 친구 같은 관계를 요구한다. 1 세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집단 중심 주의 경향이

있고, 2 세는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다. 1 세는 눈치와 분위기로 상황을 판단하며 의사소통하는 '고맥락(high context)'의 문화를 소유한 반면, 2 세는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직접적인 언어로 논리 있게 표현하는 '저맥락(low context)'의 의사소통 훈련을 받는다²⁴⁵. 이러한 이민 교회 안에서의 역동성이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담 치유 사역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문제는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의 필요성을 바로 진단하고 상담하며 성경적인 접근 방법들을 연구하며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 이럴 때 성도들의 진인적인 회복과 영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1)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성경적 세계관

설교와 성경공부 그리고 일대일 제자훈련 또는 소그룹을 인도할 때에 상담을 할 때에 성도들의 세계관과 현실적인 상황(context)과 문제와 갈등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나 성경공부, 일대일 제자훈련, 소그룹들은 그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느냐에 따라 내담자를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방향성에 큰 차이가 있다. 기독교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이관직은 상담사의 세계관과 내담자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서 영적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상담사의 세계관은 중요하다.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견지하는 기독교 상담사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²⁴⁵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홀(Edward T Hall)의 국가별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를 연구한 그래프와 호프스테드(Hofstede)의 네 가지 문화적 가치 지향의 그래프를 참고해 보면 한국은 고맥락 문화권에 속하고 미국은 저맥락 문화권에 속한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언어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한마디에 10 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언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한마디의 말은 그 자체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법을 덜 중요시하고 개인의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보증서 역할을 한다. 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적인 문서 또한 서면으로 보증한다. W.J. Keegan(1984), *Multi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110

상당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본주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다. 기독교 상담사는 이 사권을 기준으로 삼고 상담자의 삶과 이야기를 이해하며 해석한다. 내담자는 하나님의 주권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²⁴⁶

신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제시하는 표준으로서 제국화된 성경 말씀은 인간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며 성화 되는 인간, 그리고 완전의 회복되고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로 영화롭게 된 종말론적인 인간이다.²⁴⁷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인간을 음바르게 이해할 때에 비로써 현실의 영적인 갈등과 문제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참 가치와 자유함을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변함없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진파했듯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며 고통은 회피하며 경감시키려는 마음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이다.”²⁴⁸ 인간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이상화’하고 ‘애착’한다. 감정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죄악의 낙을 추구하다가 중독자로 전락하는 자기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 상담자는 그들이 씨름하는 중독적인 삶을 중독의 공감하면서도 상담과 신앙의 도전을 통해 중독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²⁴⁶ 문서 선교회, 1991, 3.

²⁴⁸ Ibid, 25

²⁴⁷ 재인용, 후크마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시켜 본래적 형상, 왜곡된 형상, 새롭게 된 형상 그리고

²⁴⁶ 이관직, “성경으로 본 기독교 상담”, 도서출판 지혜와 사랑, 2016, 20-21

해야 할 것이다. 이민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참된 영적 욕구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적인 재물의 풍족, 육체적 욕구들의 충족, 세상적 자랑거리들로 채우려고 하며,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한 세계관이 목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질 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의 해결과 함께 진정한 영적,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상담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 즉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영적인 성장²⁴⁹과 발달 과정을 거치며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회 상담의 올바른 상황화

히버트(Paul G. Hiebert)는 생의 마지막 저작인 “Transforming Worldviews”에서,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형”을 수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세계관의 변형을 아우르지 못한 채 ‘회심’의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 그 회심자는 “기독교적 이교주의의 삶”²⁵⁰을 살게 되고 결국 그 ‘회심’은 거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²⁵¹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상담을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사실 많은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진파와 현지인들의 ‘회심’을 목적으로 한 사역과 목회상담에

²⁴⁹리차드 포스터 & 에밀리 그리핀, “영성고전산책”, 방성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2, 8-11.

²⁵⁰ 교회에 다니는 신자로서 외견상의 모습과 신념은 기독교적인데 일상에서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결정하는 가치관은 비기독교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신념이 바뀌어 회심을 했지만 사고방식과 행위는 여전히 옛 세계관의 포로가 되어, 옛 관습을 좇아 살면서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함축하고 있다.

²⁵¹ 폴 히버트,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601.

있어서 '컨텍스트'에서 출발하여 '텍스트'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예수님의 성육신적 제자 교육이 그러하였고, 중국 내지 선교로 현지 상황을 먼저 이해하여 '컨텍스트'안에 내재되어 있는 '텍스트'의 필요를 이끌어 냄으로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였던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1832-1905)가 있었다. 그후로 계속 이어진 선교 현지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여러 가지 방법론과 이론들로 '컨텍스트'를 중요시하는 선교 신학들이 선교의 주류를 이루어 오고 있다.

하지만, '컨텍스트'에서 출발하여 '텍스트'와 연결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컨텍스트'를 위해서 '텍스트'를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종교 문화적 혼합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컨텍스트'에서 출발하고 '텍스트'로 연결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견해나 시각이 비성경적이지는 않은지 '성경'의 기준으로 비판적인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가 필요한 것이다.

비판적 상황화의 개념은 폴 히버트 (Paul G. Hiebert)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히버트는 종교적 혼합주의 및 민족우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판적 상황화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²⁵²

첫째, 비판적 상황화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서 심각하게 취급한다. 즉 성경이 문화를 판단하는 잣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비판적 상황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²⁵³

²⁵²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191-92

²⁵³ William A. Smalley, "Cultural Implications of an Indigenous Church," Readings in Missionary Anthropology II. ed. by William A. Smalle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8, 366-69

셋째, 비판적 상황화는 교회로 하여금 해석학적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교회는 성서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는 모든 사역과 목회 상담에 있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크리스찬은 언어와 종족과 신앙의 경계를 뛰어 넘어 비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becoming Christ-like)을 경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²⁵⁴ 비판적 상황화는 교회가 복음(text)을 신자들의 삶(context)으로 통합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다.²⁵⁵

3) 성도들의 이중적 세계관

성도들과 소그룹이나 성경공부를 할 때의 모습과 기도회를 할 때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경험한다. 소그룹이나 성경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그들은 은혜롭고 지극히 성경적인 대답을 하거나 적용점들을 말한다. 그러나 기도회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이나 기도제목을 나눌 때에 그들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기도 제목을 통해 그들의 솔직한 내면을 보게 되는데 의아 하게도 그들이 성경공부시간에 말했던 성경적인 대답이나 적용점들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의 고민이나 걱정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된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고 있다. 성경공부를 한다고, 주일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 아직도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기도제목을 열거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거나 성경을 참고 하지도 않은 채 걱정만 하는 사람도 허다하다. 그들의 삶 가운데

²⁵⁴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17

²⁵⁵ Louis J. Luzbetak, "The Church and Culture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133

하나님보다 고민이 그 고민을 하게 만든 그 상황들이 훨씬 더 크다. 그들의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과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이 원하는 부와 권력,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등을 얻기 위한 “소원 성취형”이다. 두 번째 부류는 가정과 사회 또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고와 갈등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형”이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분석해보면 성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불신자들의 세상적 가치관과 물질관과 별 차이가 없다.

첫 번째 부류의 “소원 성취형”은 세상적 물질을 우상시하고 우선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많은 재물과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기도제목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지위와 권력을 쫓아가며 세상의 경쟁자들 보다 뒤처질 것을 염려하며 안절 부절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과 자녀들의 좋은 학업 결과와 좋은 대학교 입학, 월급이 많고 안정된 직장 취업,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집안과의 결혼, 사업의 확장 등등 이다.

두 번째 부류인 “문제 해결형”을 보면,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에 성도들의 평균 연령도 점점 올라가다 보니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과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다.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치유 집회를 쫓아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들과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을 간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성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인도하는 목자로서 성도들이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성경적이 잣대로 점검하여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성도들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세상적인 기준인지 성경적인 기준인지 면밀히 점검하게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의 인식과 깨달음의 도전은 한 두번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조차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고있는 한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혼합주의적 세계관²⁵⁶의 영향에 물들어가고 또는 이미 그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나 리더들은 히버트가 경고하는 “기독교적 이교주의”의 삶에 빠져들고 있다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4) 목회 상담에 있어서 심리학과 성경의 필요성

목회상담은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상담하며 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상담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또한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교회공동체에 소속된 내담자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교회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며,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교회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성도나 가정이 영적 혹은 심리적 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해간다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서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²⁵⁶ 혼합주의적 세계관: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유익한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다.²⁵⁷

다시 말하면 기독교 상담이란 정신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다이어니스(Dyrness)가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규칙이라고 정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Shalom)을 그 목표로 한다. 찰스 크래프드는 비고 소가드(Viggo Sogard)의 말을 인용하여 “샬롬”관계는 다섯 가지의 관계들을 구성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이다(1996:p236)²⁵⁸ 라고 했다. 이러한 다섯가지 관계의 회복, 즉 “샬롬”을 이름으로서 성도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목회적 상담을 할 때, 프로이트 이후 계속 발전된 심리학의 연구와 이론들은 실제적으로 다양한 병증들의 분석적인 면과 치유와 대저라는 방면에서 많은 유익을 준다. 하지만 목회상담에 적용하는 심리학의 유용성에 대하여 접근할 때는 두 가지의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심리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것을 아무런 비평 없이 그대로 교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심리학 자체를 세속적인 것으로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것이다.²⁵⁹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하나님, 우주, 인식론, 병리학등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성경적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하는 것이 목회 상담이며 일반 상담 심리와는 구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⁶⁰

²⁵⁷ 이관직, “개혁주의 목회 상담학”, 도서출판 대서, 2012, 49

²⁵⁸ 찰스 크래프트,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성육신과 상황화 원리”, 김요한 백신종 옮김, 생명의 말씀사, 2007, 515

²⁵⁹ Ibid, 16

²⁶⁰ 김태목, “목회자의 상담”,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1970, 214

목회적 상담은 이러한 성경을 기초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 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²⁶¹ 이런 일련의 성경을 기초로한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신학적 배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²⁶²

물론 이러한 목회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과 결과의 유용성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정확무오하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유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충분한 말씀이며 삶의 기초인 것이다. 게리 콜린스는 목회 상담자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성경을 내담자에게 건네주고 지시하는 본문을 본인이 직접 읽게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²⁶³ 목회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의 이웃과 화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깨어지고 상처난 죄인된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목회 상담에 있어서 심리학과 정신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경적 상담학 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독교 상담이란 당연히 내담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뢰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속 심리학과 정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심리적

²⁶¹ 전영복,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엘멘출판사, 1993, 29-31

²⁶² Ibid, 67

²⁶³ 게리 콜린스,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옮김, 서울: 두란노, 1998, 40

역기능에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 분야는 전문적인 정신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독특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²⁶⁴

이같이 목회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속에서 목회 상담의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다면 이는 당연히 예수이다. 예수께서는 위로(comforting), 축복(blessing), 능력 부여하기(empowering)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힘을 실어주었던 가장 뛰어난 상담자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의사 였다. 그분은 사람들을 치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개별적 인격체로 대하셨으며,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고,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었던 완전한 것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시기에 가장 훌륭한 정신과 의사였다.”²⁶⁵

예수님께서는 “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²⁶⁶, 자신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셨고,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의 근원을 드러내셨고, 상처의 치유의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치유인 영혼의 치유와 구원의 문제까지 깨닫도록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로버트 클린턴(Robert Clinton)은 그의 저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에서 지도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고통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하며 영적 내면이 성숙해지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고 위치만니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워치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렸다. 그럼에도 그는 폐결핵 판정을 받았다.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사역에서도 떠나 기후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있었던 것은 단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얻으려고 결심했다.

²⁶⁴로렌스 크랩, “성경적 상담학 개론”, 전요섭 옮김,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7, 14.

²⁶⁵ 던컨 부캐넌, “예수 상담의 실제,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옮김,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7, 15

²⁶⁶ 개역개정, 요한 복음 2:25

고립되어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사역자에게 있어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발견한 것을 책에 자세히 기록했다.”²⁶⁷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목회 상담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또한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며, 영적 변화와 성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이다. 이러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치유는 영적 치유와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결국 목회 상담의 총체적 목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담자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나라모(B. Narramore)는 성경적을 기준으로 삼는 목회 상담을 다음과 같이 서술 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할 수 있다. 둘째, 인생의 의미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절대적 지침서로 활용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한다. 즉 인간의 본질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궁극적 해결에 관한 해답을 얻게 된다. 다섯째, 죄와 죄책감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대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다.²⁶⁸

5) 죄와 정신병리

제랄드 메이는 “중독과 은혜”에서 진정한 중독 상태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1)내성, (2) 금단 증상, (3) 자기 기만, (4) 의지력 상실, (5) 주의력 왜곡이다.²⁶⁹ 이 다섯 가지

²⁶⁷ 로버트클린턴, “영적 지도자만들기”, 이순정, 이영규 옮김, 베디니출판사, 2014, 214

²⁶⁸ 던컨 부캐넌, “예수 상담의 실제,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옮김, 서울:아가페 출판사, 1987, 39

²⁶⁹ 제랄드 메이, “중독과 은혜”, 이지영 옮김, Korea InterVarsity Press, 2005, 40

특징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중독된 영역을 규명해 내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자유를 누리는 상태와 중독의 노예가 된 상태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이 중독이라는 현상은 크리스천들이나 불신자들 모두에게 잠정적인 유익이나 즐거움, 쾌락을 약속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독은 그들 모두에게 장기적인 손실과 고통, 더 나아가 파멸을 가져오는 특징과 힘을 아울러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중독의 특징과 능력을 알면서도 중독에 매이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붙들리기도 한다.²⁷⁰

아키볼드 하트는 모든 중독 현상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분모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째, 중독은 중독자를 자신이 경험하는 진실한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중독은 중독자를 완전히 지배(통제)하며 그 지배력은 모든 논리나 이성을 능가한다” 셋째, 중독은 반드시 일시적인 쾌감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넷째, 중독은 결국 중독자를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파멸로 이끈다. 다섯째, 중독 행동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여섯째,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부인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일곱째, 중독은 뇌에 자극을 줌으로써 생화학물질이 분비 되는 것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모든 중독은 물질관련(substance-related) 중독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독 행동에는 심리적 의존을 내포하고 있다. 하트는 중독의 핵심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중독은 진정한 실존을 인식하고 견디고 경험하는 것을 둔하게 한다. 중독은 우리의 본질적인 감정을 가리거나 덮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다.”²⁷¹

하트의 중독 이해로부터 우리는 “중독이 개인의 자기 인식, 심리적 안녕, 대인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 개인이 가진 전인격적인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차단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행사한다”²⁷²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²⁷⁰이관직, “개혁주의 목회 상담학”, 도서출판 대서, 2012, 362

²⁷¹아키볼드 하트, “숨겨진 중독”, 번역:윤귀남, 참미디어, 1997, 26-32.

²⁷² 이관직, “개혁주의 목회 상담학”, 도서출판 대서, 2012, 366-367

치료책은 점준이다. 점준하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점준하려면 구속주 예수

원만해서는 죽마음을 노출하지 않는다. (138)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예방책과

대하여 불신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경계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담사에게조차

또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없이 살아가며 의존 욕구가 거의 없다. (137)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공감력이 부족한 것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섬에 사는 사람처럼 외부세계와 교류가 거의

3. 교만: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증상들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 대한

필요가 있다. (135)

인식시킴으로써 우월이 크리스천의 여정에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이 아님을 깨우칠

내담자들에게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자들이 우월과 겸손하다는 사실을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과 연결될 수 있다. (133) 기독교상담사는 우월과 겸손하는

환자의 자기에 대한 도식은 주로 부정적이며 평가절하적이다. 더 나아가 이 도식은

세상에 대한 도식과 타인에 대한 도식과 자신에 대한 도식에서 왜곡되어 있다. 우월을

속에서 무력해진 자괴감, 가치 없는 자괴감을 갖고 살아간다. (132) 우월증 환자에게는

2. 우월: 지속적으로 힘을 빼앗아 가는 '악한 시스템', 또는 '역기는 시스템'

된다. (123)

수반되지만, 죄를 버리면 불안과 죄책감이 물러가고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게

척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117)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수치심, 불안, 죄책감이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 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였던 것 처럼 자신들의 죄성과 불안을

1. 불안 (Anxiety):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서도를

생각되어 "성경으로 본 기독교 상담"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법으로 알아두면 전반적인 복회와 사역 그리고 목회상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원리적 목회 현장에서 성도를 사이에 원이냐는 대표적 병리원상과 적절한 대응

그리스도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 (141)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얼마나 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해 질 수 있다.

4. 시기: 분노와 시기는 결국 자신의 몸과 뼈를 상하게 하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의 용서심리학에서는 용서의 치료적인 효과는 일차적으로 용서하는 자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144)

5. 아침 및 자랑: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증상이다. 연극성 성격장애이기도 하다. 아침하거나 자랑하는 행동 밑에 깔려 있는 동기와 역동성에 대하여 내담자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스스로 그 행동을 싫어하도록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다. (145)

6. 탐욕: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들 중의 하나인 '탐욕'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는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며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151)

7. 인색: 재정적으로 인색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십일조이다.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 때 물질에 대한 애착과 인색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십일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강박적인 성도들의 마음을 넓히며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치료책이자 은총이다.(154)

8. 탐식 (gluttony):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는 동반 의존성 문제와 씨름하면서 고통을 겪는다. 한사람의 문제가 전체 가족에게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156) 정신분석학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대식증(bulimia)을 구강기에 고착된 질환이라고 해석한다. 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먹는 것을 통해 심리적

시카고 지역에서 문제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어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적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성도들 간의 관용이 지속되면서 원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 지난 몇 년간 교회 내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6) 이민 교회 안에서 목회자됨

한편으로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것도 목회자의 자세인 것이다. 원근하게 찾음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다른 원천적인 연약함과 죄성과 병리성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사슴이 시냇물을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인간의 포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의 전까지 그의 게으름과 빈면하게 약삭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이해하며 함께 동역하며 섬겨야 하는 동역자에게 병리적인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그리스도와 함께 남마다 죽는 것이다.(177)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식이 물세례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 없다. 세례도 마찬가지이다. 물세례 자체는 세례 받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예수 치료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육신의 할례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두기 싫어하며,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미련한 자들이다. 해석적인 10. 약의 심리학: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못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치명적인 삶을 산다.(161)

나태는 죽음에 이르는 열곱 가지 죄들 중의 하나다. 게으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전강하지 것이다. 삶에서 주인의식이 약하다. 둘째 특징은 파도하게 줄거나 자는 것이다.(159)

9. 나태 (laziness): 첫째 특징은 수동적인 삶의 태도다. 하지 못해서 행하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157)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음식을 탐하는 욕구가 지나칠 수

격감하였다. 이러한 교회 내분이 4 년동안 지속되자, 교회안에 소문들의 진의를 떠나서 교회내 분쟁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특별 감사팀을 통해서 교회안에 악소문들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소수의 장로들과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불만과 문제들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무명의 블랙메일을 전교인에게 배포하였고 끝내 그들은 교단에 담임목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교단 감사팀의 조사 역시 담임목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내분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내분을 더 이상 교회가 감당할 수 없어 그 동안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송사를 지속해오던 10 명의 성도에게 “5 년동안 교회의 모든 성도의 권한을 박탈하고 교회에 접근하지 말 것”을 지리 결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평소에는 비소와 경건함의 모습만 보였던 장로와 성도들이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지금은 극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되는 시기임에도 아직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많다. 교회 갈등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안, 우울, 교만, 시기, 아첨과 자랑, 탐욕, 나태, 환상 추구, 자아동조성, 지식이 없는 열정, 악의 심리학등의 여러 가지 죄적 병증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공동체안에 심리적 갈등상황이 생기면, 잠언 1:10-16 에 말씀하는 악인의 행동 특징들이 들어난다. 첫째, 악인은 ‘피며’(entice) 유혹하고 속인다. 둘째, 악인은 “우리과 함께 가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동료의식을 부추긴다. 더 나아가 공범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는 혼자서 지옥에 가지 않고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함께 지옥에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셋째, 악인은 “죄 없는 자의 생명을 죽이는” 자다. 무작위로 공격하거나 살인하는 것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과 영적 살인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과 환경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이 거의 없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회병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넷째, 악인은 “숨어서 기다리며 공격하는” 자다.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공격한다. 다섯째, 악인은 “빼앗은 것으로 자기 집을 채우는” 자다. 매우 이기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여섯째, 악인은 그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자다. 이들의 공격적인 충동성이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돌아다닌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태연하게 재연한다.²⁷³

게리 콜린스는 성경이 중독에 대하여 교훈 하며 생각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어떤 것도 너희를 주창하지 못하게 하라, 2) 성경은 법을 지키며 살 것을 가르치므로 법을 지키라, 3) 악물이나 중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4)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잘 관리하라, 6) 악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립하려고 하지 말라, 7) 절제를 실천하라, 8) 어떤 행동에 매이지 말라, 9) 술 취하지 말라, 10) 성령으로 충만하라.²⁷⁴

7) 목회 상담의 목표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변화와 회복의 변화이다.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생각, 감정, 행동, 의지 등의 전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내담자 안에 삶의 실제로 경험되고

²⁷³ 이관직, “그레이스 신학교 목회상담 강의안”, 2016, 29-31

²⁷⁴ 게리 콜린스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두라노, 2008, 747-48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므로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자라가서,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근거를 두는 일반 상담의 도움을 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영성이 강조된 성경적 상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경적 상담사협회(ABC)은 “나는 성령이 영감 받은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 상담을 위한 유일하게 권위 있는 기준이 된다고 확신한다.”²⁷⁵고 신앙 진술을 선언한다.

병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와 상담에 있어서 치료 자체 보다는 우선 되어야하는 것은 내담자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은 주로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혹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증들을 쉽게 목회자나 목회 상담자에게 내어 놓지 않는다. 따라서 내담자가 이러한 병증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목회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선택받은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확립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며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내담자가 죄된 인간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근본적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잠재되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병증들과 갈등의 요인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참된 회개 없이는 병증의 치유도 영적 변화와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²⁷⁵로저 허딩, “성경과 상담”, 문희경 옮김,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24. 1981 년 영국에서 설립된 성경적 상담사 협회(the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는 상담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증진하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국제 성경적 상담사 협회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관직은 목회 상담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담자의 첫째 목표는 내담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과정에서도 내담자가 좀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삶에 모험하며 결단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 내담자가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 하자면 지혜롭고,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fair) 행동을 하는 '지정의' 의 기능이 발달하며 변화하는 것이다. 셋째, 삶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 신중한 삶을 사는 것이다." ²⁷⁶

신앙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과 안전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성장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하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는 목회상담의 핵심적인 우선과제는 인생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에만 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 소식 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

내담자나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성과 병증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 죄성과 병증들을 적극적으로 혐오하면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죄와 죄된 습성과 병증들로 가득찬 자기의 옛 모습과 삶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죄에서 자유한 진실된 의로운 새 자아를 입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²⁷⁷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물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²⁷⁸에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반응하는 내담자의 순종의 자세가 그 영적 변화와 성장의 성화 과정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내담자나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변화와 성장의 성화의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목회 상담의 핵심 목적이다. 그렇게 성도가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²⁷⁶이관직, "성경으로 본 기독교 상담", 도서출판 지혜와 사랑, 2016, 209-210

²⁷⁷ 개역개정, 에베소서 4:22-24

²⁷⁸ 성령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주시며 지혜를 주신다.(요 14:17, 15:26)

살아가도록 돕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성도의 회심과 성화가 정확한 단계로 나눌 수 없듯이 기독교 상담의 진행 과정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관직은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상담을 통해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 추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백퍼센트 하나님을 뜻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리적 이슈들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마음이 나뉘며 분산될 때가 적지 않다는 점을 하나님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며 회개해야 한다.²⁷⁹

기독교상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내담자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조명과 사명을 잘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이 대한 정확한 인식하고 성도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손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정체성과 소명과 사명의 올바른 인식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명화 인식과 깨달음은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힘이 된다.

특별히 복회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영적 정신적 심리적 위기 상황에

있는 내담자가 자신이 삶의 왕좌에 앉아 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으며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내담자를 인도해야 한다.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²⁷⁹ 이관직,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 도서출판 지혜와 사랑, 2016, 235

이관직은 그의 책 “성경으로 본 기독교 상담”에서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위기의 특성, 위기의 의미,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위기상담 방법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위기의 특성을 여섯 가지 소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예측할 수 있는 위기도 대처하기 쉬운 것이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는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는 인간의 핵심 문제인 불안을 자극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위기는 무엇인가를 잃게 하는 상실 경험을 유발하며 따라서 위기를 당한 사람은 슬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는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도 경험되며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위기는 위험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성숙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위기는 평생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설명 평생 지속되는 위기라 할지라도 영원성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참으로 밤의 한 정점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문제는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²⁸⁰

어쩌면 이러한 위기는 내담자가 영적 성숙과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의 영적 초청이기도 하다 바로 위기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영적 정신적 심리적 위기 상황이 목회 상담자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영적 회복이 되는 전환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민 교회에서 적절하고 성경적인 목회 상담은 이민 목회에 있어서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 그와 더불어 교회의 성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성도의 내적 위기는 세계관에 큰 틀이 바뀌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성도의 근본적 핵심 가치관이 세계관이 하나님

²⁸⁰ Ibid, 410-411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그 다음의 신념 체계와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확실히 변화될 것이다. 폴 히버트의 주장대로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심”²⁸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²⁸¹폴 히버트,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601

제 5 장 결 론

1. 결론 요약

본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함께 사용한 혼합적 연구는 시카고 지역의 4개 교회의 이민 1세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이민 교회의 성도들이 이민 교회 안의 여러 가지 교회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해 나가는가를 조사하였다. 성도들의 영적 변화의 동기와 변화의 과정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결과들은 이민 교회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6 장에서는 결론부로 연구 가설에 근거하여 요약하고 본 연구로 발견할 수 있었던 점들과 몇 가지 적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 이민 교회의 성장을 멈추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가운데서 시카고 인근 한인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자들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목격해 왔다. 영적인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 교인들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아왔다.

또한 이민교회 안에 모든 예배와 종교예식들이 이미 형식화 되어있고, 교회의 운영과 관리 또한 제도화 되었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는 이민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의 “Exodus” 출애굽 현상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시카고만 보더라도 많은 이민교회들이 교회내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로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있을 뿐이다. 새로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들을 찾아 보기 힘들다. 시카고 인근의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연구과정에 발견한

“회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있어서 그들의 행위와 신념과 세계관의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과연 그 정도가 변화들이 감지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그 반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일어난 때 교회 안에서 그들의 행위와 신념과 세계관을 모두 아우르는 영적인 대한 주장을 가설의 배대로 삼아, 과연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영적 “회심”이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를 동반해야 함”²⁸²에 월자는 가설에서 롱 히버트가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문화의 세 가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들이라 생각된다.

나아가는 소비자 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의 세속적인 문화화로 교회의 문화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동조하고, 섞이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위에 세속의 문화를 개혁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형식적 제도적인 문제를 때문일 현상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급격한 속도로 청년층이 교회안에서 사라지고 이민 1.5세와 2세들을 교회를 떠나는 서론과 가설들을 기록할 때 예측했던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2017년 여름 문 연구 논문을 시작하면서 연구에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하고 그리고 종교등부가 교회 안에서 없어졌다.

청년들과 유조등부와 종교등부의 학생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청년부와 유년부, 지역의 이민 교회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중소 교회들에서는 교인들의 평균 연령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카고 인근 사항은 몇 년 전 보고 된 이민교회 현황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도로 교회와

필자는 가설에 근거하여 먼저 세계관의 변화가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용 통째 알 수 있었던 몇 가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영적으로 변화 받고 성장하고 싶는가”라는 미래적 질문에 82.7%의 압도적인 비율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라는 영적 변화와 성장을 희망하는 답변을 하였다. 반면 “현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가 진단 질문에는 오직 23%의 응답자만이 “매우 그렇다”에 답을 하여서 많은 응답자들이 영적 변화와 성장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만큼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신의 영적 성장에 방해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 92%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응답을 하였다. 나머지 8%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적 요인을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교회의 분쟁 혹은 목회자의 문제가 4%, 교회 성경 공부 혹은 영성 프로그램의 부족의 문제가 2%,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 관계 2%등으로 나타났다.

이런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23%가 자기 자신의 게으름이라고 대답했고, 21%가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랑등으로 영적 성장의 필요성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17%가 바쁜 이민생활과 가정 생활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13%는 세속적인 걱정 염려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12%가 세속 문화와 세속적인 욕심이라고 대답했고, 마지막 6%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영적 성장을 막는다고 대답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자신의 게으름, 자랑과 교만, 바쁜 생활, 세속 문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등 자기 자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성도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동성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성공과 행복은 물질의 풍족과 미려한가에 생각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이다. 동성결혼에 대하여 88%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3%만이 성공과 행복은 물질의 풍족과 미려한가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필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아직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지 못했거나, 또는 아직도 이중적 세계관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응답자들중 오직 54%만 현재 자신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 중 92%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현재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의 세계관이 아직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세상적인 세계관, 신념, 행동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가 진단한 54%의 응답자들조차도 좀 더 깊은 연구 조사를 실시한다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거나, 또는 성장해야 하는 기대치가 턱없이 낮은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계속해서 그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 주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응답자의 24%가 예배와 설교라고 대답했고, 찬양 7%, 성경공부 33%, 영적 교제 8%, 전도 및 선교 훈련 3%, 제자 훈련 1%, 기도 4%, 큐티 6%, 고독과 환란 13%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7% 응답자들이 변화와

성장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설교와 성경 공부라고 담하여서 영적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필자는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신학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 교회 교회의 성장의 비전,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훈련을 위한 동역자 발굴과 훈련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유기적인 가정교회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 결핍들의 극복과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를 위한 추가적인 사역들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문화 충격, 개인의 개념, 세대,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하여 교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교육적인 접근을 통하여, 일반적인 교회 교육의 접근과 성화와 교차 문화 소통을 통한 교회 교육의 접근들을 비교하여 성화화된 설교, 성화화된 성경공부, 성화화를 고려한 소그룹을 제시하였다.

신교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모더니티와 소탈리티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 한인 이민교회의 선교적 교회 지향 및 문화를 통한 공동체로 혁신적인 사역공동체 즉 선교하는 교회를 제시하였다.

교회 성도 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기독교 성도의 정체성과 성경적 세계관,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교회 성도의 올바른 성화, 성도들의 이중적 세계관, 복회 성도에 있어서 신학과 성경의 필요성, 죄와 정죄, 이민 교회 안에서 복회성도, 복회 성도의 목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가설에서 언급하였듯이, 폴 히버트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를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세계관의 변화 없이 “회심”의 단계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면 결국 그 회심자는 “기독교적 이교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 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과 거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설에서 언급한 성도들의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을 모두 아우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만교회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필자는 5가지 측면에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첫째, 올바른 성경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비판적 상황화와 올바른 교차문화 소통을 통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이다. 셋째, 기독교 교육학적 접근이다. 넷째로 미션널 처치로서의 선교학적 접근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만 목회 성도들을 위한 목회 상담적 접근이다. 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특별히 이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물질주의 개인주의 등의 세계관에 젖어있는 자신의 죄 된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중심으로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함는 일이다. 필자는 히버트는 그의 책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에서 제시한 세계관의 변형을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는 세계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계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하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의식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또 무엇에 의해 형성된 사고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세계관에 노출되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각 개인에게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대안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에 비추어 그것들을 재검토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의식 만들기이다. 허버트는 중요한 전환점인 회심과 같은 사건을 뚜렷이 표시하려면, 신성한 것을 가리키고 그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살아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그 중요한 사건이 한갓 평범한 일상적인 경험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³

둘째로, 비판적 상황화와 올바른 교차문화 소통을 통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이다. 상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온전히 전달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우리의 행동의 100 퍼센트가 모든 측면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그는 문화화라고 말했다.²⁸⁴ 한인교회와 같은 미주의 수 많은 한인 교회들 안에서도 적합한 상황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이러한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국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교육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차 문화 소통”의 측면에서, 티문화권에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문화와 행동 방식을 존중해주고, 수신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설득자로서 성도들이 복음을 본질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인식하도록 권면함으로써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제시하여야 한다.

²⁸³ Ibid, 615

²⁸⁴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기독교 문화인류학”,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74.

셋째, 기독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민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교육, 특별히 설교와 성경공부, 소그룹등을 통해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할 때 성경의 문화와 현시대의 문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상황화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의 개인적 현실 상황의 고민과 갈등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교를 통해, 성경공부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현 세대와 지역의 문화와 언어로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미셔널 처치로서의 선교학적 측면의 접근이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미셔널 처치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강화시키는 운동(movement)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으로 목회자의 부흥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비전에 따른 혁신적인 목회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미셔널 처치로서 교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가 동일한 비전으로 사랑과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에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고 부흥을 열망해야 한다. 부흥은 아무 곳이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하신다.

다섯 번째, 목회 상담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 교회에서 적절하고 성경적인 목회 상담은 이민 목회에 있어서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 그와 더불어 교회의 성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성도의 내적 위기는 세계관에 큰 틀이 바뀌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다. 성도의 근본적 핵심 가치관이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그 다음의 신념 체계와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확실히 변화될 것이다. 폴 히버트의

주장대로문화의 세 가지 차원 즉 행위와 신념 및 세계관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심”²⁸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미국 이민 목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작은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고, 세부적인 연구들이 더 진행되고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민 교회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의 연구들을 후학들이 수정 보완 발전시켜 더 한층 성장하는 한인 이민 교회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본다.

²⁸⁵폴 히버트, “21 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601

부록 (APPENDIX)

I. 설문지

일반적 질문

1. 당신의 나이는?

- ① 20 대 ② 30 대 ③ 40 대 ④ 50 대 ⑤ 70 대

2. 당신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 당신의 최종 학력은?

- ① 중학교 혹은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4. 당신의 신앙경력은?

- ① 1-10 년 ② 11 년-20 년 ③ 21 년-30 년 ④ 31 년-40 년 ⑤ 40 년 이상/모태

5. 교회에서 당신의 직분은?

- ① 목사/전도사/간사/사모 ② 장로 ③ 권사 ④ 집사 ⑤ 기타

영적 성장과 교회 교육 프로그램

6. 당신은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매우 부정 1 - 2 - 3 - 4 - 5 매우 긍정)

7. 자신이 현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 3 - 4 - 5 매우 긍정)

8. 만약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을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시킨 주요 교회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환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첫째: _____ 둘째: _____ 셋째: _____)

①예배/설교 ②찬양 ③소그룹모임(셀/선교회) ④신앙의 친구 ⑤봉사/선교/전도

⑥제자훈련 ⑦중보기도/기도/영성훈련 ⑧큐티나눔 ⑨성경공부 ⑩은사개발

⑪리더쉽개발훈련 ⑫신앙상담 ⑬어려움/고난 ⑭개인적 문제해결 ⑮물질의 축복

기타: _____

9. 당신은 당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①제자훈련 ②중보기도/기도/영성훈련 ③큐티나눔 ④성경공부 ⑤은사개발

⑥리더쉽개발훈련 ⑦신앙상담 ⑧선교/전도훈련

기타: _____

10. 당신은 현재 당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러 개 선택 가능)

①제자훈련 ②중보기도/기도/영성훈련 ③큐티나눔 ④성경공부 ⑤은사개발

⑥리더쉽개발훈련 ⑦신앙상담 ⑧선교/전도훈련

기타: _____

11. 당신은 현재 당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주일의 몇시간을 쓰고 있나요?

①0~1 시간 ②1~2 시간 ③2~3 시간 ④3~4 시간 ⑤4 시간 이상

12.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여러가지 교육(설교, 성경공부, 기도,

제자훈련등)이 영적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 3 4 - 5 매우긍정)

13. 당신이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무엇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기록해주세요)

14.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이민자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 3 4 - 5 매우긍정)

15. 목회자가 이민자의 삶(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역(설교, 심방)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3 - 4 - 5 매우긍정)

16.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체는 무엇입니까?

(예: 목회자, 교회 리더, 친구, 책, 인터넷-미디어, none)

영적 성장과 현재 신앙 생활 (Transformed life)

17. 당신의 영적 성장이 교회(공동체) 성장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2 3 4 - 5 매우긍정)

18. 현재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역이 당신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매우 부정 1 2 3 4 - 5 매우긍정)

19. 현재 교회에 봉사(커뮤니티봉사, 진도, 선교활동등 포함)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시간을 쓰고 있나요?

1) 0~1 시간 2) 1~2 시간 3) 2~3 시간 4) 3~4 시간 5) 4 시간 이상

20.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현재 교회헌금(십일조, 선교헌금포함)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당신이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당신의 수입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①총수입의 10% 이내 ②수입의 11~12% ③수입의 13~15% ④수입의 15~20% ⑤20% 이상

22. 예배, 성경공부, 셀모임, 기타훈련등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평균)

①일주일에 3 번이상 ②일주일에 ③2 번일주일 1 번 ④격주 ⑤가끔

23.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일주일 평균)

①매일 ②일주일 2-3 ③일주일 1 번 정도 ④가끔 ⑤전혀 않함

24.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합니까?

①매일 ②일주일 2-3 ③일주일 1 번 정도 ④가끔 ⑤전혀 않함

25. 당신은 동성연애 혹은 동성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 3 - 4 - 5 매우긍정)

26.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혹은 “행복한” 삶과 물질풍족은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1 - 2 - 3 - 4 - 5 매우긍정)

28.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9.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나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답식)

II. 고지 동의서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Grace Theology Seminary 에서 선교/문화교류학(Doctors of Intercultural Studies)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김정태입니다. 본 설문지는 논문연구과정에서 “성도의 영적성장을 위한 교회교육”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귀하의 답변 하나 하나는 미국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교육을 연구하는데 귀하께 사용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10 분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모든 설문지는 무명으로 기록되어지며,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꼭 시간을 내시어 설문지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우 부정 1 - 2 - 3 - 4 - 5 매우긍정)와 같이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해당되는 정도의 번호에 0 표하시면 됩니다.

참고도서목록(Reference List)

1. 영문서적

-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trans. J. H. Freese, LC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
- Augustine, Aurelius, Sermon. 141, 4, 4; cf. Confessionum. 7, 18, 24; Doctrina Christiana. 1, 34, 38; Civitas Dei 9, 15, Gordon S. Wakefield, op. cit., 365 에서 재인용 Baker, Susan, *Globalization and Its Effects on Urban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William Carey Library, 2009.
- Barlund, Dean, *Communication in a Global Village,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ader. 6th ed.*, New York: Wadsworth, 1997
- Bosc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 Blake, Cecil A, *Rhetoric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 1979,
- Braynt, Donald C., *Rhetoric: Its Function and Scope*, Quaterly Journal of Speech, 1953
- Brooks, Phillips, *The Joy of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vi. 4.*, Wm. B. Eerdmans Pub. Co., 1995
- Cleverley Ford, D. W., *The Ministry of the Word*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Cole, Gtatham A., *Engaging with Holy Spirit: Real Questions, Practical Answers*, Crowway Books, 2008.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2007.
- Covey, Steven, *Principle-Centered Leadership*, Franklin Covey on Brilliance Audio; Unabridged edition, 2012.
- Craig, William Lane, *Reasonable Faith: Christian Truth and Apologetics*, Crossway Books, 2008.
- Dowsett, Rose, *Global Mission: Reflections and Case Studies in Contextualization for the Whole Church*, William Carey Library, 2011
- Drescher, Lutz, *Ende des Wachstums?—Die Protestantischen Kirchen Suedkoreas in der Krise*, in: Zeitschrift fuer Mission (Jahrgang XXI, Heft 2, 1995)
- Ecklund, Elaine Howar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Edwards, Jonathan *An Humble Attempt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1747
- Forsyth, P. T.,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3
- Gilbert, Greg, *What is the Gospel*, Crossway Books, 2010.
- Hall, Edward, *Beyond Culture*, Anchor Books, 1989
- Hesselgrave, David J., *Contextualization: Meanings, Methods, and Models*, William Carey Library, 2013
-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Hebert, Paul G. and Frances F., *Case Studies in Missions*, Baker Book House, 1987.
- Hoffecker, W. Andrew, *Building a Christian World View*, Copley Custom Publishing Group, 1998.
- Kreeft, Peter & Tacelli, Ronald, *Handbook of Christian Apologetics*, Intervarsity Press, 1994.
- Lee, Sang Hyun, *Korean American Ministry*, Louisville: PCUSA, 1993.
- Lucado, Max, *Cast of Characters: Common People in the Hand of an Uncommon God*, Thomas Nelson, 2008.
- Luzbetak, Louis J., *The Church and Culture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 Malphurs, Aubrey, *Advanced Strategic Planning*, Grand Rapid, MI Baker Books, 1999.
- Merriam, Sharan,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John Wiley & Sons, Inc, 2007.
-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 Mezirow, Jack,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The Jossey-Bass, 1991.
- Moreau, A. Scott & Gary R. Corwin, Gary B. McGee, *Introducing World Missions*, Baker Academic, 2004.
- Moreau, A. Scott, *Contextualization in World Missions*, Kregel Publication, 2012.
- Nanus, Burt, *Visionary Leadership*, San Francisco, Cal.: Jossey-Bass Inc., 1992.

- Park, Andrew Sung, *Racial Conflict & Healing: An Asian-American Theological Perspective*, Orbis Books, 1996.
- Plueddeman, Jim & Carol, *Pilgrims in Progress: growing through groups*, Harold Shaw Publishers, 1990.
- Richards, Lawrence O., *A Practical Theology of Spirituality*, Grand Rapids :Academic Books, 1987
- Soggard, Viggo, *Research in Church and Mission*, William Caey Liberty, 1996.
- Smalley, William A., *Cultural Implications of an Indigenous Church*, Readings in Missionary Anthropology II. ed. by William A. Smalle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8
- Steffen, Tom A., "Passing the Baton" , Center for Organizational & ministry Development, 2010
- Tisdell, Elizabeth J., *Exploring Spirituality and Culture in Adult and Higher Education*, Jossey-Bass, 2003.
- Wagner, C. Peter ,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Regal Books, 1990,
- Wilkes, C. Gene, *Jesus on Leadership*,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ing, Inc., 1998.

2. 번역서적

- F.F. Bruce, *사도행전 (하)*, 김재영, 장동민 공역, 서울:아가페출판사, 1986
- G. A. Peterson, *성인 기독교 교육*, 이정효 옮김, 서울: 마라나타, 1991
- J. 맥 스타일즈, *전도*, 김태곤옮김, 서울:부흥과 개혁사, 2016.

Walter Brueggemann, *Interpretation/현대성서주석 -사무엘상. 하*, 장성열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간하배, *교회성장신학*, 성광문화사, 1994

게리 콜린스,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두란노, 2008

게리 콜린스,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옮김, 서울: 두란노, 1998

고든 맥도날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윤종석 옮김, IVP, 2012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고린도전서*, 김일우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86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 전광규, 김진선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베드로전서*, 전광규, 김진선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 *LAB 주석 시리즈 요한복음*, 전광규 옮김,

서울: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김민선, *인간커뮤니케이션*, 범기수·박기순·우지수 옮김, 서울:커뮤니케이션박스,

2008.

노만 샤우척(Norman Sehawchuck) 루우벤 잡, 로버트 도허티, *영성훈련 지침서*,

오성춘 옮김, 기독교문사, 1992

닐 앤더슨(Neil T. Anderson),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Victory over the Darkness)*, 유화자 옮김,

서울:Joy Mission, 1993.

던컨 부캐넌, *예수 상담의 실재,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옮김,

서울:아기페 출판사, 1987

- 테럴 L. 구더, *증인으로의 부르심: 총체적 구원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 허성식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6
- 이빗 A 노에벨, *충돌하는 세계관*, 류현진·류현모 옮김, 서울:꿈을 이루는 사람들,
2013
- 던컨 부캐넌, *예수 상담의 실제,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옮김,
서울:아가페 출판사, 1987
- 데이빗 테일러(David Taylor),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신앙*, 김원주 역,
생명의말씀사, 1995
- 데이비스 헬름, *강해 설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김태곤 옮김,
부흥과 개혁, 2014 . 17
-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옮김,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8
- 도날드 디머레이(Donald E. Demaray), *루터에게 듣는다*, 윤종석 옮김, 두란노서원,
1992
-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옮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 로렌스 크랩, *성경적 상담학 개론*, 전요섭 옮김,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7
- 로버트클린턴, *영적 지도자만들기*, 이순정, 이영규 옮김, 베다니출판사, 2014
- 로저 허딩, *성경과 상담*, 문희경 옮김,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 릭웨렌(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박경범 옮김, 서울:디모데, 1995
-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 로버트 클린턴, *유종의 미*, 옮긴이: 이영규, 베다니출판사, 2015.

- 로버트 후크(R. F. Hock), *바울의 선교의 사회적 상황*, 정경연 옮김,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9
- 리차드 포스터 & 에밀리 그리핀, *영성고전산책*, 방성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2,
- 마이클 로런스, *목회와 성경신학*, 윤석인 옮김, 부흥과 개혁사, 2011
-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윤석인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옮김, 부흥과 개혁, 2009 ,97
-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 *칼빈. 루터. 어거스틴*, 칼빈주의연구원 역, 기독교문화협회, 1986
- 보비 제이미슨, *건강한 교리*, 김태곤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
- 빌하이벨스, *리더십*, 양준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0.
- 빌 길햄(Bill Gillham), *자연적 영성*, 유상훈 옮김.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18
- 서우드 링겐펠터, *변화하는 기독교 문화*, 옮긴이: 장훈태,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0.
- 아키볼드 하트, *숨겨진 중독*, 번역: 윤귀남, 참미디어, 1997
-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 알렌 크라이더(Alen Kreider), *회심의 변질*, 박삼종·신광은·이성하·전남식 옮김,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2012,
-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마이클 고헨(Michael W. Goheen),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 양성만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9.
- 앤디 스탠리, *비적니어링*,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정연석 옮김, 2013.
- 에드워드 홀, *침묵의 언어*, 최효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0.
- 오브리 맥퍼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안성임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오스 기니스, *폴스톡 Fool's Talk: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설득의 예술*, 윤종석 옮김, 복있는 사람, 2016.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지도력*, 이동원 옮김, 서울:요단출판사, 2004.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 양혜원 옮김, 홍성사, 2001

제랄드 메이, *증독과 은혜*, 이지영 옮김, Korea InterVarsity Press, 2005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옮긴이:김현수, IVP2009.

조나단 리먼, *교회의 교인 자격*, 정혜인 옮김, 서울:부흥과 개혁사, 2016.

조나단 봉크, *선교와 돈*, 옮긴이:이후천, 서울:기독교서, 2010.

조나단 에드워드, *구속사*, 옮긴이:김귀탁, 부흥과 개혁사, 2005.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론*, 옮긴이:양낙홍, 부흥과 개혁사, 2005.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감정론*, 옮긴이:정성욱, 부흥과 개혁사, 2005.

존 스토틀(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옮김,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 1992

존 스토틀, *제자도*, 김명희 옮김,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존 스토틀(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생명의 샘, 2008

존 파이퍼, *하나님이 복음이다*, 옮긴이:전의우, Wheaton IL: IVP, 2006.

존 칼빈(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최종판) 상*, 원광연 옮김,

정기도: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줄리어스 킴, *설교학: 복음중심적 설교의 설계와 전달*, 신민우 옮김, 부흥과 개혁,

2015, 29

짐 푸트먼,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 양육*, 옮긴이:전의우, 두란노, 2013.

질 레이트(Jill Raitt) 외, *기독교 영성 (II)*, 이후정 역, 은성출판사, 1999

찰스 크래프트, *기독교 문화인류학*,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찰스 크래프트,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성육신과 상황화 원리*, 김요한

백신중 옮김, 생명의 말씀사, 2007, 515

칼리 H. 도드, *문화를 초월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임현만 역,

서울:도서출판그리심, 2008,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한화룡 옮김, 서울:IVP, 2010.

토니 던지, *멘토 리더십*, 김진선 옮김, 출판사 토기장이, 2010

토니 던지, *사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멘토 리더십*, 김진선 옮김, 서울:토기장이,

2011.

탐 스토터(Tom Stalter), *문화인류학 강의*, 그레이스 신대원

탐 스토터, "교회 개척과 성장/ OPG Course Document Four : Growing churches are

turned outward in mission to the community and world.성장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16

탐 스토터, "교회 개척과 성장/OPG Course Document eight"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16

탐 A. 스테픈, *타문화권 교회개척*, 김한성 옮김, 서울:토기장이, 2011.

파울 알트하우스(Paul Althaus),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폴 피어슨, *기독교 선교운동사*, 임윤택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폴 히버트,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홍병룡 옮김, 서울:도서출판 복있는 삶,

2010.

폴 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이종도·이현모·정홍호 옮김,

서울: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폴 히버트·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안영권·이대현 옮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이남하 옮김, 2010, 도서출판

대장간

하워드 헨드릭스·윌리엄 헨드릭스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전의우 옮김,

서울:요단출판사, 2004.

하워드 헨드릭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전명신 옮김, 서울:생명의 말씀사, 2013.

하비스 콕스(Harvey Cox) *종교의 미래*, 서울: 문예출판사, 2010

3. 한글서적

간하배, *교회성장신학*, 성광문화사, 1994

강민호, *현대인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 서울:미니스트리 드렉, 2014

그랜드 중합주석, *제 11 권, 마태복음·마가복음*, 서울:성서아카데미, 2000

김영한,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요인에 관한 개혁신학적 연구* (제 10 회 송실대

기독교문화 및 신학 세미나 자료집, 1996, p.5)에서 채인용, Lutz Drescher,

"Ende des Wachstums?-Die Protestantischen Kirchen Suedkoreas in der

Krise", in:Zeitschrift fuer Mission (Jahrgang XXI, Heft 2, 1995)

김연태, *바울해석*,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장명옥, *양육리더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리*, 생명의 말씀사, 2007.

강민호, *현대인의 삶을 바꾸는 설교*, 미니스트리 디렉, 2014.

김명서, *영성발달과 성경적 상담 모델에 관한 연구*, 2009

김태목, *목회자의 상담*,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1970

두란노 HOW 주석, *디모데 전후서·디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

아카데미, 2008

두란노 HOW 주석, *빌립보서 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 아카데미,

2007

목회와 신학 편집팀,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아카데미, 2008,

목회와 신학 편집부,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두란노 아카데미, 2010

박기호, *타 문화권 교회개척*,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5 방효익, *영성사*, 바오로 딸,

1996

박순용,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초*, 오직성경, 서울:아가페북스, 2016

방효익, *영성사*, 바오로 딸, 1996

성경인물 연구 편찬 위원회, *성경인물연구 4*, 서울: 도서출판 시온성, 2002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국제제자훈련원, 2010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종태 옮김,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

출판부

윤사무엘, *미주 한인교회 100 년의 발자취와 비전*, 보이스사, 2002

이관직, *그레이스 신학교 목회상담 강의안*, 2016

이관직, *개혁주의 목회 상담학*, 도서출판 대서, 2012

이관직, *성경으로 본 기독교 상담*, 도서출판 지혜와 사랑, 2016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2000

이승장, *다윗, 왕이된 하나님의 종*, 서울: 좋은 씨앗, 2001, 290

이영두, *기독교 영성*, 임마누엘, 2002

이영지(Young Lee Hertig), *자녀와 부모의 세대차 좁히기*, Abingdon Press, 2001,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새물결플러스, 2015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출판국, 1995

전영복,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앨멘출판사, 1993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식 /창세기*, 성서아카데미, 2004

제자원,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사전/021:사무엘상 제 11-19a 장*, 제자원, 2003

주종훈, *기독교 예배와 세계관*, 위십리더미디어, 2014.

정인수,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서울:두란노서원, 2016.

한성기, *오늘의 신학과 내일의 신학*, 서울: 잠언, 1997

4. 학위논문

Kim, Brian Byung Joo, *CORRELATION BETWEEN TRANSFORMATIVE LEARNING AND CULTURAL CONTEXT: A CASE STUDY OF ADULT PARTICIPANTS IN A KOREAN AMERICAN IMMIGRANT CONGREGATION*, 2011.

Cha, Peter T., *The Role of Korean-American Church in the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ies Amo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2002.

5. 인터넷, 저널, 기타 자료

Abraham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1943, *Psychological Review* 50(4):370-396. Abrah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1954.

Claude E Shannon, Warren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Crag Sorley, *Christ, Creation Stewardship, and Missions: How Discipleship into a Biblical Worldview on Environmental Stewardship Can Transform People and Their Land*,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35, No 3

Elizabeth J. Tisdell, *Spirituality and Adult Learning, Leading Change*,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Volume 2008 Issue 119,
Fall 2008.

John Valk, *Leadership Transformation: The Impact of A Christian Worldview*,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Vol4, Issue 3(Fall), 2010.

Joseph Mattera, *10 Signs You Are a Secular Believer*,
<http://josephmattera.org/10-signs-you-are-a-secular-believer/>

Hofstede, Geert, *The Cultural Relativity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Theo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re-1989)*; Fall,
1983; 14, 000002; ABI/INFORM Global

Hofstede Insights, Country Comparison, [https://www.hofstede-
insights.com/country-comparison/south-korea,the-usa/](https://www.hofstede-insights.com/country-comparison/south-korea,the-usa/)

Karen Handley, Andrew Sturdy, Robin Fincham and Timothy Clark, *Within and
Beyond Communities of Practice: Making Sense of Learning Through
Participation, Identity and Practi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ume 43, Issue 3.MAY 2006.

Kraemer, Hendrik. *Communication of Christian Faith*, Philadelphia:Westminster,
1956

Penn state, *Bridging the Gap*, [http://sites.psu.edu/global/2015/09/20/bridging-
the-gap/](http://sites.psu.edu/global/2015/09/20/bridging-the-gap/)

Saddleback Church, <http://saddleback.com/connect/smallgroups/join>

Steven K. Mittwede, *Cognitive Educational Approaches as Means of Envisioning and Effeting Worldview Transformation via The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Christian Belief: SAGE Publications

Trevor Cooling, *Transforming Faith: Teaching as a Christian vocation in a Secular, Worldview-Diverse Culture*,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 2010

Wikipedia.org, *Public holidays in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holidays_in_the_United_States

World Values Survey, *Cultural map - WVS wave 6* (2010-2014),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CMSID=Findings>

김명서, *영성발달과 성경적 상담 모델에 관한 연구*, 2009

가톨릭신문, *서울대교구 청년 성서사목의 현황과 과제 청년 성경공부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11,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30705

국민일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2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5679&code=61221111&cp=du>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mall_detail.nhn?docid=14437200

위키백과, *한국계 미국인*,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3%84_%EB%AF%B8%EA%B5%AD%EC%9D%B8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미국내 공식한인 인구 5 년 동안 11% 늘어*,

2015,12,04,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17>

중앙일보, 한인 2세 '이민교회 이탈문제' 조사해보니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27650, 2012

크리스찬 투데이, 미주 한인 교회 총계,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2>

크리스찬 투데이, 한국 선교사 파송 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493>

크리스찬 투데이, 새 영적부흥 운동 일어난다, 2006,6,7.

http://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0468§ion=section12 한국

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27650

크리스천투데이,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2),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58939/20121030/%EC%9D%B4%EC%8A%A4%EB%9D%BC%EC%97%98-%ED%83%90%EB%B0%A9-%EC%97%AC%ED%98%B8%EC%99%80%EC%99%80-%EA%B7%B8%EC%9D%98-%EC%95%84%EC%84%B8%EB%9D%BC-2.htm>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http://www.tfbc.org/%EC%8B%A0%EB%AC%B8-%EA%B8%B0%EC%82%AC-%EC%9D%B8%ED%84%B0%EB%B7%B0-%EC%9D%B4%EB%AF%BC-%EB%AA%A9%ED%9A%8C-%EC%B2%A0%ED%95%99%EA%B3%BC-%EB%B0%A9%ED%96%A5/> [신문

기사 인터뷰] 이민 목회 철학과 방향

홍치모, 영성 운동의 역사적 고찰, 『목사 계속 교육 강의집: 성령과 영성』 제 7 권,

유니온학술자료원, 1990

